
SFR 훈련팀 보고서

- 11기 -

-라오스 비엔티엔 몽족
종족 현황 및 선교전략
-라오스 팍세 수질 조사보고서
-방글라데시 다카 한센병 환자마을
조사보고서



아시아 지역연구소

Handong Center for Asian Area Studies

791-708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목 차

제1장 S.F.R 소개	5
제2장 일정보고서	10
I. 10주 훈련 및 합숙일정	10
II. 전체 리서치 일정	13
제3장 팀별리서치보고서	14
I. 방글라데시	14
1. 일정	14
2. 지역개관	16
3. 관찰조사	28
4. 리서치	33
II. 라오스 1팀 (비엔티엔)	40
1. 일정	40
2. 지역개관	43
3. 리서치	53
4. 사역	67
III. 라오스 2팀(쁘세)	69
1. 일정	69
2. 지역개관	72
3. 리서치	72
4. 사역	86
제4장 선교전략보고서	88
I. 전략보고서	88
[1] 방글라데시	88
[2] 라오스	91
II. 기도요청 보고서	95

[1] 방글라데시	95
[2] 라오스 비엔티엔	100
[3] 라오스 뻑새	103

제1장 SFR 소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5)

I. SFR 소개

SFR(Southeast Asia Field Research)은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한동에 서길 소망하며 2001년 3월에 구성되었다.

SFR은 성령 중심 (Spirit Focused) 훈련으로서 "Not I But Christ (갈 2: 20)"를 소망하여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온전히 사시게 하는 훈련을 하며, 믿음 중심(Faith Focused)훈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꺼이 내가 손해 보는 삶을 사는 훈련과 관계 중심(Relation Focused)훈련으로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훈련(엡 2:20~22)을 하고 있다.

현재는 캄보디아에 NGO NIBC,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는 AIU(Asia International University),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각 국에 세워진 청소년들을 위한 기독교 기숙사들을 열매로 보게 하였고, SFR 이 수집해 온 많은 자료들과 보고서들은 각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선교자료와 기도제목이 되었다.

앞으로는 동남아 여러 국가에도 현장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고 동남아시아에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SFR의 비전

1. Spirit Focused Relationship (성령 공동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리더에게 순종하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나아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동일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한다.

2. Field Research

동남아시아의 사람과 지역에 관한 연구조사(Southeast Asia Field Research)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제시한다.

3. Ministry

동남아시아 지역을 선교적인 관문으로 삼아, 동북아시아와 중동아시아지역으로 CCCS 사역을 확산한다.

- ▷ 공동체사역(Community Ministry)
- ▷ 교회사역(Church Ministry)
- ▷ 캠퍼스사역(Campus Ministry)
- ▷ 사회사업사역(Social Ministry)

III. SFR의 미션

" Not I But Christ" (갈라디아서 2:20)

1. SFR 구성원 모두가 훈련을 통해 Spiritual Leader로 세워진다.
2. 영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 선교사(Professional Missionary)로 세워진다.

IV. SFR의 훈련과정

1. 학기 중 훈련

10주간의 훈련을 학기 중에 실시한다. 훈련 내용으로 매주 목요일 특강 시간을 통해 기본적인 영성 훈련을 하고 이외에 리서치 대상 지역과 종족에 대한 사전 문헌 조사, 조사표 작성, 리서치 실습을 한다. 매일 밤 10시 기도회를 하며 셀 모임 체제로 양육을 받고, 지체들간의 교제를 나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소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을 익히고 중국에 대해서 알며 우리 안의 연합을 이룬다.

2. 방학 중 합숙 훈련

방학 후 10일 간의 합숙 훈련 시간을 가진다. 기본적인 훈련 이외에 중국과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팀 내의 공동체 훈련, 성령 세미나 등을 통해 리서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3. 필드리서치

실제 조사 지역에 들어가서 준비한 조사표를 바탕으로 현지 인터뷰와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한다. 또한 말씀 선포와 워십댄스, 찬양, 대적기도 등을 통해 그 땅의 악한 영을 묶는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4. 보고서 작성

리서치 후 정탐의 열매인 보고서와 동원자료를 만든다. 각 부별 보고서와 리서치보고서, 선교 전략 보고서를 만들고 선교 동원을 위해 사진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자료들을 만들며 사진 전시회와 동원 보고 예배를 준비한다.

5. 선교 동원

작성된 보고서와 간증문 등을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하여 발표하고 각 교회와 단체에 가서 준비한 미디어 자료와 간증 등을 통해 동원사역을 담당한다.

V. SFR의 연혁

연도	학기	활동내용
2001	1학기	3월: C.F.R. 5기 팀과 S.F.R. 1기 팀이 훈련 시작 7월8일~7월28일: 1기 훈련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리서치
	2학기	9월: 2기 훈련팀 동원예배 및 보고예배 9월~12월: 2기 훈련팀 10주 훈련 12월31일~1월27일: 2기 훈련팀 태국 리서치, 1기 미션팀 캄보디아 압사라 사역 및 리서치
2002	1학기	3월: 3기 훈련팀 동원예배 및 보고 예배 3월28일~6월20일: 3기 훈련팀 10주 훈련 7월6일~8월2일: 3기 훈련팀 태국 리서치, 2기 미션팀 캄보디아 압사라 사역 및 리서치
	2학기	9월~12월: 4기 훈련팀 10주 훈련 12월18일~12월30일: 10일 합숙 훈련 및 말씀통독 12월31일~1월21일: 2기 비전팀 태국 비전트립 4기 훈련팀 태국, 미얀마 리서치 3기 미션팀 캄보디아 압사라 사역 및 리서치

2003	1학기	3월: 4기 훈련팀, 3기 비전팀 보고예배 3월~6월: SFR 5기 훈련팀, 3기 비전팀 10주 훈련 6월23일~7월1일: 10일 합숙 훈련 및 말씀통독 7월2일~7월22일: 5기 훈련팀 태국 남부, 미얀마, 캄보디아 리서치, 3기 비전팀 야소톤, 암낫짜른, 마라나타 센터, 4기 미션팀 캄보디아 씨엠립에 연구소 구축 7월23일~7월25일: 구국성회 참석
	2학기	9월: 6기 훈련팀, 4기 비전팀 10주 훈련 12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태국 리서치
2004	1학기	3월: 보고 예배 및 7기 훈련팀, 5기 비전팀 calling 3월~6월: 7기 훈련팀, 5기 비전팀 10주 훈련 6월23일~7월3일: 10일 합숙 7월4일~7월28일: 7기 훈련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리서치 5기 비전팀-태국
	2학기	9월: 보고 예배 및 8기 훈련팀, 6기 비전팀 calling 9월~12월: 8기 훈련팀, 6기 비전팀 10주 훈련 12월~1월: 8기 훈련팀-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리서치, 6기 비전팀-미얀마,태국
2005	1학기	3월: 보고 예배 및 9기 훈련팀, 7기 비전팀 calling 3월~6월: 9기 훈련팀, 7기 비전팀 10주 훈련 7월: 훈련팀-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비전팀-미얀마,태국
	2학기	9월: 보고 예배 및 10기 훈련팀, 8기 비전팀 calling 9월~12월: 10기 훈련팀, 8기 비전팀 10주 훈련 12월~1월:훈련팀-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리서치 비 전팀-미얀마,태국
2006	1학기	3월: 보고 예배 및 11기 훈련팀, 9기 비전팀 calling 3월~6월: 11기 훈련팀, 9기 비전팀 10주 훈련 6월 26일~ 7월 5일: 10일 합숙 7월 7일~7월 28일: 훈련팀-라오스, 방글라데시 리서치 비전팀-태국, 미션팀-라오스

제3장 팀별 리서치 보고서

I. 방글라데시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장 7절)

1. 일정

<p>2006년 7월 7일 21:00 인천에서 방콕으로 출국</p> <p>2006년 7월 8일 00:30 방콕공항도착(현지시각) 01:00 라오스팀 이동 07:00 람뽕팀 이동 08:00 아침식사 08:30 아침묵상 10:30 다카로 출국 13:30 다카공항 도착(현지시각) 14:00 선교사님댁 도착, 점심식사 15:00 굴산2에서 현지웃 구입 18:00 저녁식사 20:00 Orientation 21:00 컴퓨터작업 22:00 전략회의</p> <p>2006년 7월 9일 06:30 기상 07:00 Sabar로 이동 08:00 주일예배 11:00 학교건축현장이동 13:00 선교사님댁 도착, 점심식사 14:30 말통 19:00 한인교회 저녁예배 22:00 전략회의</p> <p>2006년 7월 10일 08:30 기상, 아침식사 09:30 밋다라 초등학교 도착 13:00 점심 16:00 선교사님댁으로 돌아옴 17:30 저녁식사 20:00 말통</p>	<p>21:00 예배, 전략회의</p> <p>2006년 7월 11일 08:30 기상, 아침식사 09:00 아침묵상 10:00 학교로 이동 11:00 학교주변 리서치 13:00 점심식사 16:30 밋다라 홈 도착 19:00 저녁식사 20:00 귀가(지영이만)</p> <p>2006년 7월 12일 08:00 기상, 아침식사 09:00 아침묵상 10:00 학교도착 11:00 수업(3학년, 5학년) 13:00 점심식사 14:00 수업 16:00 밋다라 홈 도착 16:30 밋다라 홈 외벽꾸미기 구상 17:30 저녁식사 21:00 말씀통독 22:00 예배, 전략회의</p> <p>2006년 7월 13일 08:00 기상, 아침식사 09:00 아침묵상 09:30 학교도착 10:00 특별활동 12:00 점심식사 13:00 학생들과 소풍 17:30 저녁식사 22:00 말통 23:00 예배, 전략회의</p>
--	---

2006년 7월 14일

08:00 기상
09:00 현지인 결혼식장으로 이동
11:30 결혼식장 도착
12:30 결혼식
15:30 졸업생과의 만남
18:30 귀가
20:00 말씀통독
21:00 예배, 전략회의

2006년 7월 15일

07:00 기상, 아침식사
08:00 아침묵상
08:30 반다바리로 출발
10:40 반다바리 도착, 리서치
12:30 반다바리 출발
13:30 기독교수양관 도착, 점심식사
15:30 집 도착
18:00 저녁식사
22:00 말씀통독
23:00 예배, 전략회의

2006년 7월 16일

08:00 기상, 아침식사
09:00 아침묵상
11:00 한인교회 주일예배
13:00 점심식사
14:00 밋다라홈 이동
14:30 밋다라홈 외벽꾸미기
17:00 귀가
18:00 저녁식사
20:00 말씀통독
21:00 예배, 전략회의

2006년 7월 17일

07:30 기상, 아침식사
08:50 아침묵상
10:00 밋다라 초등학교
13:00 점심
17:00 귀가
18:00 저녁식사
20:00 말씀통독
21:00 예배, 전략회의

2006년 7월 18일

07:30 기상, 아침식사
08:20 아침묵상
12:00 밋다라초등학교 이동
13:00 점심식사

14:30 초등학교 장학생 축하 행사
17:00 귀가
18:30 저녁식사 초대
20:00 다들 약먹고 일찍 취침.

2006년 7월 19일

07:30 기상, 아침식사
08:20 아침묵상
10:00 사업체방문
13:00 점심식사
15:00 말통
17:30 저녁식사
20:00 공원운동
21:00 예배, 전략회의

2006년 7월 20일

07:30 기상, 아침식사
08:30 아침묵상
09:00 다카대학으로 이동
13:00 점심식사
14:00 커피월드
17:00 귀가
18:00 저녁식사
20:00 말통
21:00 예배, 전략회의

2006년 7월 21일

08:00 기상, 아침식사
09:00 아침묵상
11:00 금요일예배
13:00 점심식사
15:30 사라즈곤즈로 출발
18:00 사라즈곤즈 도착
19:30 저녁식사
22:00 말씀통독
23:00 전략회의, 취침

2006년 7월 22일

07:30 기상, 아침묵상
08:30 아침식사
09:00 사라즈곤즈 현지인들과 인사
09:30 주변마을의 학교로 이동
11:00 농장으로 돌아와서 농장에 있는 학교에서 그림그리는 것 도와줌
13:00 점심식사
14:00 사라즈곤즈 농장 주변 리서치
18:00 저녁식사
20:30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
22:00 취침

2006년 7월 23일

07:00 기상, 아침묵상
08:00 아침식사
10:30 사라즈곤즈 출발
13:30 다카도착
14:00 점심식사
15:00 굴산아룡에서 중보자선물 구입
16:30 귀가
18:30 ABC빌딩 레스토랑에서 식사
20:00 귀가
21:00 말씀통독
22:00 예배, 전략회의

2006년 7월 24일

08:00 기상, 아침식사
09:00 아침묵상
10:30 공항으로 이동
13:10 방콕으로 출국
18:30 방콕도착(현지시각)
19:30 방콕 영광교회 도착
20:00 저녁식사
22:00 말씀통독
23:00 전략회의, 예배
24:00 취침

2. 지역개관

1) 일반 개관

(1) 국명: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 위치: 동아시아 산맥과 벥갈만 사이에

위치. 남동쪽은 미얀마와 접하고
남쪽은 벥갈만에 면한다.

(북위 20도 34분과 26도 38분,
동경 88도 10분과 92도 41분 사이)

(3) 면적: 147,570 km² 남한의 약1.5배, 한반도 전체의 2/3정도의 크기

(4) 지형: 거의 평평한 충적기의 평야. 동남쪽은 약간의 언덕이 있다.

(5) 천연자원: 천연가스, 경지, 목재, 석탄

(6) 자연재해: 가뭄, 사이클론, 여름에는 국토의 70%가 물에 잠긴다.

(7) 인구: 1억 4천 7백만명 (2006년 7월 통계)



인구밀도: 955.3명/km²(2003년 통계)으로 세계 1위이다.

(8) 인구구조(2006년 통계)

나이	백분율
0 - 14세	32.9%
15 - 64세	63.6%
65세 이상	3.5%

(9) 인구성장률: 2.06%(2006년 통계, 세계1위)

(10) 주요도시

- ① 수도 - 다카(Dhaka) 990만명
- ② 제2도시 - 치타공(Chittagong) 320만명
- ③ 제3도시 - 쿨나(Khulna) 122만명

(11) 기후

겨울(11-2월), 여름(3-6월), 우기(7-10월)로 구분되는 아열대 몬순 기후. 방글라데시의 국토는 국토의 90%이상이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히말라야 산록을 수원으로 하는 브라마트라강 (일명 자무나강), 갠지스강(일명 빠드마강), 메그나강 등 3개강을 중심으로 한 약 230여개에 달하는 수많은 강들이 국토를 가로질러 뱅갈만으로 흘러들어가는 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이루어진 충적평야 지대이다. 따라서 방글라데시 국토의 고도는 1마일당 5인치 정도에 불과하며, 바다로부터 약 300Km이상의 내륙의 고도가 3m에 불과한 곳도 있기 때문에 매년 홍수의 피해가 크다. 연간 강수량 1,500~2,500mm에 이르는 지대가 대부분이다.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가 우기이며, 우기에는 전 국토의 2/5가 침수(浸水)되고 이 기간 동안 내리는 비는 연간 총 강우량의 75%를 차지한다. 건기는 11월~2월까지이다. 건기가 끝날 무렵에는 회오리바람이 파르는 사이클론(벵골만 태풍)이 종종 내습하는데, 피해가 심각하다. 1991년 4월 내습한 사이클론으로 13만 8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국토의 75%가 경작이 가능한 땅이며 15%는 삼림, 5%는 초원이다.

(12) 민족구성: 인구의 98%가 몽골드라비다계(系)의 벵골족. 그외 치타공 지방에는 아라킨·차크마·바루아 등의 버마계 종족과 인도의 비하르 지방에서 이주해 온 비하르족 등이 살고 있다.

(13) 언어: 공용어는 벵갈어로 인구의 98%가 사용

(지식인들이나 비즈니스 종사자는 대부분 영어를 상용어로 사용)

(14) 문맹률: 57%(2006년 통계)

(15) 공항: 16개(2005년 통계)

(16) 종교: 1988년 6월부터 국교가 된 이슬람교가 86.6%. 그밖에 힌두교가 12.1%, 불교가 0.6%, 크리스티교가 0.3%, 그 밖이 0.2%를 차지한다.

(17) 화폐: 다카(Taka) 1\$ = 70 Taka (2006.7)

(18)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19) 투표권: 만 18세 이상

(20) 국기: 이슬람교의 전통색인 초록은 젊은이의 의기와 푸른 벵골 지방을, 빨강은 피로써 쟁취한 자유의 태양과 독립을 얻기 위해 국민이 치른 희생을 나타낸다.



2) 정치

(1) 정치형태: 내각책임제. 임기 5년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국방에 관한 형식적 권한을 보유하고 의회에서 선출된다. 행정의 수반은 수상이며 수상이 국정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

(2) 정치의 역사적 변화

방글라데시의 독립운동을 이끌어온 AL(Awami League: 아와미연맹)은 독립 후에도 정권을 장악하여 연맹 총재 무지비르 라만이 총리가 되었다. 1972년 4월부터 제헌의회가 개최되어 11월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민족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비(非)종교주의’를 내세웠다. 1975년 1월 헌법을 개정하고 무지비르 라만이 그후 대통령이 되어 전행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식량부족으로 인한 경제혼란, 인도에 대한 종속관계, 정치 지도자의 부패 등을 배경으로 그해 8월 국군 청년장교의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무지비르 라만은 사살되고 AL의 많은 지도자들이 체포·처형되었다. 또 그해 11월 두 차례의 군부쿠데타를 거쳐 육군 참모장 지아우르 라만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1978년 6월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지아우르 라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1979년 2월의 총선거에서는 여당인 BNP(민족주의당)가 압승하였다. 그후 1981년 5월 다시 쿠데타가 발생하여 쿠데타 자체는 군부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로 끝났으나, 그 불발 쿠데타로 인해서 지아우르 라만이 살해되었다. 1981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그 동안 대통령서리직을 맡아 온 A. 사타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90년 9월부터 대통령 에르샤드의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세력과 학생의 시위가 빈발하여 12월 6일 에르샤드가 사임하였으며, 1991년 2월 실시된 총선거 결과 민족주의당이 제1당의 자리를 확보하였다. 3월 20일 민족주의당 총재 할레다 지아가 방글라데시 최초의 여성 총리에 취임하였다. 1991년 9월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었다.

2001년 10월 선거에서는 전 수상 칼레다 지아가 이끄는 BNP(방글라데시 민족당)를 주축으로 한 이슬람 우파연합 4개정당이 승리하였다. 의회는 임기 5년의 단원제이다. 전체 330석으로 지역구 300석, 여성의석 30석(비례대표제로서 의회에서 선출)으로 이루어진다. 1983년 11월 정치활동 자유화이후 수십 개의 정당이 생겼다. 주요 정당으로는 2001년 10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당이 된 BNP(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 제1야당인 AL가 있고 그 밖에 국민당·이슬람당·공산당·노동자농민당 등과 같은 군소정당이 있다.

(3) 현재 정치상황

2007년 초에 총선이 있다. 정상적으로는 정권 마지막 6개월 전에 중립내각을 세우고 여당의 정권을 내 놓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야당들의 반발이 있고,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지원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당과 야당 사이의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 때문에 여당은 자신의 힘을 내려 놓을 수 없는 것이고, 야당도 그 힘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친미정부이다(야당은 친인도세력).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슬림 국가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평화적이고, 미국과의 교역도 활발한 이유이다.

3) 경제

(1) 주요경제지표 (2005 회계 년도)

- ① GDP: US\$ 304.3억
- ② 실질 경제 성장률: 5.7%
- ③ 수출: US\$ 9.372백만
- ④ 수입: US\$ 12.97백만
- ⑤ 실업률: 2.5%
- ⑥ 최하빈민층: 45%
- ⑦ 물가상승률(CPI): 5.1%
- ⑧ 화폐단위: Taka(TK) 다카
- ⑨ 환율: US\$1=TK70.50(2006.07)
* 2003. 5.31 변동환율제 전격 시행
- ⑩ 외채: GDP의 44.5%
- ⑪ 외환보유고: US\$32억(2004.7월말)
- ⑫ 산업구조(%): 농·어업(63), 제조업(11), 서비스업(26)
- ⑬ 산업인구 성장률: 6.5%
- ⑭ 주요 교역품
* 수출: 봉제의류(75%), 황마, 냉동새우, 차(Tea) 가족(제품)
* 수입: 각종 산업용 원부자재 및 중간재, 원유, 기계류, 일반 소비재

(2) 경제개황

① 경제환경

전형적인 저개발농업국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 1 위의 인구 조밀국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6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이 국내총생산중 35%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부문이 낙후하고 부존자원이 빈약하다.

높은 인구밀도(세계 1 위), 여전히 높은 인구증가율(1.78%), 높은 문맹율(67.6%), 낮은 국민자본 축적 및 기술수준의 낙후, 합리적 경제정책을

추진할 정치사회적 기반 취약, 농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의 불안정(기후조건에 좌우), 부존자원 빈약 등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잦은 홍수로 인한 농업생산 부진과 공업생산의 완만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저해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비농업 원료, 기계, 장비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천연가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에너지 수입이 과중한 실정이다. 또한 경제발전의 투자재원을 주로 외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무상원조의 감소로 상환 부담이 높아지고 있으며, 잦은 정치적 파업은 수출산업등 제조업 분야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② 경제구조 및 시장특성

구매력을 보유한 인구비율이 낮다. 또한 복잡한 법이 개인의 제조업등 투자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로 해외원조(연간 약 \$ 20 억 규모)와 해외취업노동자들의 송금에 의해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를 일부 보완하고 재정의 약 60%를 동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개발사업은 국외자본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추진되며, 원조국의 영향력이 크다.

시장규모는 매년 높은 인구증가로 확대되고 있지만 낮은 국민소득으로 유효수요 및 구매력은 미미하다. 다카, 치타공, 쿨라, 라샤히 등이 주요상업도시이나 다카 및 치타공에 대부분의 상업활동이 집중되어 있다. 국가기업체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도소매상이 없으며 대부분 가족경영 형태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다. 회교국가로서 종교의식이 소비패턴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구소비재 시장형성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형편이다.

4) 사회문화

(1) 문화

최근 인도에서 힌두교도들이 라요드 회교사원을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때 방글라데시 내에서도 회교도가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흥분한 회교도들이 힌두교도를 습격한 경우가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두 종교 사이에서 분쟁은 거의 없는 편이다. 방글라데시는, 회교도가 전체 인구의 약 87%를 차지하는 회교국가 이기는 하나, 코란에 의한 회교율법이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들은 무슬림이라기 보다는 벵갈리(Bangali)라는 "민족정체성"이 훨씬 강하다.

지역 및 역사적 특성에 따라 중동지역의 정통 회교국에 비하여 다소 문화적으로 완화된 모습을 엿볼수 있다. 즉, 정통 회교국에 비해서 여성들의 봉제공장 취업등 사회활동이 보편화 되어 있고, 음주도 할 수 있다.

회교도들은 하루에 5 번씩 기도생활을 하고 있으며, 휴일인 금요일에는 사원(모스크)에서 기도(즈마, 나마즈)를 한다. 1 년에 두차례 이드(Eid) 축제 기간은 정부에서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명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기간에는 가족과 친인척끼리 한자리에 모여, 전통과 율법에 따른 각종 의식을 행한다. 이 때는 귀성객들로 버스나 기차 터미널이 매우 붐비고 모든 관공서 및 상점들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설날이나 추석 명절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드 (Eid)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금식기간(라마단)이 끝나는 다음날 아침부터 3일간 시작되는 **Eid-UI-Fitr** 와 **이드인 Eid-UI-Azha** 로 나눌수 있다. "이드인"에서는 소나 염소등을 잡아 신에게 제사지내고 1/3 은 거지나 이웃에게, 1/3 은 친인척에게, 나머지 1/3 은 자기가 먹는 행사를 가진다. 금식 기도 기간인 라마단은 1 개월간 계속되는데, 이 기간중에는 해뜨기 전부터 해질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않고 기도를 드리며, 해가 지고나면 먹고 마시며 늦게까지 즐긴다. 따라서 라마단 기간중에는 근무시간이 단축되며, 비즈니스 활동도 휴식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중동국가에서 마호멧 탄생일을 최대의 명절로 치는 반면, 방글라데시에서는 위와 같은 이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회교도는 남여를 가리지 않고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

- 알라 등 회교에서 정하는 대상과 율법을 철저히 믿어야 하는 것 (Iman)
- 매일 5 차례의 기도를 해야하는 것 (Prayer)
- 자기소유의 최소 2.5%를 거지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 (Jakat)
- 라마단 기간중에는 금식을 해야 하는 것 (Fasting)
-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회교 성지인 메카를 방문해야 (Haji) 한다는 것

모든 능력자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하고, 힌두교인은 죽은자를 장작으로 태우는 반면, 회교도들은 죽은 자는 반드시 매장을 해야한다는 규칙을 따르고 있다.

(2) 교육

① 개 관

문맹율이 67.60 %에 이른다. 노동력의 약 5%정도만이 고졸이상 과정을 이수하였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노력으로 90년초부터 초등학교 취학율이 높아져 82%에 이르고 있다. 교육수준은 매우 낮다.

② 교육 과정

초등(5년), 중등(5년), 고등(college,2년), 대학(2년-5년)의 학제로 이루어져 있다. 중등 졸업 후 고등 진학을 위해서는 Secondary School Certificate 시험을, 고등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Hige Cecondary Certificate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대학은 통상 2~4년제이며, 졸업하면 Bachelors(Honours)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취득은 1년이 더 필요하다.

③ 교육정책

회교이념과 가치전수에 중점을 두는 한편,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고급기술인력 및 기능인력 수요충당에 우선하고 있다.

초등(5년)· 중등(5년)· 고등(2년)· 대학(2년-5년)의 학제로 이루어져 있다. 선생님들의 월급이 적어 공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교육이 매우 성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사교육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고등학교 등록금이 비싸 다니지 못한다.

5) 역사

(1) 고대



선사시대부터 벵갈지역 (인도의 West Bangal 주 포함)에는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이 살고 있었으나, BC 6세기 경 부터는 인도 등지로부터 아리안 족이 침입하여 곳곳에 섞여 정착하기 시작했다. 또한 가까운 티베트, 미얀마 등지로부터는 터어키족, 몽고족등이 이주해와서 종족간의 혼혈이 이루어졌으며, 벵갈인이 형성되었다. BC 5세기 중엽부터 벵갈지역 (브라마트라강 서쪽지방)은 마가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 무렵부터 불교가 전파되었다. 이어 마우리아 왕조와 쿠산 왕조로 이어지면서 불교가 이 지역에서 크게 교세를 떨쳐 불교문화가 융성하였다. 그러나 AD 4세기 굽타왕조가 인도를 재통일 하면서 부라마만 교를 국교로 정하여 불교가 일시 쇠퇴하였으나 AD 8세기경 팔라왕조가 성립되면서 불교는 비로서 전 벵갈지역에 퍼지게 되었다.

(2) 이슬람 시대

1204년 회교도의 침입으로 팔라왕조가 멸망하고, 터키계 고리왕조가 성립되면서 터키계 회교도들에 의해 지배되어왔다.

1576년 무갈 왕조의 아크바르 대제가 벵갈지역을 정복하였으며, 영국식민통치와 대체될때까지 무갈왕조의 지배는 계속되었다. 무갈왕조의 아크바르대제는 행정기구를 중앙집권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토지의 사유를 금지하고 왕이 전토지를 소유하면서 궁정 회교귀족에게 하사하였으며, 귀족들은 기존의 카스트제도를 이용하여 토지를 지방호족(힌두교도)에게 세습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궁정 회교귀족을 중심으로 문화가 번성하였고,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수공업과 상공업의 발달은 도시 기술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했으며, 비회교도에 대한

인두세가 부과되는등 차별정책이 시작되자, 카스트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교에게로의 개종이 시작되어 오늘날 회교국의 계기가 되었다.

(3) 영국 식민통치 시대

1600년 영국의 인도 통치가 시작된 이래 1757년 프랑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에 따라 영국은 벵갈지역을 포함한 인도 전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1773년부터 총독에 의한 영국의 직접통치는 회교도들에 의한 등용의 차별(힌두교도 우대) 정책과 경제 수탈 정책으로 벵갈 지역의 회교도들은 영국인과 힌두교도의 이중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농촌은 황폐화 되었다. 1815년 이래 영국으로부터 기계와 면제품이 수입됨에 따라 한창 번성하던 면공업도 완전히 파멸하였으며 이를 대체할 수출품 생산을 위해 주트와 차 재배가 도입되게 되었다. 19세기 초엽부터 반 힌두교 성격이 강한 회교 부흥 운동이 일기 시작했으며, 이 운동은 20세기에 들어와서 회교 엘리트들의 반 영국운동으로 바뀌어 벵갈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2차대전의 종료와 함께 종교적인 공통성이란 이유로 벵갈지역은 파키스탄의 1개주인 동파키스탄으로 1947년 8월24일 독립하였다.

(4) 동파키스탄 시대



종족, 언어 및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동/서 지역이 한나라로 독립되고, 서파키스탄 정부의 동파키스탄에 대한 경제포탈, 문화종속, 정치적 압제 등의 차별정책이 심해지자 저항운동이 일기 시작했다. 이 동파키스탄의 저항운동은 1952년 "벵갈어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1948년에 파키스탄의 까이디.아잠 대통령이 동파키스탄도 서파키스탄의 언어인 우르두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58년에 중앙정부가 주정부를 해산하고 대통령의 직접 통치하에 두어 아유브.칸 장군의 군정에 의한 통치와 1962년 퇴역한 후 선거를 실시하여 형식상의 민정통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벵갈인들의 거족적인 데모(1965년에 일어난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후 66-68년 3년동안 독립운동이 무척 강했었다.)로 결국 1969년 10월 이야히야.칸 장군에게 정권이 이양되었다. 1970년 11월 총선에서 동파키스탄 분리를 주창해 왔던 {아와미}연맹당의 압승으로 중앙정부의 국회개회 무기한 연기에 대항하여 '셉 모지불 라만' 당수가 전면 파업과 함께 1971년3월26일 아침 치타공방송국을 통해서 동파키스탄의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동. 서지역의 대립은 결국 내전화 되고 말았다. 이러한 동파키스탄

독립운동을 중앙정부가 무력으로 강제진압하려 하였으나, 동년 12월3일에 인도의 참전으로 실패하고, 마침내 1971년 12월16일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라는 국호로 독립하였다.

(5) 방글라데시 탄생

독립 후 1972년 1월10일 아와미리그의 '모지불 라만(색 하시나의 아버지)' 당수가 귀국하여 잠정 헌법을 선포하였다. 라만은 A.S.조드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수상으로서 국방, 내무, 공보상을 겸하고, 사회주의 경제방식과 비동맹 중립노선을 견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라만은 취임 당시 국민들에게 3개월 이내에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발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팽배해져 갔다. 이에 따라 그는 농산물과 기타 일용상품 분배에 실패해서 엄청난 물가상승과 극심한 인플레이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하였다. 1972년 12월 헌법제정에 이어 1973년 3월에 실시된 최초의 총선에서 모지불 라만이 이끄는 아와미리그가 압승하여 라만체제가 더욱 공고화되었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과 1974년 가뭄으로 인한 기아사태 등에 의한 경제의 혼란과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겹쳐, 야당에 의해 주도된 반정부 시위활동으로 국내치안이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12월말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75년 1월 대통령 중심제로하는 헌법개정을 단행하였다. 1975년 8월 계엄령의 선포로 정당활동의 금지와 일당통치를 기도하던 중 모지불 라만대통령이 청년장교들에 의해 피살됨을 계기로 쿠데타가 발생하여, 동년 12월 '지아 우르 라만(부인 : 칼레다 지아)'장군이 정권을 장악하고 1977년 4월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1981년 5월30일 암살당하였다. 1982년 3월 당시 육군참모총장 엘샤드(ERSHAD)중장이 무혈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계엄령하에 통치를 계속하였으며, 1986년 5월7일 민정이양 첫 단계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집권여당인 자띠오파티당(JATIYA PARTY)이 압승하였다. 이에 엘샤드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개발과 국민생활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다.

몇 번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홍수, 인구증가, 문맹 등 문제들이 잡혀 나가기 시작했다. 평화적인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개발프로그램들이 뱅갈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일으키기도 했다. 1986년 10월 15일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 선거에서 엘샤드가 대통령에 당선, 1986년11월10일 계엄령을 철폐하였다.

1987년11월11일-26일(17일간) 야당측은 엘샤드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정부 강경투쟁 'DHAKA SLEGE PROGRAM'을 벌이자 정부는 1987년 11월27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987년 12월 6일 국회를 해산하였다. 1988년 3월3일 정부는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여당인 자띠오파티(JATIYA PARTY)가 83%의석(300석중 250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동년 4월 25일 국회개원과 더불어

비상사태를 해제하였으며, 4월 28일 개각을 단행하였다. 1989년 7월 대통령임기 5년으로 1회 연임가능, 부통령은 국민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하였으나, 야당연합 주도의 정권퇴진운동으로 1990년 12월 6일 엘사드 대통령의 하야 후 JATIYA PARTY정권이 붕괴하였다. 1990년 12월 7일 전임 대법원장 샤하부딘이 야당연합의 추천하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총선에 의한 신 의회 구성 및 민선정부에 권력이양을 약속하였다.

1991년 2월 27일 총선결과 방글라데시국민당(BNP; BANGLADESH NATIONAL PARTY)이 승리하여 기타 군소정당과 연정으로 국민당의 당수인 칼레다.지아(KHALEDA ZIA)여사(지아 우르 라만 전수상의 부인)가 수상에 취임하여 동년 9월 15일 내각책임제로 개헌을 하였다.

1996년 6월 12일 제7대 총선 아와미 리그가 제1당으로 등장, 당수 Sheikh Hasina(모지불 라만 전 수상의 딸) 총리취임 했다.



6) 종교

(1) 종교현황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기타
86.6 %	12.1 %	0.6 %	0.3 %	0.4 %

(2) 이슬람교의 영향

방글라데시에 있어서 이슬람교는 종교의 범위를 넘어서 생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나치리만큼 강조하는 그들의 동일성과 통일성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루에도 여러번씩 반복하며 같은 시간에 수백만의 사람이 같은 기도를 외우고 매년 순례의 길을 동행한다. 함께 예배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례하는 거대한 공동체인 것이다. 이 이슬람교가 방글라데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은 물론이다. 더군다나 방글라데시는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통하여 이룩한 이슬람교 국가로서 민족적, 종교적 색채가 강한 나라이다. 파키스탄의 정치적, 경제적 착취와의 경쟁 속에서 이들을 단합시킬 수 있었던 것도 지역적, 종교적인 힘 때문이었다. 이러한 힘은 이슬람교를 적극 지지하는 정당이 대부분의 방글라데시 의회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더군다나 중동의 산유국들의 막대한 원조는 방글라데시에 대한 압력도 가능케 하여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교의 영향은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와 더불어 그들의 한 순간의 삶의 영역에까지 이르고 있다. 엄연히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에서 타종교에의 개종은 목숨을 건 모험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들의 개종은 부모, 친척, 친구로부터의 이탈이며 직장에서의 추방이다.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해서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족에게 살해당하기까지 한다. 이슬람교는 방글라데시에 있어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3) 기독교 현황

전세계는 방글라데시를 기아, 빈곤, 인구과잉의 나라로 생각한다. 방글라데시가 거의 200 년 동안이나 홍수와 폭풍, 기근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1970 년대만 하더라도 자연재해나 전쟁 그리고 기아로 죽은 사람이 150 만 명이 넘는다. 혹시 풍년이 든다고 할지라도 나라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이니, 방글라데시의 재난들은 어떠할까 가히 짐작할 수도 없다. 그리고 여전히 인구는 하루에 6,000 명씩 늘어만 가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여야만 하는 실정이다.

방글라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여전히 저항적이다. 국가의 공식 종교가 이슬람교로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구제활동을 정부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는 아직 없는 편이다. 그러나 선교사의 정식입국을 금지하는 등 새로운 장애물이 기독교의 복음선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기독교는 비벡갈계 부족들과 소수 힌두계층들 사이에서 좋은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일꾼들이 부족한 형편이기도 하다. 교회를 설립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부족언어들로 번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글라데시는 벵갈인이 9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하리 벵갈인이 8%이며, 그리고 다른 소수 부족민들이 2%가량 차지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은 다시 종교와 계층에 따라 세분화 된다. 방글라데시를 복음화시키려면 이런 부족에 대해 그 특징과 그 집단에 대한 연구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각 집단들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들은 복음을 받지는 못했으나 대부분 복음에 대해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복음에 대해 가장 저항적인 집단은 벵갈과 비하리의 이슬람교도들이다. 이들은 방글라데시에서 독특한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 비록 이슬람교가 평등을 주장하여 계급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방글라데시의 이슬람교에는 아쉬랍(상류층), 아즈랍(평민) 그리고 아르찰(천민)등의 계급이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쿠스틴 같은 지역은 개종자들이 많이 있으며, 성경통신강좌를 원하는 이슬람교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복음선교에는 고무적인 일이 되고 있다.

힌두교 벵갈인은 모두 25 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4 계급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개방적인 계급만을 집중적으로 사역한 선교회는 상당한 성장을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교회나 선교회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면 이슬람교와 힌두교 문화에서 소외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선교단체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지만 단일 부족이나 계급에 집중하여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선교단체나 교회는 큰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다. 특히 부족민들의 선교에 이 전략은 매우 큰 성과를 가져왔다.

기독교단체들은 구제와 개발사업에 적극적이어서 이슬람교국가인 방글라데시정부에서도 기근과 황폐 그리고 재난마다 도움을 베푸는 이 손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언제 이런 상황이 사라질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입국하지 못한다든지 금, 토요일은 정기휴일로 정한다든지 하는 정부의 시책은 언제 기독교선교에 먹구름을 가져올 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진 지금 방글라데시 선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 자료출처 - SFR 8기 트레이닝팀 보고서
- 네이버 백과사전(www.naver.com)
- 방글라데시의 모든 것(www.bangla.co.kr)
- www.cia.gov

3. 관찰조사

A. 교통수단

(1) 닥샤(인력거)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싸고 대중적인 교통수단

- ① 자전거로 끌며 단거리 운송수단
- ② 일반적으로 2인승이지만 4명까지 타기도 한다
- ③ 타기 전에 값을 흥정해서 정해 놓고 타야 한다
- ④ 외국인의 경우 현지인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
- ⑤ 닥샤 운전사들은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최하층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 ⑥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닥샤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지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자신이 얼마나 일하는가에 달려있다.)



(2) CNG (베이비가리)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만든 세발 택시

- ① 미터기로 요금을 계산 하며 기본 요금은 12다카이다.
- ② 불편하지만 앞좌석에 1명, 뒷좌석에 4명이 앉으면 최대 5명 까지 탑승가능
- ③ 창문이 없어서 매연에 직접적으로 노출 되기 때문에 손수건이나 마스크를 가지고 타는 것이 좋다.
- ④ 가까운 거리는 미터기로 가기를 꺼려하고 가격을 정해서 가기를 원한다.



(3) 택시

- ① 노란색 택시와 검은 색 택시 두종류가 있는데 노란 택시가 승차감이 좋고 넓다.
- ② 미터기로 요금을 계산 하며 기본요금은 검은택시가 12다카, 노란택시가 20다카이다.
- ③ 비싸지만 가장 편한 교통수단이다.
- ④ 거의 대부분이 일제 차량이다.

- ⑤ 시외로 벗어날 경우 그 시점부터 2배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4) 가리(버스)

- ① 거리마다 다르지만 평균 10다카 정도 한다
- ② 천연가스 버스, 2층 버스 등 버스의 종류가 다양하다
- ③ 승객이 많아 좌석이 거의 만원이다
- ④ 버스 위에 타는 경우도 있다
- ⑤ 버스 위에 탈 경우 차가 출발하거나 멈출 때 예고가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⑥ 버스 위에서는 특별히 좌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짐 싣는 곳에 앉아서 가는 것이다
- ⑦ 버스 위에 타는 것은 요금을 받지 않는다.
- ⑧ 버스의 경우 인도제 차량이 대부분이다



(5) 벤

- ① 시골에 닉샤가 없는 지역에 있는 교통수단
- ② 자전거 뒤에 수레 같은 것을 달고 4명 정도가 탈 수 있다.
- ③ 요금은 기본 5 다카 정도
- ④ 옆으로 앉아서 가는 것이고 뒤가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B. 의생활

(1) 찰왈 카미즈

- i. 여성들의 평상복장
- ii. 윗도리, 바지, 오르나(앞에 덧대어 걸치는 천)로 구성된다
- iii. 방글라데시의 경우 여성이 자신의 몸선을 드러내는 옷을 입거나, 다리를 내놓는 옷을 입지 못한다.



- iv. 외국인들은 어느정도 허용이 되나, 수도 다카에서 조금만 나가면 시골에서는 외국인들도 내국인들과 똑같이 옷을 입는 것이 좋다.

(2) 샤리(전통의상)

- ① 방글라데시 전통의상(여성).
- ② 인도의 샤리와 같다. 풀리라고 하는 타이트하고 짧은 상의를 입고, 긴

천을 허리에 감아맨 다음 어깨에 걸쳐 밑으로 내려 입는다.

- ③ 카미즈가 평상복이지만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샤리를 즐겨 입는다
- ④ 결혼식이나 중요한 날에 화려한 샤리를 입는다

C. 식생활

(1) 툄까리

- ①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먹는 일반 음식
- ② 밥에 2~3가지의 반찬을 덜어서 오른손을 사용해 함께 버무려서 먹는다.
- ③ 염소고기 툄까리를 최고로 생각하고, 집안 형편에 따라 반찬의 종류와 가지수가 다르다.
- ④ 보통 카레를 사용한 툄까리를 먹는다.
- ⑤ 빈민층의 경우 밥만 먹기도 하고 녹두를 갈아 만든 국물과 함께 먹기도 한다.



D. 현지분위기

(1)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 ① 현지인들은 한국을 매우 좋아하고 천국처럼 생각하지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른다
- ② 우리나라가 과거 공산주의를 적대화 했던 것처럼 현지인들은 타종교를 그렇게 인식한다
- ③ 대외적인 종교 탄압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매우 탄압이 심하다
- ④ 예수 영화 상영한 현지인 사역자를 배를 갈라 죽이기도 했다
- ⑤ 여당과 야당 사이에 다툼이 잦아 테러가 빈번히 발생한다.
- ⑥ 2004년 8월 야당 전당대회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나 야당 당수만 살고 당수의 측근과 보디가드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 ⑦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어 사스, 쓰나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 ⑧ 지방에서는 경찰과 지역 마피아, 조폭들간의 마찰이 잦으며 현재는 군인들이 조직 관련자들을 수색, 사살하고 있다.
- ⑨ 방글라데시 한인 선교사님은 40가정 정도
- ⑩ 현지에도 신학교가 있고 현지 사역자들이 있다.
- ⑪ 선교사님 부부는 사역 초기 현지 목회자, 동역자들과 많은 다툼이 있었

지만 현재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

- ⑫ 현지 목회는 한국의 목회 문화와 매우 다르며 특별히 재정문제에서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많다.
- ⑬ 한센 사역시 시골에서 전기, 전화도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편했다.
- ⑭ 좀도둑이 심해 모든 가게마다 경비가 문을 지키고 있다.
- ⑮ 미혼 여성은 머리를 길게 땋고 기혼여성은 머리를 묶고 천을 두른다.

(2) 사회상황

- ① 중국이 처음 외교적으로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인정하여서 비자발급이 쉽고 그래서 중국인이 많다
- ② 다카 시내에 1개의 한인마트(Komart)가 있다.
- ③ 외국인에게 2~10배까지 바가지를 씌우며 아무리 깎아도 외국인은 현지인보다 많이 내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 ④ 이슬람교가 국교라서 국가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술집은 찾기 힘들지만 몰래 들여와 먹는 사람들도 있다
- 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 ⑥ 이슬람교에서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한 벌이 엄청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다.
- ⑦ 식수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정수기 공장의 물을 이용하거나 일본인이 경영하는 물을 사먹는다
- ⑧ 한 남자가 4명의 부인을 가질 수 있다.
- ⑨ 가게에서는 찢어진 돈을 받지 않는다
- ⑩ 현지 선교사들은 신분노출을 하지 않고 다른 직분으로 사역을 담당한다
- ⑪ 종교의 자유는 인정, 개종은 용납하지 못함
- ⑫ 바리다라, 보순도라, 웃도라 등에 대부분의 선교사님 가정이 거주
- ⑬ 2006년 5월에 섬유공장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소요가 일어나서 많은 재방글라데시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음. 섬유사업의 경우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실하게 나뉘는데, 그것을 잘 아는 노동자들이 성수기에 폭동을 일으켜서 공장들의 손해가 매우 컸다. 어떤 기업은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 ⑭ 외국인들은 돈줄이라는 인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도움을 주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 ⑮ 성경 언어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
 1.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 애칭쪽이나 존경쪽이나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음
 2. 주님을 칭하는 고유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방법이라고 결론이 남.

(3) 그 밖의 정보들

- A. 금요일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다. 따라서 주일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실제로 현지교회들은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
 - B.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 신분을 결정한다.
 - C. 평균연령이 47세로 매우 낮다.
 - D. 외국인들 중에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고 해외에 장기매매용으로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골에서는 외국인을 매우 경계한다.
 - E. 공교육을 중요시하려고 하는 추세가 있다.
3. 사립학교는 직접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원서를 낼 수 없다(주변의 국공립학교의 학생으로 위장, 시험을 본다.)
4.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공교육을 강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5. 빈부의 상황에 따라 교육의 출발선 정도가 다르다.
- ⑥ 지방과 수도 다카와의 교육격차가 매우 심하다. 그래서 지방에서 교육받다가 도시로 상경할 경우 보통 두학년 정도는 낮게 학교를 간다.
- ⑦ 호스텔이 매우 많다. 영국 성공회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모토를 가지고 호스텔등의 사역을 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기독교는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종교로 인식되고 있다.



4. 리서치

1) 리서치 주제

방글라데시의 정부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서 만든 정착촌의 상황을 조사하고, 그 마을의 아이들의 교육상황을 알아 본다.

2) 대상, 기간

(1) 반다바리 한센병 환자 정착마을 (06/07/15)

(2) 밧다라홈(06/07/11~16)

3) 조사방법

관찰조사와 인터뷰

4) 조사내용

(1) 반다바리 한센병 환자 정착마을

① 위치

- 지명: 가지뿔 깔리아꼴 보알리아 반다바리
- 다카에서 차량으로 3시간 거리에 위치.



② 마을의 성격

- 다카 시내에 거주하는 한센병 환자들이 정부에 독립된 마을 건립을 요청해서 정부에 의해 조성되었다.

③ 역사

연도	내용
1999년	정부의 건설 계획
2000년 1월 ~7월	정부의 지원으로 공사 시작, 완공
2000년 8월	한센병 환자 가족 입주 시작

④ 입주기준: 정부의 입주 허가를 받은 한센병 환자 가족

⑤ 한센병 환자 현황

한센병 환자는 마을에 총 30명 거주한다. 이는 마을 총 인구의 9.1%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들은 전염의 위험이 없는 한센병 음성(-) 반응자이다.



⑥ 마을 위원회 임원구성: 촌장 1명과 위원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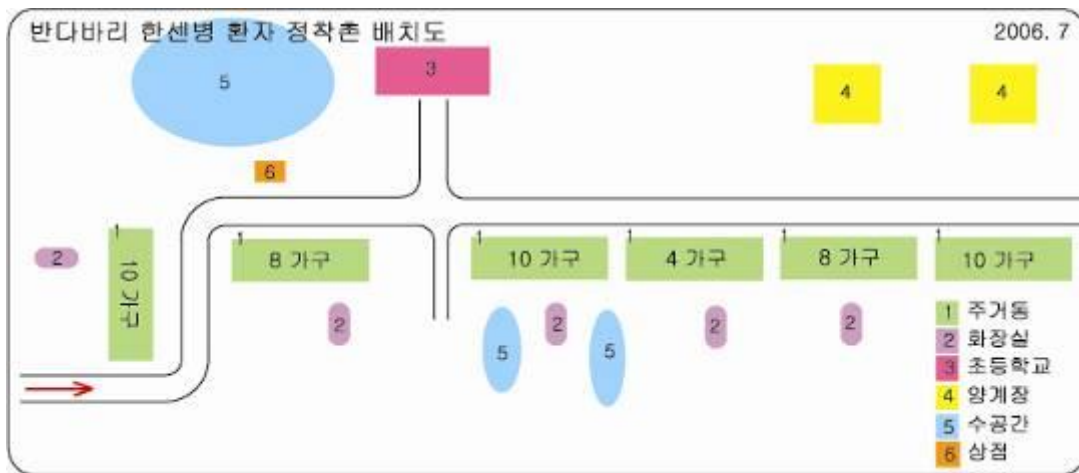
⑦ 임원 임기와 선출 방식

촌장과 임원은 3년의 임기를 가진다. 이들은 마을 구성원(19세 이상)의 투표로 선출되며 투표는 다수대표제(다득표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⑧ 마을크기: 8 Acer(에이커) 1Acer = 1224 평 / 8 Acer = 9792평

⑨ 기반시설

10가구가 살수있는 건물 6동, 마을회관 1동, 양어장 1개, 양계장 2개, 수동펌프 3개, 전화 1대, 흑백 TV 18대, 럭샤(인력거) 4대



⑩ 지원단체

- Leprosy Mission Center(현지 나환자 사역 단체)

마을 건립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 정부의 재정 지원은 중단된 상태이다. 월 1회 Leprosy Mission Center 에서 마을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치료하고 일부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 반다바리 마을의 상황이 알려지면서 해외의 여러 단체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마을을 방문한다고 한다.

⑪ 경제활동

특별한 경제활동이 없기 때문에 구걸로 생계를 유지한다.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과 양어장, 양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운영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또한 정권이 바뀌고부터는 정부의 지원마저 단절되어 현재 100% 구걸로 생계를 지속하고 있다. 구걸은 보통 남자들이 다카시내에 나가서 한다. 한번 다카에 가면 1주일 정도 머물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한다. 일주일에 약 300 다카 정도를 번다.

⑫ 교육상황

마을 내부에 교육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아를 제외한 초, 중, 고등학생들은 마을에서 2 km 떨어진 학교를 왕래하며 교육 받고 있다. 사실상 교육비 문제로 고등 교육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을 설립시에는 학교가 있었고, 학교 수업을 했지만 지금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건물은 현재 마을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에서 파견된 교사가 한 명 있는데, 마을에서 함께 살지 않고 하루에 한번 와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가르친다.



⑬ 종교

마을 인구의 100%가 무슬림이며 마을 내부에 무슬림 사원이 1개 존재하고 있다.

⑭ 특이사항

- 마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마을을 떠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
- 월 1 회 마을 회관에 모여 마을 전체 모임을 가진다.
- Hansen's disease 환자 자녀(정상인)들 중의 일부는 외부인과 결혼하여 마을을 떠나기도 한다.
- Leprosy Mission Center를 제외하고 외부와의 교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나환자 마을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 혹은 일반 단체들이 월 1회 정도 찾아온다.
- 각 가정마다 전기를 통제하는 두꺼비집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전기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전기 제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 마을과 다카 시내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 수단은 없으며 시장은 마을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있다. 대부분의 생필품은 자급자족으로 대체하고 있다.
- 상처가 깊어진 환자들은 휠체어 등 특수 의료기기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각 거주건물마다 공동화장실 1개, 공동우물(펌프식)이 1개 있다.
- 반다바리 마을이 세워졌을 당시에는 정부에서 지원이 있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됨.
-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마을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양계장, 양어

장등 초기의 사업들도 잇달아 실패하면서 현재 마을 주민 100%가 구걸에 의지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 마을생성 초기에 마을에 학교가 있었으나 부모들의 관심부족과 정부의 교사지원 부재로 학교교육은 호지부지 되었고, 지금은 마을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그것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정부의 지원이 끊겼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여러 단체에서 마을을 돕기 위해 펀드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영어를 구사할 줄 아는 몇몇 사람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음.

⑮ 평가 및 제언

- 마을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
- 영어를 할 줄 아는 몇몇 사람들도 힘들다는 이야기 밖에 하지 않아서 객관적인 반다바리의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 선교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2시간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해서 전체적인 마을상황과 아이들 상황정도 밖에 파악하지 못했다.
- 선교사님과 마을사람들이 아닌 제 3자의 시각에서 마을 상황을 인터뷰 하지 못했다.

(2) 밧다라훔(다니엘훔)

① 위치: 다카 시내 밧다라 지역. 밧다라 초등학교에서 5분거리.

② 호스텔의 성격: 반다바리 한센병 환자 정착촌의 자녀들의 학교, 신앙교육

③ 운영동기: 방글라데시에서 한센병 환자 사역을 하시던 김성 선교사님께서 한센병 환자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을 느끼시고 반다바리에 있는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와서 호스텔 형식으로 운영하시기 시작하심(2004년)



경이 매우 열악한 것을 느끼시고 반다바리에 있는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와서 호스텔 형식으로 운영하시기 시작하심(2004년)

④ 운영방침(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기준)

- 한센병 환자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 가족에 한명을 원칙으로 한다(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 될 수 있는 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유치원생 ~ 초등학교 2학년). 나이가 많으면 변화시키기가 어렵고 시골과 다카의 교육차이 때문에 2학년 정도를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⑤ 호스텔원 구성

사진	소개
	리까또 목사님. 방글라데시 현지 목사님이시다. 현재 밋다라홈에서 사모님과 함께 아이들의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 김성선교사님과 협력해서 사역하시던 현지목사님의 소개로 밋다라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시게 되었다. 딸과 아들은 시골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최근 다카로 와서 함께 살고 있다. 아이들을 매우 잘 섬기고 계신다.
	모스토밋. 3학년. 밋다라 홈에 온지 6개월 되었다. 축구와 크리켓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아이. 학교에서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고, 성적도 매우 우수하다(전교2등).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줄하시. 3학년. 밋다라 홈에 온지 1년 6개월 되었다. 축구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모스토밋과 같은 반으로 수업에 열심이다. 성적도 우수하다(전교3등).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사담 후세인. 3학년 밋다라 홈에 온지 1년 6개월 되었다. 착하고 성실해서 리까또 목사님의 일을 잘 돕는다. 나이에 비해 의젓하고 홈 아이들의 형 역할을 한다.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p>아노앗. 6학년. 밋다라흠에 온지 6개월 되었다. 축구를 잘하고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교제도 활발하다. 성적도 우수하다.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p>
	<p>라지솔카. 4학년. 밋다라흠에 온지 1년 6개월 되었다. 학교에서 수업을 성실하게 잘 듣고 선생님들께 질문도 많이 하는 성실한 학생이다. 기술자가 되는 것이 꿈이다.</p>

⑥ 호스텔교육

- 아이들에게 자발적인 공부습관을 길러주기 위하여 하루에 수학문제 10문제, 영어단어 10개를 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꾸준히 그렇게 해온 결과, 아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학교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4명이 전교 5위권 이내, 5명 모두 전교 10위 이내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음)
- 신앙: 아이들은 100% 무슬림이지만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속적인 선교사님의 후원과 리까또목사님의 보살핌으로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중이다.

⑦ 방글라데시에서의 호스텔

- 방글라데시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외부의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 영국 성공회가 방글라데시에 초기 선교를 할 때 호스텔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래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호스텔을 하는 것이 거의 필수이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에는 크리스트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호스텔이 매우 많다(규모적으로는 천주교가 훨씬 많다.)
- 태국의 경우 센터 아이들이 일반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받거나 소외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가난하고, 한센병을 어떤 특별한 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호스텔 아이들이 소외받거나 무시되는 경우는 없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밋다라흠 주변 사람들에게 밋다라흠

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께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다. (밋다라흠 주변 이웃들과 건물주인은 호스텔의 아이들이 한센병 자녀인지 모른다.) 굳이 알려져 득 될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한센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아주 미묘하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반다바리 마을의 여자들은 결혼을 하는데 지참금을 더 많이 요구하기도 하는 등 ‘한센병 환자의 자녀’ 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⑧ 한센병에 대한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인식

- 한센병은 병의 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에 해당하여 증상의 정도나 전염정도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하’에 해당하여 증상도 미미하고, 잘 표시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한센병에 대한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인식은 부정적이지 않다.
- 게다가 방글라데시가 전체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한센병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지대적이지 않다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 방글라데시는 WHO와 한센병 관련 국제기구에서 한센병 관리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센병이 국가적으로 경계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되고 있다.

⑨ 앞으로의 운영계획(비전)

- 앞으로 공간과 재정이 허락된다면 점점 아이들을 늘릴 계획.
- 지금 있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적으로 변화되어서 크리스천 리더로 자라나는 것.

⑩ 평가 및 제언

- 아이들이 영어를 못해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밋다라흠에 대한 느낌 등 여러가지 물어보고자 했던 것들을 묻지 못했다.
- 밋다라흠 주변의 이웃들이 밋다라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인터뷰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웃들과 건물 주인이 호스텔 아이들이 한센병 환자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실을 밝히면서 까지 조사해야 하겠냐는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의 의견을 따라 인터뷰 할 수 없었다.
- 사역의 우선순위 설정을 잘 못해서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 리카또 목사님과 좀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 컴퓨터를 혹시 기증받을 수 있다면 컴퓨터를 가지고 가거나 부품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현재 흠에는 컴퓨터가 1대밖에 없다)
- 간단한 한국음식이나 간식을 만들어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II. 라오스 (비엔티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엡 3:8)”

1. 일정

2006년 7월 8일		10:10	이미연 선교사님께 전화
03:30	방콕센터 도착	10:30	선교사님과 교체
04:00	취침	01:30	점심식사(쌀국수)
08:30	기상	02:15	라오스 한인교회 방문 및 김기주 담임목사님과 대화
08:30	QT	03:05	라오스에 대한 영상 봄
09:30	영어캠프 도우미(사진촬영)	03:30	미션팀과 함께 일정에 대해 회의
09:30	교제	04:35	한동대팀, 박정민 선교사님 김재량 선교사님과 함께 무료교육센터로 이동
11:30	점심식사	05:00	무료교육센터 영어수업보조
13:00	에이백 대학 방문 및 문서 정리	2006년 7월 11일	
17:40	저녁식사	07:10	기상
18:30	버스티켓팅 - 비엔티안행(7월9일 21:00 출발로 예약)	07:10	아침묵상 (히 7:20~28)
22:30	센터도착, 전략회의	08:00	아침식사
23:30	예배	10:00	비엔티안 타투앙 불교사원, 국회의사당, 개선문(빠뚜사이)
24:00	취침	11:30	라오스 현지 교회 방문
2006년 7월 9일(주일)		13:00	점심식사
08:30	말씀묵상 (히 6:9~20)	14:00	식품구입
10:00	Gloria Church에서 예배	14:30	말통
11:40	성찬식	15:25	번역
12:10	점심식사	16:56	L.M.C 어린이들 영어교육 보조
13:00	휴식	19:45	선교사님 집으로 이동
13:20	말씀통독(요9~14)	20:00	저녁식사
14:30	현지 형제 자매들과 교제	21:30	라오스 한인교회에 도착 및 정리
16:15	땅밟기 기도	22:10	말통(요15~21, 행1~3)
18:00	저녁식사	22:50	예배 및 전략회의
19:00	택시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2006년 7월 12일	
20:15	버스정류장에 도착	05:30	새벽기도
21:10	비엔티안행 버스 출발	07:30	아침식사
2006년 7월 10일		08:40	QT (히 8:1~13)
06:30	라오스 농카이 국경에 도착	09:15	라오스 종족조사 책 번역 및 1차 기도편지 작성
06:45	아침묵상(히7: 1-19)	13:00	점심식사
07:30	차량이동(농카이 버스 정류장→박정민 선교사님 택)	14:00	PC방에서 이메일로 기도편지 보냄
07:50	태국 국경에서 비자 받음	16:00	말통(행8~14)
08:20	라오스 비자 받음		
09:00	선교사님 집에 도착 및 OT		
09:40	아침식사		

17:30 저녁식사
18:00 라오스 종족조사 책 번역
19:00 라오스한인교회에서 저녁예배
22:00 박정민, 최수호 선교사님과 만남
22:40 전략회의

2006년 7월 13일

05:30 새벽기도(말통 및 기도회)
07:30 아침식사
08:15 QT
10:15 시엥쿠왕 종족조사 책 번역
13:00 말통(행15~21)
14:00 회의
16:30 L.M.C.영어교육보조
20:00 저녁식사
21:00 전략회의
23:00 미션팀과 전화통화

2006년 7월 14일

05:30 새벽기도(말통 사사기14-18, 기도)
06:20 최수호 선교사님과 함께
종족 리서 출발
09:32 왕명도착(아침식사)
09:57 출발
12:30 Ban San Gnek마을에서 점심식사

16:50 시엥쿠왕 Nice Guest House에
도착
18:30 저녁식사 및 교제
21:30 말통(행22-28)
22:30 전략회의

2006년 7월 15일

08:00 아침식사(바게트 와 차)
09:43 차량이동
(게스트 하우스→몽족 가정교회)
10:30 몽족 가정교회 도착 및 인터뷰
12:00 Ban Ban 마을에서
점심식사(쌀국수)
12:37 출발
12:48 Ban Lao 마을 도착
15:05 몽족 정탐 (Hmong Njua)
16:37 푸안족 정탐
16:41 Mankai 마을
17:09 Phoncaban 마을
17:18 카무족 기독교인 집에 도착
18:19 인터뷰 종료 가이드와 헤어짐
18:30 숙소에 도착
20:00 저녁식사(볶음밥)=4만 Kip
21:18 예배 및 말통(로마서 1-5)

10:20 전략회의

2006년 7월 16일

07:30 기상
08:00 최수호 선교사님과 아침식사
09:00 몽족 교회에서 주일예배
12:15 몽족 마을 정탐
12:57 Ban Mec 몽족 마을 도착
01:15 출발
02:00 폰사반 시장에서 점심식사
02:30 폰사반 시장 둘러봄
03:10 썬티팟 절 방문
03:50 게스트 하우스에 도착
07:30 저녁식사
08:35 말통 (로마서7~13) 및 예배
09:50 전략회의
00:00 취침

2006년 7월 17일

07:30 아침 묵상 (히 11:1~6)
08:00 아침식사
08:15 폰사반 예전 비행장 방문
08:40 폰사반 교회 끼찬과 만남
09:05 Xienkwang's Tourism Office
시엥쿠왕 지도 구입
09:14 캠코더 테이프를 받음
09:42 중국시장
12:26 Plain of Jars방문
01:30 점심식사(쌀국수)
02:00 말통(롬13-고전4)
07:00 저녁식사(볶음밥)
09:27 전략회의
10:30 나눔 및 예배

2006년 7월 18일

07:40 아침묵상 (히11:17-22)
08:00 아침식사
08:42 차량이동(시엥쿠왕→비안티안)
02:30 점심식사(쌀국수)
02:50 다시 출발
06:30 라오스 한인교회 도착
07:00 저녁식사(비빔밥)
08:00 예배
09:30 전략회의
10:20 취침

2006년 7월 19일

05:30 새벽기도(기도 및 아침묵상
사무엘상10-13)
06:30 문서정리

08:00 아침식사
09:00 시나리오 작성
10:00 2차 기도편지 작성
13:00 점심식사
14:30 이동(한인교회 교육관→피시방)
14:45 기도편지 보냄
17:40 저녁식사(김치찌개)
18:00 시나리오 수정
19:00 저녁예배
20:15 말씀통독(고전5-10)
21:00 전략회의
21:30 취침

2006년 7월 20일

05:30 새벽기도(말통 및 기도)
07:30 아침식사
08:00 시나리오 수정
12:30 점심식사(짜장면)
02:10 말통(고전11-고후6)
03:30 피시방 - 자료찾기
05:45 저녁식사
10:50 취침

2006년 7월 21일

05:30 새벽기도
(QT 사무엘상16-18 & 기도회)
07:30 아침식사
09:30 시골교회 교인들에게 줄 옷 정리
10:33 차량이동
(비엔티안·방비앙→폰삭교회)
10:36 환전 및 간식 구입
12:30: 점심식사(kaopi, 쌀국수)
12:58 다시 출발
13:41 방비앙 도착
14:03 왕낭 도착
14:36 폰삭교회 도착 및 교제
15:18 이동(방비앙→비엔티안)
19:20 비엔티안 박선교사님 댁에 도착
20:00 저녁식사(한인교회에서)
10:20 말씀통독(고후7-13)
10:50 전략회의
11:50 취침

2006년 7월 22일

05:30 새벽기도
08:40 아침식사
09:00 자료정리
12:30 점심식사
12:30 말통
14:30 박정민 선교사님과 교육부에
기증할 컴퓨터 점검
16:20 문서정리 및 라오스 법률정리
18:45 저녁식사
19:30 마트에서 물건구입
(김기주 선교사님과 함께)
20:30 한인교회에 도착
22:10 전략회의

2006년 7월 23일

05:30 아침묵상 (삼상23-28)
07:40 아침식사
08:30 문서정리
11:00 주일예배
12:30 점심식사(비빔밥)
14:00 문서정리
18:00 저녁식사
19:30 박정민 선교사님과 교제
22:20 남은 재정에 관한 회의
23:45 전략회의

2006년 7월 24일

05:30 새벽기도
09:30 무료교육센터 청소
12:00 점심식사(쌀국수)
13:00 무료교육센터 청소
15:00 한인교회 도착 및 최종 짐 정리
16:30 차량이동(박정민 선교사님 댁→
라오스 국경)
17:10 라오스 국경도착
(Departure Card 작성)
17:15 라오스 국경에서 미션팀과 만남
17:40 태국 국경도착(Arrival Card 작성)
17:47 농카이 열차에 탑승
18:10 태국 농카이(Nongkhai)열차 출발
18:25 저녁식사 주문 및 열차 티켓 확인
19:00 저녁식사
19:40 교제

2. 지역 개관

1) 일반 개관

(1) 국명

싸탈라나랏 빠싸티빠타이 빠싸쑤 라오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대통령: 캄파이 시판딘

수상: 분양 위라짚

종교회의 의장(국장): 씨씨왈 깨우분완
(전 수상)

(2) 위치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4면에 육지로 갇혀 있는 나라. 북쪽으로는 중국과 미얀마, 서쪽에는 태국, 동쪽으로는 베트남, 그리고 남쪽에는 캄보디아로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가



(3) 지리

라오스는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악지대이며 전체적으로 험한 산지와 고원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를 메콩강과 그 지류가 흐른다. 이들 산의 평균 높이가 1,200M나 되는 큰 산들로 남북으로 펼쳐져 있다. 중국 티베트에서부터 라오스를 따라 줄곧 흐르는 메콩강 주변은 아주 비옥한 땅으로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또한 풍부한 야생식물과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훌륭한 삶의 터전으로 지역 주민들과 라오정부에게 큰 기대를 가지게 한다. 이 메콩강의 혜택이야말로 라오스의 가장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4) 면적: 236,800평방 Km (남한의 약 세배 정도)

(5) 인구: 6068117명 (2004.7)남한의 약 1/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오스는 국토 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프랑스 식민지 때 독립을 위하여 많은 희생이 있었으며, 또한 민족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유혈의 충돌이 많았다. 그 외에도 베트남 전쟁 시 미국의 라오스 폭탄 투하가 무려 400만 톤에 이른다고 할 때, 그 희생의 크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라오스에 공산주의가 들어선 1975년을 전후하여 수 많은 사람이 자유를 찾아 서방 및 태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라오인은 164,654명이고, 인구성장률은 2.5%이다. 15세 이하의 어린이 비율이 전체 42.7%로 1,718,000이나 되고,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전체 3%인 121,000명에 불과하다. 인구밀도는 Km2당 44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인구 53만명, 행정구역: 8개 구)

(7) 정체: 공화제

(8) 이념: 평화, 독립, 민주, 통일, 번영

(9) 평균 가족 수: 6명 정도

(10) 공용어: 라오어 Lao (official)

(11) 통화: 킵(KIP)

(12) 환율: 1달러 = 10,800KIPs

(13) 1인당 국민총생산: 310달러(2003)

(14) 주요도시

제1도시: 위양짚(수도), 비엔티안시도 인구 82만여명

제2도시: 루왕파방, 루왕파방시도 인구 37만명 (수도에서 북쪽으로 450km)

제3도시: 싸와나켓, 싸와나켓시도 인구 70만여명 (수도에서 남쪽으로 500km)

제4도시: 팍세, 팍빠삭시도 인구 51만여명, 아따쁘시도 인구 9만여명 (남쪽 750km)

(15) 민족

라오 정부는 전체 종족을 68개 그룹으로 밝히고 있으나 다른 정보 기구들은 전체 117개의 다른 언어 집단이 있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라오스 정부는 인구조사 때 베트남인이나 중국인들 그리고 깊은 산 속에 사는 종족은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기관인 The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는 라오스에 전체 종족은 93 그룹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모든 종족들은 다음 3가지 큰 종족에 다 포함된다. 라오팅, 라오쑹, 라오룸족이다.

- 1) **라오쑹(Lao Soung)**: 라오쑹족(Upper Land Lao)은 메오(Meo), 미얀(Mien)족이 포함된다. 이들은 약 1,5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서 살면서 우거진 숲을 불태워 화전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데, 찻해는 불탄 재로 인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으나 그 다음해부터는 거름 부족으로 적은 양을 수확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들은 매 3년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가옥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와 들풀을 엮어 간소하게 만들어 거주한다. 라오 쑹족의 마을은 가계의 확장된 형태이다. 마을 안에 많은 씨족이 있고, 씨족 안에 지도자가 있다. 그리고 추장은 모든 씨족을 통치할 수 있다. 라오 쑹족은 애니미즘을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샤먼과 마술사들이 마을의 모든 질병자들을 진찰하고 관리하며 더 나아가 마을의 행사나 마을을 옮기는 등의 결정도 전적으로 이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진다. 라오 쑹족 가운데는 소수의 불교인과 기독교인들도 있다. 특히 CMA(The Christian and Alliance) 단체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 개종자가 일어났다.
- 2) **라오팅(Lao Tung)**: 라오팅(Middle Land Lao)족은 흔히 몬(Mon), 크무(Khmer) 또는 Mon-Khmer라고도 불리어진다. 라오스에 최초의 정착민인 이 종족은 흔히 산중턱에 거주하며 라오스 북쪽에서 남쪽에 걸쳐 폭넓게 정착하고 있다. 몽족과 비슷한 라오팅 족은 산의 비옥한 지역에 주로 거주하며 수목을 베어 내거나 태워서 농사를 짓는다. 타이족에 의해서 라오팅 족은 Kha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름의 뜻은 ‘종’을 의미한다. 실제로 옛 라오 왕정 정치시대에 이 종족은 왕족의 종이였다. 라오팅은 크게 3개의 부족으로 Phu Noi, So 그리고 Sek 으로 약 100,000명으로 추산된다. 지금은 문화나 언어 그리고 의복 등 많은 면에서 라오룸 족과 거의 동화되어 가고 있다. 라오팅 족 안에서 다시 25-30부족으로 세분된다. 이들은 주로 북쪽에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남쪽에는 Bolovan 고지를 따라 소수가 있다. 그리고 약 300,000의 크무족이 Lao Tung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들의 많은 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
- 3) **라오룸(Lao Loum)**: 라오룸 족(Low Land Lao)은 가장 비옥한 메콩강 주변을 따라 거주하고 있다. 13세기 이래 라오스의 지배 종족인 라오룸 족은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한다. 이들이 라오 정부의 주요 요직뿐만 아니라 정당의 대다수를 차지함으로 전체를 통괄하고 있고, 언어는 라오타이어이며, 주식은 찰쌀이다. 찰쌀을 손으로 먹으며 때로는 젓가락과 스푼도 사용한다. 매운 것을 즐겨 먹고 닭고기나 물고기를 많이 먹는다. 대개 주부들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편인데 흔히 노점상이나, 야채판매

또는 사무실이나 공무원으로도 일을 한다. 남성은 흔히 특별한 기술직, 무역직, 용접, 조각, 목공, 석공,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한다.

라오스 어린이들은 아주 순박하고 얌전하다. 그들 가운데 요란스럽고 법석대고 소란스런 면은 별로 없다.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다투거나 싸우는 일은 거의 없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가 무엇을 하자고 하면 따라 하고, 또 다른 아이가 다른 것을 하자고 하면 따라 하는 아주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순박한 아이들이지만 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관리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며 자라야 한다. 여자아이들은 집안 일을 도맡아 하고 동생들을 돌보며, 돈을 벌기 위해 거리나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도 한다. 남자아이들은 보다 힘든 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를 따라 산이나 들에 나가 농사일을 도우며 배우게 된다

(16) 종교

라오스 국민의 대부분이 테라 바다불교(소승불교)를 믿고 나머지는 샤머니즘을 신봉한다. 산악지대 주민들 가운데, 특히 중국 남부에서 이주해온 주민들 중에는 불교와 애니미즘·유교를 동시에 신봉하는 사람이 많다. 1975년 공산정권 수립 때까지 전국에 가톨릭·프로테스탄트의 선교사들이 있었으나, 현재 그리스도교도는 총인구의 2~3%에 불과하다. 도시와 북동부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은 불교와 유교가 혼합된 특수한 종교를 믿고 있다.

헌법에는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가르침이나 전파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 전제이다. 따라서 개인으로 무슨 종교를 가질 수 있으나 모여서 교리를 가르치거나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집회가 가능한 곳은 정부가 허락한 일정한 장소 또는 교회에 국한한다.

불 교	1,480,070	1,513,445	2,993,515	65.4 %
애니미스트	748,517	766,688	1,515,205	33.1 %
기 독 교	29,317	30,740	60,057	1.3 %
모 슬 램	578	555	1,133	0.0 %
기 타	2,362	2,293	4,655	0.1 %
미 집 계	142	141	283	0.0 %
총 계	2,260,986	2,313,862	4,574,848	100 %

2) 정치

(1) 정치구조

① 공화국 (대통령: Khamtay Siphandone)

1975년 라오스 인민혁명당이 유일하게 창설된 이래 그 집권 하에 있으며, 당의장 카이손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가 유지되어왔다. 1989년 총선거 후 최고인민의회는 1991년 8월의 신 헌법 제정을 포함한 법 체계의 정비에 전념하였고 1992년 11월 카이손이 사망하자 당의장 캄타이 시판돈(Khamtay Siphandone), 전대통령 누חק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체제로 바뀌었다. 신 헌법에 근거하여 1997년 12월에 제2회 국민의회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1998년 2월 캄타이 시판돈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② 신 헌법에 따르면 라오스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자 최고인민평의회 의장이

다. 의회는 단원제로 임기 5년의 의원 99명으로 구성되고, 라오스 인민혁명당의 서기장이 총리직을 맡는다. 라오스 인민혁명당은 정치국에 의해 통솔되는 중앙위원회에 의해 조직·운영된다.

- ③ 각 지방행정 단위에는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인민혁명위원회가 있다. 옛 우파의 왕국 군대는 왕제 폐지와 더불어 해체되고, 파테트라오군(軍)을 모체로 하는 인민해방군이 구성되었다. 행정부의 주요 장관 등이 현역계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병역은 형식상 지원제이나 사실상 징병제이며, 복무연령은 17~26세이고 기간은 18개월이다. 병력은 5만 5150명이며, 정규군·지방군·민병·게릴라 부대로 구성된 지상병력이 주 병력이고 5개 사단으로 구성되었다. 외교는 비동맹을 원칙으로 하며, 베트남과 유대가 밀접하고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한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긴밀해지고 있다.

(2) 행정

- ① 16개주(Province), 1개 특별구(사이쑤분), 1개 특별시(비엔티안)
- ② 주요도시: Vientiane(수도), Savannakhet, Pakse, Luang Prabang (유네스코 인 류문화유산 지정도시) 등
- ③ 전국은 17개의 도와 특별보호구역 1곳을 포함해 18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도의 이름은 풍싸리, 우돔싸이, 루앙프라방, 싸이나부리, 씨앙꽁, 위양짚, 싸완나켓, 싸라완, 쎄경, 아따쁘, 버께오, 보리캅사이, 째빠삭, 후와판, 캅무안, 루앙남타, 위양짚시, 특별구로 싸이쑤분이 있다. 각 도에는 도지사가 있으며 도마다 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치안

- ① 아편 생산량은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편은 상 라오스의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라오족이 산출하는 주요한 환금작물이지만 정확한 산출량은 알 수 없으며 대부분 태국으로 밀매되고 있다. 1990년부터 불법 약물의 생산과 취득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도 이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권 교체 후 15년 이상이 경과되어 치안은 안정되어 있지만 외국인 주택을 노려 금품을 훔치는 도둑이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3) 경제

(1) 개요

- ① 1986년 신경제제도(NEM: New Economic Mechanism)도입
 - 경제개방 및 시장경제 원리도입
 -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영기업은 90년대 초 800개에서 2000년 29개로 축소)
 - 은행제도 및 세제개혁
 - 외국인 투자 유치법 제정(1988 제정, 1994 개정)
 - 외국무역 및 국내 유통의 자유
- ② 라오스 경제에서 농업부문은 국내 총생산의 약 50%, 취업인구의 80%를 차지하므로, 라오스 경제 전체가 기후변동에 큰 영향을 입고 있다. 또한 라오스 경제는 외국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바, 최근 세계 주요국가 및 국제금융기구의 대 라오스 유, 무상 규모는 연간 약 3억불로서 이는 라오스 연간 GDP의 약 20%에 해당하며, 동 금액에서 무상원조는 1.6억불, 유상원조는 1.4억불 정도를 각각 차지한다.
- ③ 88년부터 97년까지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비농업 부문의 활성화에 따라 연평균 6.5% 경제 성장을 지속하였다.
 - 이 기간 중 정부의 경제개혁 프로그램 및 IMF와 세계은행에 의한 구조조정 용자가 성과를 거두어, 인플레이율의 저하, 재정적자의 축소 등 비교적 순조로운 거시경제 운영이 이루어졌다.
 - 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으로 시작된 아시아 경제위기가 폐쇄적인 라오

스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은 주지 않았으나, 그 여파는 외국인 직접 투자와 수출감소 등의 형태로 서서히 나타나서, 98년 중 라오스 '킵'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서 50%, 태국 바트화에 대해서는 60% 하락하였으며, 소비자 물가도 142% 상승하는 등 위기적 상황을 맞게 되었다.

- 이는 아시아 경제위기라는 외적 용인뿐만 아니라 국고의 외화준비 부족, 수입의존 과다 등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 라오스 경제는 98-99년을 고비로 2002년에는 GDP가 5.7%에 달하는 등 점차 안정세를 시현중인 바, 라오스 경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태국 경제가 현재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라오스 총 GDP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부문에 있어 작황이 좋을 경우, 2004년부터는 라오스 경제는 97년 이전의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

① 경제정책

- 2020년까지 세계 최빈국 지위탈피
- 도시와 농촌간 조화로운 발전
- 농업, 임업, 공업,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 서방세계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서방 자본유치 및 원조확대
- 외국인 투자의 적극 유치, 국내 산업개발 촉진

② 8대 우선사업

- 인적자본 육성, 농촌개발, 식량증산, 상품생산, 화전농업 금지
- 대외경제관계 강화, 사회간접자본 정비, 서비스 부문의 확대 등

③ 2001-2010년간 경제개발 계획

- 인플레이 1자리 수 내로 유지 및 환율안정
- 2005년 정부 재정수입이 GDP의 18%에 달하도록 노력 및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5%대로 유지
- 2005년 까지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현재 GDP의 12%에서 10%대로 축소 및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GDP의 6%대로 유지
- 2010년까지 연간 수출 및 수입 각각 10% 및 8%대로 증가
- 외국인 투자는 2001-2010간 15-2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
- 2005년 까지 공공 저축 율을 현재 GDP의 3-4%에서 12%로 증가 추진 및 국내자본 이용 투자가 GDP의 10%에 달하도록 노력

GDP 구성비율 및 분야별 생산증가율

(단위: %)

분야	평균성장률	GDP 구성비율		
		2000년	2005년	2010년
농임업	4/5	51.3	47.0	36.6
공업 수공업	10/11	22.6	26.0	31.5
서비스	8/9	26.1	27.0	31.9

주요통계(1990, 2000 및 2010)

구 분	1990	2000	2010 (전망)
인구 증가율(%)	2.6	2.4	2.2
유아 사망률(천명당)	125	82	30
5세이하 사망률(천명당)	170	106	50

산모 사망률 (만명당)	656	530	200
위생식수 보급률(%)	39	56	70
위생 화장실 보급률(%)	32	38	65
산업 인력의 취업률(%)	60	70	80
빈곤계층 인구 감소율(%)	46	39	10

(3) 산업

① 1차 산업

- 농업
 - 라오스 경제의 근간, GDP의 50% 및 취업인구의 80% 차지
 - 쌀 농사가 농업의 80%를 차지, 총 재배면적: 717,577 헥타
 - 2000년 총 215만톤의 쌀 생산, 식량 자급자족 달성
 - 최근 들어 커피, 사탕수수 및 연초 등 상업작물의 생산증가, 특히 커피의 경우 95년 9천톤에서 99년 1만8천톤으로 생산증가
- 임업
 - GDP의 7.5% 차지, 전 국토 면적의 47%가 산림 (11백만 헥타)
 - 2000년의 경우 의류 다음으로 라오스 제2위의 수출품 (9천만불)
- 천연자원
 - 라오스는 칼륨, 철, 금, 귀금속, 주석, 석탄 및 천연가스 등 자원 풍부
 - 다만, 천연자원 개발을 위한 철도 및 도로 등 하부구조 미비

② 2차 산업

- 2000년 공업·수공업 분야는 GDP의 22% 차지
 - 제조업 75%, 건설 16%, 공업 및 전력 8%
- 제조업
 - 소규모의 가공·조립 공장으로 구성, 중공업은 전무
 - 최근 의류 생산 급증, 라오스 최대의 수출품(2000년 9천만불, 라오스 섬유제품은 EU의 GSP 품목에 해당되어, 대 EU 수출시 물량제한 및 관세 없음)
 - 이외 정미, 맥주 및 음료수 등 분야의 생산증가
 - 제조업 부진은 도로, 통신 등 하부구조 미비에 따른 높은 물류비용, 복잡한 세관절차,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등에 기인
- 건설업
 - GDP의 3.5% 차지
 - 아시아 경제위기 여파로 수년간 주춤, 최근 들어 건설업 경기 활발
 - 건설업계는 베트남계 업체가 주도, 전체 물량의 70-80% 담당

③ 서비스

- 2000년 라오스 GDP의 26% 차지
- 관광
 - 2000년 73만명 방문, 관광수입 1억1천만불
 - 규제완화 및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관광분야 지속증가 추세
- 정보통신
 - 전화 보급률은 132명당 1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 시급
 - 최근 휴대전화 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
 - 국제전화의 경우 라오스, 태국회사간 합작 투자
 - 라오스 정부는 모든 정부기관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Pan-Laos' 시스템 도입 추진
- 기타 항공, 우편 등 분야도 지속 증가 추세

④ 사회 하부구조

- 도로
 - 2000년 현재 총 도로길이 2만4천km (포장도로, 자갈길, 흙길이 각각 3.9km, 6.9km, 13.2km 차지)
 - 라오스 정부는 교통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질 참여 기업 물색에는 어려움 산재
- 전력
 - 최근 전력분야에 대한 외국투자 급증
 - 2000년 현재 라오스의 총 전력 생산량은 627MW
 - 개발 잠재력이 많으며, 메콩강의 경우 최대 2만MW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 생산 전력의 90%를 태국에 수출, 태국의 경기변동에 절대적 의존
 - * 태국과 라오스는 2008년까지 3천MW의 전력을 태국에 수출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

(4) 재정, 금융

① 재정

- 만성적인 정부 재정적자, 외국원조로 재정적자 보전
 - 2000년의 경우 재정수입 및 지출이 GDP의 10%(1.4억불) 및 19%(2.7억불) 각각 차지
 - 재정수입이 적은 것은 조세제도 개혁의 지연 및 세정의 취약
 - 정부는 재정지출 감축을 위해 경상지출, 특히 인건비 억제 및 신규사업 연기 조치 시행 중
- 관리능력 취약, 거시경제 불안정의 원인
- 만성적인 세수부족
 - 납세자와의 협의에 기초한 과세
 - 중앙, 지방간의 조세수입 배분의 비효율성
 - 과대 평가된 환율적용에 따른 관세수입 손실

② 금융

- 변동 환율제 채택, 외국환 거래 자유화
- 현재 라오스 금융분야는 중앙은행(국고은행), 국립상업은행 3개, 민간은행 10(대부분 외국계), 보험회사 1개 등으로 구성
- 라오스 은행은 대출 및 예금업무만 담당
 - 은행분야의 저축에 대한 유인이 적고, 대출의 경우도 단기 기업운영 자금에 한정
 - 라오스 지속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분야 구조조정 필요
- 외국계 은행은 영업상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
 - 수도 비엔티안 내에서만 영업 가능
 - 규모가 작은 라오스계 은행과의 제휴 곤란

(5) 무역

- ① 연간 10억불 규모, 만성적인 무역적자 시현
 - 2002년 수출 320백만불, 수입 535백만불
- ② 라오스의 수출은 소폭의 성장 및 하락세 시현, 수입은 96-98년간 대폭 하락 및 99년 이후 소폭 상승세
 - 라오스의 전통 수출품은 농업상품, 목재 및 가공품, 가축, 전기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의류 및 커피가 주요 수출상품으로 등장
 - 라오스의 주요 수입품은 건설, 전력장비, 의류수입, 금 및 은, 오토바이 부품 등
- ③ 94-99년간 연간 평균 무역적자 규모는 280백만불
 - 2000년 이후 무역적자 규모가 200백만불 대로 축소
- ④ 수출장애 요인

- 부가가치가 적은 농업 생산품 위주의 수출
 - 국경 밀무역 성행 및 이에 따른 세금 손실
 - 낮은 질의 라오스 상품의 경쟁력 부족
 - 법률체제 미 정비에 따른 비효과적 법 집행
- ⑤ 주요교역 상대국은 태국 및 베트남(2001년 현재)
- 태 국: 수입 287백만불(점유율 54.3%), 수출 76백만불(점유율 23.3%)
 - 베트남: 수입 20만불(점유율 3.8%), 수출 154백만불(점유율 47.3%)

(6) 외국인 투자

- ①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라오스 시장경제 체제로의 이행 및 90년대 중반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 ② 1998-2000년간 37개국 750개 사업(총 70억불) 승인
- 실제 집행된 FDI는 20억불 정도
 - 아시아 경제위기 여파로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
 - 2002년 493백만불 승인(84개 프로젝트)
- ③ 1998년 외국인 투자 법 제정(1994년 개정)에 따라, 투자대상 제한 철폐, 과실 송금 자유, 세금혜택 등 규정상으로는 투자여건 양호
- 실제로는 시행령 미비, 자의적 법 적용 등의 문제 상존
- ④ 국가별 투자승인 내역 (1998-2000년) (단위: 백만불)

순위	국가 명	건수	투자 승인액
1	태국	259	2,932
2	미국	45	1,490
3	한국	36	634
4	말레이시아	22	287
5	대만	38	74
6	중국	81	72
7	호주	47	43
8	뉴질랜드	4	42
9	프랑스	93	40
10	영국	19	28
기타	27개국	-	1,452
합계			7,094

(7) 외국의 라오스 원조현황

- ① 최근 세계주요 국가의 대 라오스 유.무상 원조규모는 연간 약 3억불
- 무상원조는 1.6억불, 유상원조는 1.4억불
 - 2002년 세계주요국가 및 국제기구의 ODA 총액 3.8억불(무상 240백만불, 유상 140백만불)
- ② 라오스 경제는 외국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
- 라오스 정부의 재정수입 및 지출의 경우 각각 GDP의 10% 및 19%에 해당
 - 반면, 외국의 연간 대 라오스 원조 규모는 라오스 연간 GDP의 20%-25%에 해당
- ③ 일본, 프랑스, 스웨덴, 독일 및 영국 등 6대 주요원조 공여국의 대 라오스 원조액은 연간 약 1억4천만 불 규모(100% 무상원조)
- 이들 6개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연간 대 라오스 무상원조 총액 1억6천만 불의 약 88%를 담당
- ④ 연간 대 라오스 유상원조 1억4천만불의 약 90%는 ADB, WB, IMF 등 국제기구가 담당

4) 교육

라오스의 의무교육은 6살부터 10살까지로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된다. 그러나 많은 수의 아이들이 가난과 가사의 일로 이 교육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통합되어 있고 전체 6년제이다. 이 과정까지 마치는 수는 전체의 60%정도이다. 라오스는 출판 분야가 아주 열악한 상태이다. 주요 서점이나 도서관은 개인 서재보다도 작아 보인다. 학생들의 가방은 텅 비어 있다. 중,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교재는 거의 없고, 교사가 불러주거나 칠판에 쓴 것을 받아 적는 것이 이들의 주 교재가 된다. 종합대학은 유일하게 수도 위앙짠에 한 개가 있다. 8개의 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나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다. 그 외에 전문 기술학교 43개가 더 있다. 라오정부는 교육비로 전체예산에 6.6%를 사용하고 있고, 문자해독률은 45%이다.

5) 사회문화

- (1) 라오스는 많은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그들 국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특히 남부에서는 캄보디아, 북부에서는 미얀마·타이의 영향을 받아 불교사찰의 건축양식 등에 남아 있다. 또 소승불교는 14세기에 캄보디아에서 전래되었는데, 불교는 오늘날의 라오스인의 생활을 강력히 지배하고 있다. 연중 많은 종교의식이나 제사가 있어서, 그 때마다 사람들은 마을의 사찰 경내에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전통적인 윤무(輪舞)를 춘다.

음악은 악보 없이 기억에 의해 연주되며, 음악은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라오스의 여러 악기 중 대나무 관악기인 켄은 널리 알려져 있다. 무용은 오락의 형태라기보다 직업이 되고 있어 직업적인 무용단은 종교의식이나 경축행사 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한다. 이 직업적인 무용가들은 모두 남자들이고 여자 역(役)은 젊은 남자나 어린 소년들이 분장을 해서 담당한다. 무용의 주요 주제는 인도의 서사시에서 따온 것들이다. 라오스의 문학 역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여 불교 전설에 관한 것을 많이 다루고, 대중적인 시나 노래는 풍자적이다. 직조, 바구니 짜기, 나무와 상아조각, 금·은세공 같은 다양한 민속예술이 있다.

라오스에는 몇 개 신문이 있는데 집권당의 기관지인 《시앙 파사송(민중의 소리)》이 1만 8000부로 가장 많이 발행된다. 국립 라디오방송국은 라오어 외에 프랑스어·영어·캄보디아어·타이어·베트남어 방송도 한다. TV 방송국은 주로 뉴스, 다큐멘터리 등을 다루며 오후 7시부터 3시간만 방영한다. 방송국은 정부가 감독·운영한다.

- (2) 가정 의례

라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약 일주일 동안 아기의 출생에 대하여 아기와 엄마를 축하하는 행사를 가진다. 이 기간 동안 매일 친척과 친구와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먹고 노래하며 즐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제는 초상날이다. 이들에게 죽음은 기쁜 일이다. 사람이 죽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다. 그래서 초상집을 "좋은 집"이라고 명하기도 한다. 이들이 이렇게 초상집이 좋은 집이 된 것은 부처의 가르침 때문이다. 불교에서 죽음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는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라오인에게 제삿날도 특이하다. 이들은 일년에 한날을 잡아 모든 죽은 조상을 위하여 한날에 제사를 다 지낸다.

- (3) 결혼

라오스의 결혼은 우리와 다른 것이 많이 있다. 결혼 연령도 다양하며 시골이나 산에 사는 사람들은 13-15살이면 결혼을 하는데 부모들은 가사의 일손을 위해 조기 결혼 시킨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보통 20살 이상이 넘어야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할 때 청첩장을 보내는데, 우리 나라와 같이 아는 사람 모두에게 보낸다. 이때 축의금도 당연히 가지고 참석해야 한다. 축의금은 반드시 청첩장을 받은 그 봉투에 다시 넣어서 해야 함으로 우리 나라와 같이 봉투가 없어서 곤란함을 겪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혼식은 보통 2부로 나뉘어져 행해진다. 1부는 오전에 하고 2부는 보통 저녁에 한다. 오전에는 주로 가족들과 함께 맛캔이라고 하는 행사를 한다. 이 때는 음식과 각종 꽃장

식을 마련하고서 무당 같은 사람을 초청하여 곳 같은 행사를 함으로 결혼을 먼저 신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행사 진행은 무당이 모두 집전한다. 그는 주문을 외워 신을 부르고 신에게 부부의 결혼을 축복해준다. 그리고 손에 실을 매어줌으로 신의 기운과 보고가 행상 있기를 기원한다.(푸켓)

2부 저녁 행사는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여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즐기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는데 신랑 신부는 행사가 마쳐질 때까지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며 노래와 춤을 추어야 한다. 이런 행사로 말미암아 라오스에서 신혼여행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이날 신랑 신부는 손님 시중애 녹초가 되고 만다.

흔히 신혼방은 신부집에 마련이 되어 있다. 라오스는 한국과 달리 결혼을 하면 여자가 신랑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집을 떠나 진부의 집으로 들어가 신부의 가족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도는 결혼으로 생기는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인 고부간의 갈등을 확실하게 해결하는 제도로 평가를 받는다.

(4) 보건위생

라오스의 보건위생은 아주 열악한 상태이다. 심지어 대도시에도 병원시설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가 않다. 의료기구는 기초품목조차 부족하여 사용하던 것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위양짠 수도에는 큰 병원이 4개 있으며 이 모두는 국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 외에 개인이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병원들도 있다. 이 나라에 가장 많은 병은 모기로부터 전염되는 말라리아, 뎅기가 있고, 감기, 폐렴, 이질(설사병) 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영양실조 상태가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6) 역사

라오스는 오랫동안 타이-카다이(Thai-Kadai) 계통의 산(Shans), 시암(Siamese), 라오족을 비롯하여 많은 작은 부족들이 이주해와 살던 곳이며, 몽미엔(Hmong-Mien) 산간부족들이 화전을 하면서 살았던 곳이다(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첫 번째 라오스 연합체 인 머앙(meuang)은 몽고 황제 쿠빌라이칸이 남서 중국을 침입한 직후인 13세기에 통일을 이루었다. 14세기 중반 크메르 왕국의 원조를 받은 라오스 장군인 파응움(Fa Ngum)이 루앙쁘라방(Luang Prabang) 주변의 머앙들의 커다란 연합체를 기반으로 하여 그의 왕국 란상을 세웠다. 왕국은 14~15세기에 비록 번영을 구가했지만, 주변 국가들의 위협과 내부 분란으로 큰 곤란을 겪었다. 결국 17세기 란상은 서로 적대하는 세 개의 왕국으로 쪼개졌는데 각 왕국의 중심지는 루앙쁘라방, 위앵찬(Wiang Chan; 비엔티안), 참빠삭(Champasak)이었다. 18세기 말 대부분의 라오스 지역은 태국의 속국이 되었지만 베트남에서 조공을 바치라는 압력도 있었다. 두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것도 불가능했고, 원하지도 않았던 라오스는 1820년대 시암 왕국(현 태국)과 전쟁을 치렀다. 도전은 불발로 끝났고 그 결과 세 개 왕국 모두가 태국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세기 중에 프랑스는 베트남 왕국이었던 톤킹(Tonkin)과 안남에 프렌치 인도차이나를 건설했다. 1893년 프랑스와 시암은, 라오스를 프랑스의 보호 아래 두는 일련의 조약을 체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인도차이나를 점령했고, 라오스의 레지스탕스 그룹인 라오이사라(Lao Issara)가 전쟁이 끝난 다음 라오스가 프랑스에 다시 복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1953년 협정을 통해 라오스는 완전한 독립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왕권주의자, 중도파, 공산주의자 간에 투쟁은 지속되었다. 미군이 1964년 동부 라오스에 있는 호찌민 루트에 대해 폭격을 시작하면서 왕권파인 비엔티안 정부와 공산주의자 사이에 투쟁은 가속화 되었다. 비록 라오스에서의 지상 전투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보다 훨씬 덜 치열했지만, 동부 라오스에 대한 폭격은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결과적으로 1973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동부 지방의 대부분의 주민들을 퇴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라오스는 세계 전사상 가장 많은 폭탄이 퍼 부어진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인구 1인당 쏟아진 폭탄을 기준으로 하면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세계에서 퍼부은 폭탄보다 더 많은 양의 폭탄

을 1964~1973년 사이에 라오스에 사용했다). 연정이 세워졌지만 1975년 4월 사이공이 함락하자 정치적 사정이 강타할 것을 짐작한 우익 세력들은 모두 프랑스로 도망갔다. 1975년 12월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이 탄생했다. 비록 정권은 베트남과 정치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라오스는 그럭저럭 많은 부분을 스스로 꾸려왔고, 베트남과 구별되는 정체성도 유지해 왔다. 불교는 문화와 사회 구조에 아주 크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정부는 불교와 공산주의의 불일치점에 대해 설명하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75년 이후 많은 사설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지만(많은 상인들은 메콩 강을 건너 태국으로 갔다) 1989년 이후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7월 아세안(ASEAN)에 가입함으로써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다.

3. 리서치

1) 리서치 개요

(1) 조사주제

라오스 시엥쿠왕 몽족 조사

(2) 조사대상

폰사반 마을에 거주하는 몽족

(3) 조사기간

2006년 7월 10일~7월 24일

(4) 조사인원

총 4명

- 훈련생 3명: 김영은(팀장/문서부), 목진섭(예배부/총무부), 김태윤(미디어부)
- 비엔티안 최수호 선교사님
- 몽족인 끼찬 (통역담당) 1분

(5) 리서치 필요성

라오스 지역에 사역하시는 최수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비엔티안에 산족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그 종족과 지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으로써 미전도 지역만큼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비엔티안 장족을 조사하고,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원하고 또한 이 민족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 조사목적

- ① 비앙티엔의 미전도 종족을 조사하여 선교 동원 자료를 제작하고 자료를 통해 비앙티엔의 지역에 선교사님과 센터의 아이들과의 사역 복음화에 기여 한다.
- ② 비앙티엔의 종교와 역사, 사회, 문화, 등 에서 깊이 조사를 하여 사람들의 영적 상황과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며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 알아본다.

(7) 조사지역

비엔티안

(8) 조사방법

- ① 문헌조사
- ① 인터넷 정보와 이메일을 통해 더 세부한 정보를 알아본 후 예비 프로파일을 작성.
- ② 선교사님과 지속적인 이메일 또는 연락으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용.
- ② 현장조사
- ③ 관찰조사 - 캠코더 1대, 카메라 1대, 녹음기 1대) 관찰
- ④ 인터뷰

- 비엔티안 산족 마을의 보고서, 통계자료, 마을의 소식지나 특징적인 물건을 구한다.
- 현장에서 마을 촌장이나 사람들을 만나서 통역담당 선교사님과 함께 이 마을과 현지인에 대하여서 조사표의 인터뷰 문항에 의하여서 물어본다

2) 조사 내용

몽족(Hmong Njua)

(1) 일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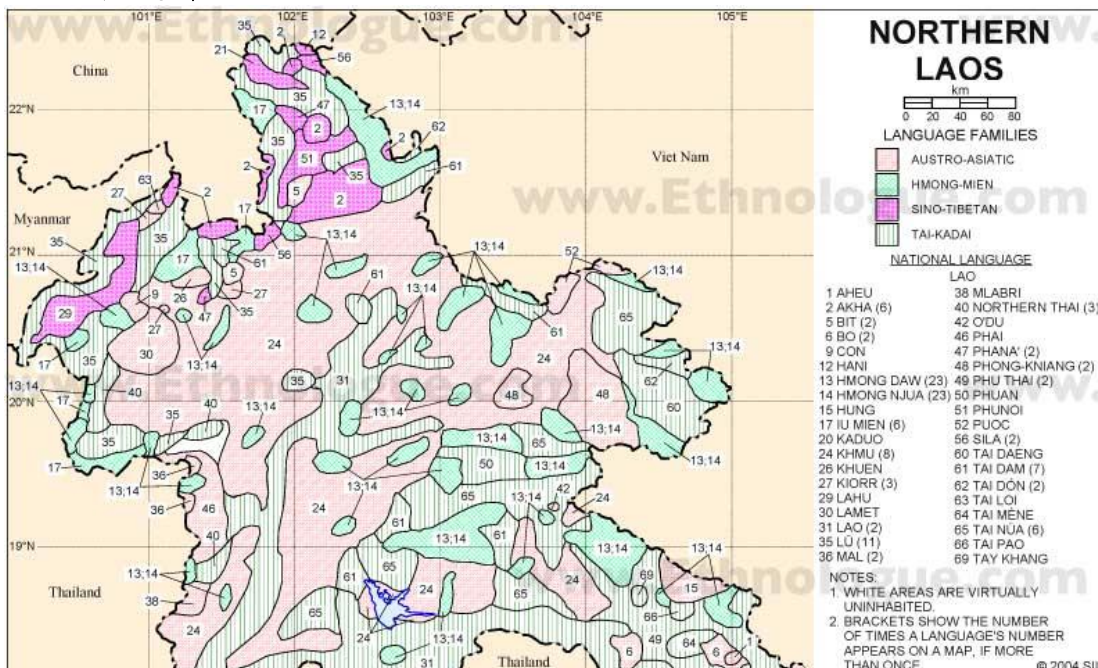
1) 종족명

Miao 또는 Me라고 불림

2) 종족 유래

그들은 라오스 내에서의 가장 널리 알려진 종족중 하나이다. 이 부족의 남쪽 중국에서부터 유래되었으며 그 후 19세기경 중국 아편 농부들의 침전으로 인해 라오스의 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몽족이 시베리아나 몽골과 같은 추운 지역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들은 19세기경에 중국에서 태국으로 나온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있다. 태국내에는 화이트 몽족과 블루 몽족이 있다. 그 외의 관련 종족들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및 중국에 있다. 몽족은 태국에 있는 소수부족중 2번째로 많은 부족으로 난, 수코타이, 치앙마이, 폐차분, 딱, 치앙라이, 메홍손 등에 분포되어 살고 있다. 몇몇의 학자들은 Persia 또는 Babylon에서 그들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중국 북부로 들어가기 전에 한세기동안 시베리아를 향해 북으로 이주하였다. Hmong의 전설과 중국의 기록은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고향은 6달 동안 낮과 밤이 지속되고 물이 얼음이 되었으며, 눈이 땅을 뒤덮는 곳이며 그곳에서는 사람들 역시 작고 땅달막하며 동물의 털가죽을 옷으로 입었다는 것이다.

3) 종족 분포



색깔 별 종족 분포도

*분홍: Austro Asiatic

- *초록: Hmong(몽족)
 *자주: Sino-Tibetan
 *카키: Tai-Kadai

4) 종족인구

라오스 몽족 인구			
라오스 몽족 총 인구		763,000	
Hmong Njua	163,800 (2000)	Hmong Njua	204,700 (2010)
Hmong Daw	191,000 (2000)	Hmong Daw	238,700 (2010)
Total	354,800	Total	443,400(2010)

- ① 언어: 몽어
 ② 종족분포 지역

Luang Prabang, Xieng Khouang, Sam Neua, Vientiane City, Phongsali, Oudomxai, Bokeo., Louangnamtha, Houaphan, Bolikhamxai

* 국가 내 타 국가의 동일 종족 분포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있다.

중국	7.400.000
베트남	750.000
태국	750.000
프랑스	2.000

* 미국 내 분포하는 몽족 인구

California	47,000	Tennessee	250
Wisconsin	13,200	Alabama	200
Minnesota	10,500	Indiana	200
Michigan	10,500	Utah	150
Rhode Island	2,500	Nevada	100
Colorado	2,000	Virginia	50
Oregon	1,100	South Dakota	30
Illinois	1,000	North Carolina	400
Georgia	700	Ohio	400
Pennsylvania	500	Oklahoma	400
Kansas	500	South Carolina	350
Texas	450	Nebraska	250
Washington	450		

- ③ 남녀별 인구: 몽족26% (남자 45%, 여자 8%)
 ④ 평균수명: 여 52세, 남 52세

5) 역사

20세기 현재 수많은 Hmong족들은 여전히 Caucasian특성(백색인종)을 지니고 있음이 발견된다. 몽 부족은 동부 아시아의 산족 유목민중의 하나이다. 대부분(5.5백만)이 중국의 연안, 광시, 시촨 지방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수 세기동안 중국 황실에 대항해 왔다. 그러나 1백만 이상이 중국 국경- 베트남, 태국, 버마, 라오스 -에 살고 있다. 그들은 세계의 아편 공급자로 많은 역할을 한다.

라오스의 몽 종족은 지난 40년간 인도차이나의 전쟁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다. 1975년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았을때 많은 사람 들이 피난민으로 태국으로 도망쳤다. 아마도 십만명 이상이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

은 그곳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배움과 일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늙은 사람들이 영어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① 기원 및 형성

5000 년 전, Hmong의 조상은 중국에 있는 황해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았다. 하지만 다른 인종 그룹에게서 전쟁과 박해는 몽족을 고국을 떠나게 하였으며 인도차이나에 남쪽에 산의 정상 근처의 안치하게끔 이르게 했다. 그들은 명백히 19 세기의 말에 중국을 떠났으며 그 후에 라오스, 태국, 버마와 베트남에 퍼지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인도차이나로 이주하는 길은 길고 험난했다. 몽족들의 이주는 크게 어려웠으며 이주하는 긴 기간동안 그들에게는 기근과 죽음 밀려왔다. 그러면서 그 이주 기간에 몽족들은 정벌과 별거를 직면하면서 많은 이주자는 가파른 산에 그리고 좁은 협곡을 통해서 걸어야 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연장자는, 긴 여행을 살아날 수 없었다. 그들은 길을 따라 죽고 매장되었다. 몇몇 아이들은 수수 케이크를 위해 교환되었다. 다른 경우에, 아내 조차 음식을 위해 무역되었다. 이것은 “몽족들의 눈물의 가신”이었다. 많은 이 빈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했다.

1960-1975년에서, 몽족은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미국을 위한 강한 전투기이었다. 15 년간, Hmong를 위한 생활은 동일이 아니었다. 가족은 일원을 상실했다, 아내는 남편 없이 살고, 아이들에게는 삼촌 또는 아줌마가 없었다. 추정된 25-30,000 Hmong는 미국 지원 결과로 전쟁 동안에 죽었다.

미국이 1975년에 동남 아시아에서 그들의 부대를 당길 때, 라오스는 공산주의자에게 떨어졌다. Hmong는 북 베트남 및 Pathet Lao를 위한 마음에 드는 표적이 되었다. Hmong 어떤 직업 미국 마을든지의 분야 그리고 집은, 학살된 동물 점화되고, 사람들은 아래로 쫓고 죽었다.

많은 Hmong는 라오스의 정글을 통해서 달아나고 타이란드에 메콩강을 건넜다. 그들은 그들에게 in.를 가지고 가는 것을 동의할 국가에서 들 피난민 수용소에서 기다렸다. 미국, 캐나다 및 프랑스는 Hmong를 위한 첫번째 선택 중 이었다. 미국에 있는 Hmong 가장 큰 인구는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및 위스콘신에서 집중된다.

오늘, Hmong는 더 이상 동일한 방언을 말하지 않거나, 동일한 옷을 착용하거나 인생 길 동일한 공유한다. 그들은 다른 살아있는 환경에 적응시키고 경작의 다른 유형에서 접전한다. 그들은 문명에서 떨어져 있 오지에서 그들의 평화 및 자유를 보존하기 위하여 산다, 그러나 수시로,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가정 및 가족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들에 축을 가지고 간 전쟁에 의해 교란된다.

② 대라오스 비밀전쟁(Secret War)

오퍼레이션 X'라는 작전명 아래 인도차이나의 아편 재배와 운송을 지원하는 철저한 이중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부패한 프랑스 정보국은 오늘날까지 악명을 떨치는 코르시카 마약 신디케이트와 손잡고 국제 마약시장을 휩쓸었다. 그 뒤 프랑스로부터



‘베트남 전쟁을 물려받은 미국도 1960년대 라오스를 인도차이나에서 사회주의 확장을 막는 방파제로 삼겠다며, 이른바 대라오스 비밀전쟁(Secret War)을 치르면서 프랑스 정보국을 본떠 마약을 ‘전략화’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라오스의 소수민족인 몽족 게릴라를 조직하면서 그 대가로 몽족의 아편 재배를 조직적으로 지원했고, 또 그들이 생산한 마약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에어아메리카(AA)로 사이공의 ‘안전지대’까지 실어다주었다. 그 결과, 베트남 전쟁판은 마약 소굴로 변했고, 참전 미군의 10~15%가 마약을 복용하기에 이르렀다. 이걸 197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마약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결국 식민주의 정보당국과 무장세력들이 합작한 국제마약사(國際麻藥史)를 거쳐 오늘날 아시아는 마약 생산의 중심지로 또 마약 소비 시장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영국·미국·프랑스·일본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잘나가는 ‘선진국’들은 시치미를 떼 채 아시아를 마약의 원흉으로 지목해서 ‘아니꼽게’ 노력하고 있다.

③ 역사 연혁

- 2700 B.C.: 몽족은 중국의 황하 지역을 점유한다.
- 206 B.C.-220 A.D.: 몽족은 Chou 왕조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중국의 Kansu 지역으로 몰아내졌다.
- 618 A.D: 당 왕조는 현재 중국의 몽의 영역을 다시 정복한다.
- 907 A.D: Sung 왕조
- 1360-1644 A.D.: Ming 왕조
- 1644-1911 A.D.: Manchu 왕조
- 1810-1820 A.D.: 많은 몽족은 중국에서 베트남, 버마, 그리고 태국을 경유하여 라오스로 이주한다.
- 1917-1922: 프랑스에 대항하여 Pa Chay 에 의해 The Mad War (Rog Phimbab) 발발.
- 1941-1945: World War II 발발. - Rog Yivpoos("Japanese War")라고 몽족에게 알려짐.
- 1946: 냉전의 시작
- 1963-1975: 라오스에 베트남 전쟁의 발발과 미국 비밀 군대 주둔.

- 1975: 몽족의 피난민이 태국으로 이주함.
- 1976-2006: 몽족의 피난민이 미국, 프랑스, 호주, 프랑스 가이아나, 캐나다로 이주함.
- 2003년 12월: 미국 국무성은 태국의 Wat Thamkrabok 피난민 캠프에 있는 15000명의 몽족 피난민을 재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였다.

(2) 생활조건

이들은 화려한 색상의 전통적인 옷차림을 즐겨 한다. 남자는 헐렁한 바지와 앞 지퍼가 달린 재킷에다 긴 머리에 터번을 쓰고 셔츠를 입으며 허리에는 장식 띠를 두른다.

한편 여자는 정교한 자수와 은장식의 옷을 입으며 머리를 쪽지고 터번을 쓰며 허리에는 꽃 장식 띠를 두른다. 갈대, 종려나무, 야자 잎으로 지붕을 만들고 건물은 나무나 대나무 등의 자재로 지붕을 엮는다. 이 집들은 난방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위생의식이 낮고 의료혜택이 낙후되어 있어서, 유아 사망률이 높다. 현관문을 마주보고 있는 벽에는 신주단지가 놓여 있다. 새해에는 이 신주단지를 새로 가는 축제가 있는 데, 그 집을 지키는 영들과 조상들을 위한 희생제물을 베풀어 새해에 집안에 우환이 없도록 기원한다. 새해는 결혼 상대자를 구 하는 십대들에게도 색다른 의미를 갖는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늘어선 반대편으로 일렬로 서서 앞 뒤로 까만 색의 소프트 공을 주고 받는데, 적당한 짝에게 공이 배달되면, 큰소리로 농담과 희롱의 말들을 건넨다.

1) 의복특성

몽족의 전통의복은 그들의 숨씨와 예술성을 반영한다. 천제적으로 빨간색의 자수를 놓아 검은색의 남성 면상의 여성용 앞치마를 장식한다. 전통의 복 중 일부 분인 소품은 의상가방, 허리띠 및 스커트로 구성되어있다.



2) 식생활

① 환경오염 및 보호에 대한 생각

몽족들은 쌀이나 다른 곡식을 거둔 후에 다시금 논을 전부 태운다.

② 식수 공급/시설: 빗물 또는 강물을 받아서 사용한다.

도시 부근에 사는 경우에는 우물이 있는 가정도 있고 물을 끓여서 마신다

③ 주식: 찹쌀(까오삐 kaopi), 매운 것, 닭고기, 물고기.

④ 식사 특성: 손으로 먹는다. 몽족들은 소식을 하며 주로 아침은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만 소식을 하는 편이다.

3) 주거

몽족의 가옥들은 대나무로 지어지는데, 요즘은 새로운 집들은 합석이나 타일로

된 지붕을 덮은 목조건물로 지어지고 심지어는 시멘트 마루까지 갖출 만큼 좋은 집도 있다. 모든 집에는 밥을 짓기 위한 아궁이가 있고 창문이 없는 반면 잠자리로 상용하는 폴 래트폼이 구비되어 있다.



- ① **도시와 농촌의 차이:** 몽족인의 도시의 생활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사는 가운데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지만 짬으로 되어있는 집의 형식으로 다른 종족들보다 빈곤하다.

(3) 문화

1) 문화적 특성

몽족은 은으로 된 보석을 지닌다. 그것들은 부와 건강하고 좋은 삶을 의미한다. 남자, 여자 및 아이들은 자물쇠 모양 펜던트를 가진 목 반지, 무거운 은 사슬, 각 손가락에 귀걸이 및 날카로운 반지의 은 층을 착용한다.

2) 예술

- ① **음악:** The khaen (*Qeej Hmoob*) 대나무와 나무로 만든 하모니카 Qeej 에는 나무로 되는 기포에 붙어 있던 다른 길이의 6개의 관이 있다. 각 관은 관에 단 하나 작은 구멍이 손으로써 닫히며 옆에 갈대들을 진동하며 내뿜을 때 지속적인 소리를 일으킨다. 각 관에는 의미심장한뿐 아니라 의성인 그것의 자신의 이름이 있다.



- ② **명절: 신년(뻐마이랴오)** 4월 중순(3일) 정결의식 중에 하나로 친구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을 끼얹어 준다. 이것은 악신을 쫓아내고, 더위를 이겨 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투우, 축구, 배구 와 같은 스포츠는 오후3시 이후에 시작되고 다른 식의 앞에 일어난다. 오래된 나쁜 소식을 멀리 세척하고 새로운 희소식을 생기기 위한 식이다. 가족 구성원은 새해의 극을 통해서 3 시간 앞으로 걷고 3 시간 뒤에 밋 수탉은 의식 식을 위해 희생된다. 이 의식 식 후에, 가족은 그들의 가정에 가고 "hu plig" 정신 밋 "pe tsiab"의 부르고는 또는 연장자 밋 조상을 명예를 주기와 같은 다른 의식 식을 지휘한다. 일단 이 식이 행해졌, 가족은 멀리 떨어진 무엇이든 또는 용돈 가기에서 금지된다. 그들은 3 일 밋 밤 동안 그들의 가정에서 희소식을 위해 희망하고 있는 동안 체재하고 좋은 나쁜 소식의 표시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다.



- ③ 결혼: 대보름날 큰 잔치가 있으며 이때 천으로 만든 공을 던지고 받으면서 짝을 찾으며 후에 남자가 청혼한다.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의 부모님과 살게 되므로 남자의 부모가 지참금을 낸다. (약600\$) 결혼식시 남자가 돼지를 잡아온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정의 조상신을 모시게 할 것을 선서하게 한다. 예식순서 중 식에 참석한 모든 친척에게 절을 하여 상견례를 하고, 오지 않은 친척에게 라도 이름이 불려지면 절을 하게 한다. 첩을 많이 두고 있는데 첩의 순서대로 어려운 일을 하게 되므로 본 부인은 쉬운 일을 하기 위해 오히려 첩 두기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혼 시 청한 자가 벌금을 내거나, 여자가 잘못했을 때에는 부모가 지참금을 돌려 주어야 한다.
- ④ 장례: Kev Pam Tuag 큰 징을 울리면서 (전설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 큰 징 속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관은 만들지 않고 나무 속을 파서 시체를 안치하며 땅에 묻는다. 소 돼지를 잡아서 죽은 자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생활해야 한다고 믿으며 후에 먹는다. 14일이 지나서 돌로 무덤을 만든다.

(4) 사회 구조

1) 가족 구조

가족은 대개 대가족제의 형태를 띤다. 아들은 결혼한 후 신부를 자기 집으로 바로 맞아들여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만형이 가족을 책임진다. 분가하는 아들의 경우도 아버지의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림을 차리는 것이 통례이다.

일부다처제이며, 상속권은 장남에게 있다.



2) **종족 공동체 구조**

마을 중심 친족중심체제한 마을은 하나의 친족으로 형성된다. 친족의 장은 최고 연장자가 맡고, 조상을 모시는 책임을 지며 마을과 친척에 관한 일에 일차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한다. 이 촌장은 권위와 존경을 받으며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마을의 공동집회에서는 마을 내 분쟁을 조정하고 마을 전체의 이동을 결정하는 등의 중요한 의결을 하게 된다.

3) **리더쉽, 지배 구조**

마을에는 반장(촌장은) 기본적인 공산당원이며 공무원은 아니지만 임시적인 4~5년 마다 변경됩니다. 우리 마을의 통제는 그가 다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결론은 다른 단원의 지도 아래 내립니다. 마을주민이 투표로 이루어짐

4) **이웃과의 관계/의사소통 실상**

라오스 내에 있는 몽족들은 라오어를 잘 모른다 그들의 의사소통은 몽어이며 다른 부족들과 의사소통 하는데 큰 지장을 가지며 그리하여 라오스 내에서도 대부분 몽족들만 모여 한 마을을 이루어 살아간다.

5) **주변 민족과의 관계:**

몽족은 다른 종족과 관계가 좋지 않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를 지원하며 싸운 대가로 라오스 내 다른 종족들은 몽족을 좋아하지 않으며 관계가 좋지 않다.

6) **규칙/권위/선택**

모든 규칙과 권위는 마을 촌장에 의해 이뤄진다.

7) **사회적 관습**

몽족들이 가난한 이유 중 하나는 몽족의 일부분은 기독교인이지만 소수 부족은 무속신앙이라 그들의 마을에는 언제나 무당이 있는데 몽족들은 어떠한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무당에게로 가는 것이 전통이다. 일만 생기면 무당한테로 간다, 가족 중 누가 아프면 그 사람을 데리고 무당에게로 가고 무당은 돼지나 소를 부탁한다. 그 후 다시 낳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을 부탁하여 몽족들은 더욱 빈곤해지며 이와 반대로 무당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산다,

(5) **경제**

도시로 내려와 거주하는 몽족을 볼 수 도 있지만, 좀처럼 이들의 거주지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들은 아직도 현대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공사업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며, 차츰 시장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그림.1 몽족의 논밭

- 1) 주 산업: 화전 농업 및 목축
- 2) 기타 산업: 곡물 및 시장경제 산업(감자, 토마토 및 딸기, 등)
- 3) 생산물/천연자원: 아편, 쌀
- 4) 경제 상태 및 발전 수준: 산간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논농사를 하고 농원을 가꾸어 왔는데, 현재는 그들의 농업이 많이 변형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득이 많은 다른 작물들; 배추, 감자, 토마토 및 딸기 같은 것들-을 재배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들은 아편 재배의 대치 품으로 소개된 것이었다.
- 5) 경제 개발 필요 분야: 몽족의 주부들은 집에 있는 것 보다 일을 한다. 현재는 흔히 노점상이나, 야채판매 또는 사무실이나 공무원으로도 일을 한다. 몽족의 발전을 위해서 남성은 흔히 특별한 기술직, 무역직, 용접, 조각, 목공, 석공, 농업, 어업 등에 직업 훈련과 발전을 기여해야 한다.

(6) 종교

이들은 아직도 정령숭배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들은 죄를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신앙은 전반적으로 기복신앙의 성격이 짙다. 몽족은 소외되어 있고 정부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왔기에 변화나 기독교에 수용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활발한 선교사역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기독교인은 1%정도에 불과하다. 라오스의 종교정책상 공개적인 복음전도가 어렵다. 아직 몽어 성경은 번역되지 못했다. 그러나 진창이 된 길, 건기의 극심한 가뭄, 쌀 종족 및 말라리아와 같은 것들과 이 종족을 사로 잡고 있는 귀신숭배의식 같은 것들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생활양식이다.



- 1) 민속종교: 정령숭배
- 2) 기독교 상태: 기독교인 2% 미만 일부분 기독교적 접근 방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때까지 지난 2년간 교회의 활발한 정착을 못하고 있음.
- 3) 교회 성장률: 가정 교회
- 4) 기독교에 대한 태도: 저항 / 수용성 : 약간 반응
- 5) 원시종교 (다신교, 정령숭배, 기독교)
 - ① 불교: 기독교가 들어간 후에 불교가 들어 갔으며, 조상신과 혼합되었다. 불교인들도 절에 잘 가지 않는다.
 - ② 프람교와 귀신, 조상신(70%)
 - ③ 기독교(20%)
- 6) 종교적 세계관: 몽족은 몽 구세주에 대한 전설이 있다. 전설에 따르면, 구세주가 나타나 모든 대적자들의 명예를 벗기고 독립적인 호몽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들은 강력한 리더쉽에 쉽게 이용당한다. 최근에 양송맹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수천 명의 신도들을 모았다. 양송맹의 명성은 거짓 치유와 예언 그리고 사단의 사주에 의한 많은 기적들에 의해 얻어졌다.

(7) 기독교 상황

기독교와 선교사 연맹은 라오스에서 몽족의 10%이상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라오스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상당수가 나라를 떠났다. 그들 가운데 전쟁 사망률은 다른 종족보다 많이 높다. 이것은 일부 다처제의 상속과 남자 권위의 약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남아 있는 교회는 큰 필요들을 직면해야 한다.




사진.1 몽족 가정교회



그림.2 몽족 예배 장면

- 1) **종족언어 성경:** 있음(신약 1975, portions1955)
- 2) **종족언어 기독교 방송매체:** 복음 방송인 FEBC
- 3) **교회형태:** 가정교회
- 4) **기독교 반응도**
기독교인 에게는 정부에 관련된 직분을 가질 수 없다. 공무원, 선생, 경찰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특히 학생중에는 종교란이 있는데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Animism이라고 표시한다. 대부분 기독교인은 그렇게 한다. 학생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표시가 되면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 5) **기독교에 대한 개방도**
몽족 가운데에는 교회 및 교회 협의회가 있어서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다른 크리스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정령을 숭배하는 신앙 행위뿐만 아니라 질병, 혼전 섹스에 대한 압력, 문명, 물질주의의 유혹들이 교회의 큰 문제 거리가 되고 있다.
- 6) **사역단체**
Asia Minorities Outreach 현재 2006년도에는 선교사 직분을 숨긴 체 NGO또는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이 있다.

(8) 기타 인터뷰

쭈아라오 뚜왕			
 <p>사진.1 쭈아라오</p>		 <p>사진.2 칸르이 가정교회</p>	
나이	62	영접 시기	1965년도
직 분	교역자(목사님)	가족 사항	총 6명
소속교회	가정교회		어머니/형제 4명/ 족카 1명(사택 거주)
교회위치	시앵쿠왕 칸르이	개인 생활, 사택	없음
교회설립과정			
2년 전 다른 곳에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공산당으로부터 그때 교회 리더 아브 가 총살을 당함. 그 후로 허가를 받아 2년 전 가정교회가 세워졌다. 리더 아브 의 총살사건 이후 관직 중에 기독교 총살은 읍지 않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지금은 핍박 없이 가정교회를 아무 문제 없이 잘 참석할 수 있다.			
비전			
시앵쿠왕 칸르이 마을의 교회 설립			
교인 수			
27가정(250~300명)/ 1가정당=8~11명			
예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일 예배: 9시~11시 - 목요 예배(기도회식): 7:30-9:00 - 기타예배: 공동체 모임(기도회 중심) * 예배 마친 후 남자들 함께 모여 기도회 * 예배 마친 후 여자들도 함께 모여 기도회 			
사역 내용 및 기타 프로그램			
성경공부 1주일 한번.			
기도 제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재 교회에 의자가 없어서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든 분들은 허리가 아프니 필요하다. 그 분들을 위해 한 50개 정도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에 비전은 앞으로 가정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 마을에 교회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시앵쿠왕 정부에서 교회 설립에 허락을 할 수 있도록. 2. 칸르이 마을에 200가정이 사는데 아직 170가정이 안 믿는데 그 가정들이 속히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3.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나요?			
- 이 마을에는 200 가정 중 170 가정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p>각자 우리의 일이 마친 후 점심을 먹으면서 또는 몽족어로 된 사영리 책자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p> <p>-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으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전도를 합니다.</p>			
<p>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나요?</p> <p>- 이 마을에는 200 가정 중 170 가정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각자 우리의 일이 마친 후 점심을 먹으면서 또는 몽족어로 된 사영리 책자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p> <p>-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으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전도를 합니다.</p>			
<p>다른 지원사역 단체는 있나요?</p> <p>- L.M.C 김미애 선교사님께서 시앵쿠왕 4개 교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p>			
<p>칸마니 (폰싸교회)</p>			
 <p>사진.1 칸마니 전도사님</p>		 <p>사진.2 폰싸교회 내부</p>	
생년월일	1980. 9. 5	교회명	폰싸교회
나이	41	소속교회	
직 분	전도사	가족 사항	총 11 명
교회위치	왕냥 방비앙 마을		현재 사택 거주
<p>교회설립과정</p> <p>94년도 폰싸마을에 정착하여 촌장을 하며 마을에 대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마을 정부기관 퇴직 후 2004년도에 폰싸교회를 설립하였고 현재 4분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p>			
<p>예배 시간</p> <p>-주일예배: 9시</p> <p>- 목요일 기도회 예배: 19~20시 (교회 장로와 교인들과 함께)</p>			
<p>교인수</p> <p>25가정 약 200명</p>			
<p>사역 내용</p> <p>주일 말씀 선포, 칸르이 마을 밖의 시내 교회 설립.</p>			
<p>비전</p> <p>교회 부지의 확장과 다른 이 마을의 모든 크무족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p>			
<p>기도 제목</p>			

1. 현재 교인중에 한 형제가 태국으로 가서 신학공부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형제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서 함께 교역자로 섬기길 바란다.
2. 이 주변에 더 사람들이 많은데 시내 쪽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토, 일 거기 계시고 주중에 장로님께 맡기고 있는데 그 쪽의 교회가 잘 되도록. 그리고 새로 개척하면 주중에 있다가 교인들과 갔다가 오는 상태다. 새로 개척하면 주중에 있다가 교인들과 갔다가 온다. 최종호 목사님과 연결되어 지을 수 있도록 후원하심. 땅은 새로 매입하여 성도님이 기증하였다.

(9) 평가 및 제언

- **리서치 준비과정에 대하여** 이번 라오스의 미전도 종족조사는 최수호 선교사님과 함께 동원해 본격적으로 시엥쿠왕 미전도 사역에 정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님의 미전도 종족에 대한 리서치를 함께 하게 되었다. 하지만 선교사님께서 시엥쿠왕 이라는 곳에는 처음 가게 되었으며 어떤 종족을 조사할 것인지 확신이 정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 역시 라오스 내에 종족 조사라는 주제만을 들고 인터뷰할 내용과 조사표를 가지고 라오스에 정착한 후 선교사님을 목적과 방향을 잘 듣게 되었다. 그리고 리서치를 하기 전 문헌조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선교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족 책자를 번역하며 종족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리서치 주제가 광범위한 이유로 깊게 조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리서치의 주제를 가지는 것이다. 물론 선교사님과 동원하며 리서치를 할 경우 우리의 리서치 목적을 명확히 말한 후 선교사님의 목적을 잘 듣고 함께 이루어갈 목적을 가지며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팀원들은 주제에 만족시킬 정보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가야 될 것이다.
- **리서치 과정에서**
 - 라오스에 종족을 리서치 한다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처음 선교사님과 직접 만나 종족 리서치에 대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리서치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며 적는 일을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몽족인 가이드를 만나게 되어 그가 아는 몽족의 기독교인 집안에 들어가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리서치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와 사역의 목적을 가진 선교사님과 함께 리서치를 하다 보면 관찰조사와 인터뷰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며 빠르게 움직여 깊은 것을 묻거나 보지 못하며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 우리의 리서치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면서 시간은 짧고 단시간에 기록해야 되는 것은 많았다. 그러므로 인터뷰할 내용을 핸드북을 읽으면서 하는 것보다 미리 외워두어 자연스럽게 묻는 것이 가장 좋다. 기록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다. 질문을 하면서 기록할 경우 인터뷰의 흐름이 멈춰지게 된다. 질문을 할 때 웃으면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도 명심하자.

4. 사역 (영어교육 보조, 센터에 필요한 컴퓨터 작업 및 청소)

1) 대상

- Lao Mission Center (무료교육센터) 에 위탁된 라오스 학생들, 공무원, 직장인들 40여명

2) 기간

- 영어교육: 2006년 7월 10~13일
- 무료 교육 센터 청소 및 컴퓨터 점검: 2006년 7월 22일

3) 사역 내용

(1) 목적

리서치 기간 중 라오스 현지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현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선교사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라오스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기 위함이다.

(2) 현지상황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라오스에서는 다른 어느 무엇보다 교육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은 현실이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된다. 따라서 LMC 교육사역(NGO 사역)은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쌓아감으로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터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사역방법



그림. 영어수업



사진.2 컴퓨터 수업

- 박정민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무료교육센터에서 개설하고 있는 영어 교육에 수업 보조로써 참석함.
- 오후 5시, 6시 30분 2개 클래스가 각각 개설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 대상자들 대부분이 직장이 있거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여 교육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옮긴 것이다.
- 영어보조 교육 이후의 시간에는 주로 센터의 교실들을 청소하고 가구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
- **교육부에 컴퓨터 기증**
 - 한동대학교에서 기증받은 컴퓨터를 점검하여 사역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OS, 워드, 등 과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함.
 - 선교사님과 함께 현지사정에 맞도록 하드웨어를 점검함.
- **영어교육 보조교사**
 - 교사, 공무원, 직장 및 학생들을 비롯해 한동대팀 3명이 각자 한 사람씩 맡아서 무료 교육센터 영어교육 시간에 학생들을 보조함.



4) 평가 및 제언

처음에는 사역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학생들의 영어를 옆에서 가르치며 보조하였는데 옆에서 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5) 동원 전략

- 2007년도 본격적으로 무료교육센터는 LMC(Lao Mission Center)교육부 사업으로써 넘겨지게 된다.
- 컴퓨터 교육의 형성을 위해 무료교육센터는 전문 사역팀과 여러 봉사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 컴퓨터의 기증과 영어 교재의 지원이 필요로 한다.

III. 라오스 (박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1. 일정

2006년 7월 8일

11:00 인천공항으로 출발
21:00 방콕 행
01:00 방콕 도착
12:00 암낫짜른 도착
18:30 센터 아이들과 레크리에이션
21:00 워쉽 댄스 연습
22:00 예배 및 전략회의

2006년 7월 9일

7:30 기상
8:00 아침식사
8:30 QT 및 특송과 워쉽댄스 준비
10:00 주일예배
(한동대라고송 특송&워쉽:
That my soul knows very well)
13:00 말씀통독
15:00 페인트 칠 사역을 위한 준비물 사기
및 공원에서 땅밟기 기도
18:30 암낫짜른 센터아이들과 교제
21:00 예배 및 전략회의

2006년 7월 10일

7:00 기상 및 아침식사
8:30 QT
10:00 암낫짜른에서 청맥으로 이동
(라오스 국경)
12:30 라오스국경 에서 비자발급
13:30 국경에서 라오스 박새 지역으로 이
동
14:30 선교사님과 전도사님과의 점심식사
17:30 박새지역 시장 탐험
19:00 신담(코리안바베큐)저녁식사
21:00 예배 및 성경공부(로마서 전도법)
23:00 전략회의

2006년 7월 11일

7:00 기상
7:30 아침 장 보러가기

8:30 QT

10:00 선교사님과 라오스 오리엔테이션
16:00 말씀통독
17:00 비전힐스쿨 영어사역
(선교사님사역지)
22:00 예배 및 전략회의

2006년 7월 12일

7:00 기상
7:30 QT
8:00 락사오카오 마을로 이동
9:00 락사오카오 리서치 인터뷰
12:00 점심
17:00 영어사역
19:00 저녁 및 나눔의 시간
22:00 예배 및 전략회의

2006년 7월 13일

7:00 기상
8:00 QT
9:00 락삼십 마을로 이동
10:00 락삼십 마을 리서치
11:30 락삼십일 마을 리서치
13:30 점심
14:30 숙소도착 및 빨래
17:00 영어사역
20:00 말씀통독
20:30 예배 및 전략회의

2006년 7월 14일

9:00 기상
9:30 QT
11:30 아침 겸 점심
12:30 말씀통독
14:00 리서치 자료 정리
17:00 영어사역
18:30 팔레스호텔 옥상에서 박새시내 관찰
19:30 저녁
20:00 예배(중보기도 중심)

21:00 전략회의

2006년 7월 15일

8:00 기상
8:30 QT
9:00 아침식사
10:00 12km마을로 이동
10:30 리서치 인터뷰
12:50 점심식사
18:30 코이카직원 집에 저녁식사 초대받음
21:00 예배 및 나눔
23:00 전략회의

2006년 7월 16일

7:00 기상
7:30 QT
8:00 락사오카오 마을로 이동
9:00 락사오카오 교회 주일예배
12:00 점심식사
13:00 빠세 시내 구경
14:00 메콩강에서 보트 탔음
18:00 특별한 저녁식사(이탈리안)
20:00 예배 및 나눔(중보기도)
22:30 전략회의
(두번째 주제의 리서치에 관한 회의)

2006년 7월 17일

8:00 기상
8:30 QT
9:00 아침식사
10:00 미디어부원과 리서치 리뷰
13:00 모닝마켓에서 중보자 선물 및 구경
17:00 영어사역
18:30 저녁식사(신답)
20:00 예배 및 나눔
21:30 전략회의

2006년 7월 18일

7:30 기상
8:00 QT
9:30 락사오카오 마을로 이동
10:30 미디어 영상을 위한 촬영
12:30 점심
17:00 영어사역
18:30 저녁
20:00 예배 및 전략회의

2006년 7월 19일

7:30 기상

8:00 QT

8:30 아침식사
9:00 락삼십 마을로 이동
10:00 남차이툼(아랫마을)영상 촬영
10:40 개울가에서 휴식
11:00 남차이툼(윗마을) 영상촬영
13:00 점심식사
14:00 빨래
17:00 영어사역
18:30 저녁식사 및 전도사님과의 영적상태 상담
22:00 예배 및 특별나눔
23:30 전략회의

2006년 7월 20일

7:30 기상
8:00 QT
8:30 아침식사(로띠)
9:30 락삼십일 마을로 이동
10:30 락삼십일 마을 리서치
12:00 물 샘플링
13:30 점심식사
15:30 말씀통독
17:00 영어사역
19:00 저녁식사
20:00 예배 및 전략회의

2006년 7월 21일

7:30 기상
8:30 QT
9:00 아침
9:30 왓포우 사원으로 출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지정)
11:00 왓포우 사원도착 및 관광
13:00 점심식사
14:30 숙소도착
17:00 마지막 영어사역
18:30 팔레스 호텔 옥상에서 야경
19:00 저녁식사(신답)
20:00 말씀통독
20:30 예배
22:00 전략회의

2006년 7월 22일

9:00 기상
9:30 QT
11:00 아침 겸 점심
12:00 인터넷 사용(이메일 사용)
13:00 요리사역을 위한 장보기
14:00 중보자 선물사기(마트)

18:30 저녁식사
20:00 숙소에서 선교사님과의 미팅
20:30 예배 및 나눔
21:30 전략회의

2006년 7월 23일

8:00 기상
8:30 QT
9:00 뻥세 시내 교회에서 주일예배
12:00 점심식사
13:00 숙소로 이동
14:00 선교사님 댁 (센터) 방문
14:30 센터 현지인들과의 교체
(축구, 배드민턴)
17:00 한국음식 준비(파전)
18:00 현지인들과의 저녁식사
(라오스&한국음식)
19:30 게임 및 장기자랑 시간
20:30 선교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22:00 나눔의 시간
01:00 숙소도착

2006년 7월 24일

9:00 기상
9:30 아침식사
10:00 QT
10:30 김싸기
12:00 마지막 점심식사
14:00 말씀통독
16:00 국경으로 출발
17:00 국경도착
17:30 방콕행 버스 출발

2006년 7월 25일(리트릿 시작)

6:00 방콕도착
7:30 방콕센터 도착
8:30 QT
18:00 SFR 전체 집결

2. 지역개관

라오스 비엔티엔팀과 동일.

3. 리서치

1) 조사 개요

(1) 조사주제

정수 시설이 잘 되어있는 29km 마을을 모델로 물 공급 상황이 매우 열악한 세 마을의 정수시설 현황을 관찰 조사하고 그 지역의 필요를 구축한다.

(2) 조사대상

29km마을, 30km 마을의 윗마을(남차이통), 아랫마을(남차이룸), 31km마을

(3) 리서치 필요성

라오스 싹세 지역 내 네 마을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심각한 물 상황과 필요를 전해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의 우리의 리서치는 네 마을들을 위한 정수시설 프로젝트의 사전조사이고 아래와 같은 단체들이 협력하여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GIST 국제 환경 연구소 [수질 및 토양 검사/ 마을 개발을 위한 우물(or 정수) 시설 설치]
- CAAS(한동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리서치 연구원 파견]
- NIBC(캄보디아 비영리단체-명: New International Builders' Community) [현지 리서치를 통한 지역 정보 제공/ 마을 개발 프로그램 개발]
- BBI(미국 비영리단체-명: Bridge Builders' International) [마을 개발 프로그램 진행: 교육, 농업 등/ 현지 책임자 파견, 관리/ 한센씨병 환자 치료]

(4) 조사목적

실제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마을에 정수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리서치 보고를 통해 한국 대학 내 연구소와 국제 비영리 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정수시설 리서치가 그 지역 복음의 전초화를 위한 총체적 선교에 기여하는 것이라 믿는다.

(5) 조사지역

수도 비엔티안 에서 버스로 12시간 거리의 싹세 라는 도시 내 29km, 30km, 31km 반경의 네 개의 기독교 및 천주교 마을

(6) 조사기간

2006년7월10일~ 2006년7월24일

(7) 조사인원

총 4명

-소미혜(팀장/미디어부), 이보라(문서부), 남홍희(총무부), 하은혜(디렉터/예배부)]

(8) 조사방법

정수시설을 주제로 한 리서치는 처음이므로 참고할 전 기수의 보고서나 이 리서치에 관한 문서화 된 자료는 구할 수 없어 라오스 전체의 지역개관 외에는 사전의 문헌 조사는 불가능 했다. 게다가 제 3국에서 문서화 된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현장조사를 통한 관찰과 현지인과의 인터뷰 만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미디어 보고서를 위한 마을 사람들의 생활상 과 마을 전경 그리고 우물시설을 캠퍼스에 담았다.

(9) 리서치 제한점

- 관공서를 간다고 하더라도 라오스와 같은 제 3국에서 문서화된 자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라서 관공서에서 리서치가 자유롭지 않다. 특히 학교에서 발급해준 리서치 증명서는 각 국가의 정부기관 등에서 확인 등을 얻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 모든 리서치를 현장조사, 인터뷰로 해결해야 하였기 때문에 인터뷰 질문지를 충분히 작성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 등으로 많은 질문들을 하지 못했다.
- 조사 지역 마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만(마을 이장님 등) 모든 리서치가 이루어졌으므로 리서치 질문의 폭이 좁고 많은 질문들이 생략되어서 리서치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 라오스 현지에 있는 한국사람이 극히 소수 이므로(선교사님과 코이카 직원 등) 함께 리서치하며 돌아다녀야 하는 통역사를 따로 구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거의 모든 리서치에 도움을 주셨다. 하지만 선교사님도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생활 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따르고 여유롭게 자세한 리서치를 하기는 불가능하다.
- 현지인 통역사를 구해서 마을에 들어가 인터뷰를 한다고 해도 영어를 잘 구사하는 현지인이 많지 않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라오어에서 영어로 통역되는 과정 중 많은 정보가 생략되기도 하였고 우리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얻은 자료들을 100% 신뢰하긴 힘들다.

2) 조사 내용

(1) 짝세 마을 개관조사

- 1) 일반 개요 (마을 명, 마을역사, 인구, 남녀인구 비, 평균연령, 주요종교, 위치, 기후, 종족 명)
- 2) 경제 분야 (주업, 부업, 주 소득원, 생산물, 공예품, 현대화, 지역적 경제상태)
- 3) 생활 조건 (보건위생, 의료혜택, 교통수단, 교육)
- 4) 정수시설
 - ① 전기시설(최대전력 및 소비전력), 주변 지형 조사, 날씨조사, 현재 수도 공급 상태 및 그로 인한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 있는 저수지 또는 지하수, 펌프시설 조사)
 - ② 각 마을 수도시설 등에서 물 샘플링 채취.

(2) 리서치 일정

7월11일	라오스 오리엔테이션	7월15일	12km마을 리서치 (조사지역은 아니지만 물 공급이 더 열악한 마을)
7월12일	락싸오까오(29km) 정수시설 잘 되어있는 마을 현장조사	7월18일	락싸오까오 마을 미디어 촬영 및 샘플링
7월13일	락삼십(30km) 남차이룸, 남차이툭 마을 현장조사	7월19일	락삼십 마을 미디어 촬영 및 샘플링
7월14일	인터뷰 정리 및 리뷰	7월20일	락삼십엣마을(31km) 리서치, 미디어촬영 및 샘플링

(3) 짝세 마을 조사 내용

1) 락싸오까오 마을(29km)

네 마을 중 수도시설이 가장 잘 되어있는 마을로서 나머지 세 마을의 수도시설 개발을 위한 모델 역할을 한다.

- ① 조사날짜: 2006 년 7월 12일
- ② 조사방법: 관찰조사 및 인터뷰
- ③ 관찰조사

아이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지 않고 돌아다닌다. 봉지를 들고 나뭇잎을 따 모아서 아주 맛있게 간식으로 뜯어 먹고 있었다. 집들은 대부분 대나무로 마룻바닥이 땅에서부터 높게 지어져 있었고 마을도 깨끗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부엌 등으로 대나무를 이용해 선반이나 의자나 가구를 만들어서 시장이 내다 판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어른과 아이들 서넛이 나와서 탁자와 의자들이 진열하고 팔고 있었다. 수도시설이 매우 양호한 편이라 마을 전체와 사람들이 깨끗한 편이다. 어느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부엌 이라고 하는 집 한 구석에는 화로와 물이 나오는 개인 파이프가 있었고 큰 세숫대야가 싱크대인 듯 했다. 집안 내부는 크게 구분이 방 하나에 부엌으로 되어 있고 방 내부는 부끄럽다고 보여주지 않았다. 문 위로 걸쳐져 있는 전기선들은 아주 위험해 보였다. 그리고 기독교 마을이라 그런지 아이들의 이름이 대부분 성경인물의 이름이었다. (빌립, 마리아, 아론 등)

④ 인터뷰

1. **인터뷰 대상자:** - 꿈(이 마을 현지교역자 형님이며 중학교 선생님)
- 캄퐁(마을 이장님)
2. **인터뷰지역:** 락싸오까오 마을 이장님 댁
3. **인터뷰 내용**

● 전력시설 관해

Q. 이 마을에서 끌어들이 수 있는 최대 전기 용량은 어떠한가?

A. 정부에서 마을의 규모를 본 후 정부가 알아서 전기를 쓸 만큼 넣어준다.
최대전력은 알 수 없었다. 라오스 수력발전소에서부터 전기를 끌어다 사용한다.

Q. 마을사람들이 쓰는 전기 양은 어느 정도인가?

A. 전체 마을에 67가구가 있는데 7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정부가 넣어준다.

Q. 한 달에 전기세는 얼마나 내는가?

A. 한 달에 한 가구당 평균 만 킵 정도 내는데 (가구마다 차이는 있다) 이 돈은 정부에 내고 우기철 8만 킵, 건기철에는 12만 킵 정도 낸다.

● 수도시설에 관해

Q. 이 마을에 수도시설은 어떻게 설치되었는가?

A. 사실 93년도에 스위스 어느 한 기독교 재단이 지하 20m를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주고 갔다. 그래서 두 개의 펌프가 있다. 93년 전에는 4m 구덩이를 파서 비가오면 그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곤 했다. 그런데 05년 3월에 싱가포르의 한 교회의 헌금으로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었다. 먼저 정부서 수도시설에 관한 허락을 받고 뻑세 시내의 한 개인 펌프회사에 부탁하여 그 회사가 와서 땅을 파주었다. 물이 나올 때까지 그냥 무조건 판다고 한다. 처음에 교회 주변에 땅을 파 보았지만 물이 안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물이 나오자 파이프를 꽂아서 발전기에 연결한다. 거기에 또 호스를 연결해서 위에 달린 탱크에 연결하고 이것을 각 가정으로 파이프를 연결 하였다. 요즘은 탱크에 센서기가 달려있어서 탱크에 물이 없으면 자동으로 땅밑에서 물을 끌어올린다고 한다.



● 생활영역

Q. 물이 생긴 후 의식주의 변화는 어떠한가?

단지 물이 있어 좀 더 편리해진 것뿐이다. 옷 등을 더 자주 빨아 입거나 하는 것은 없다.

Q. 벌레를 잡아서 주식으로 먹는다면 그것이 사실인가?

가끔 벌레를 잡아서 먹기는 하지만 그것을 주식으로 먹는 것은 아니고 벌미로 먹는다. 맛있다. 우기철 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야채가 잘 자란다.

Q. 마을의 주거 형태는 어떠한가?

마을이 생성되고 초가집, 방갈로로 시작되어 계속 집 형태가 바뀌고 있다. 지금은 대부분 나무로 지어진다.

Q. 마을에 병원이나 학교가 있는가?

1960년도에 중학교가 설립되었고 2002년도에는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있다. 병원이 있긴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는 시내의 도립 병원 에서 필요에 의해 가끔 온다. (왜 박정욱 선교사님께서 이 마을의 기독교 아이들을 간호학교로 보내서 양육하려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Q. 기독교마을의 생성동기는 어떠한가?

-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먼저 30km 남싸이름에 나환자촌이 있었는데 그때에 프랑스 신부가 와서 약을 주고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갈라져 나와 지금의 락싸오까오 마을이 생성되었다.

- 다른 이야기는 라오스 내전시기에 종교 핍박으로 종교포기 각서 쓰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두 이주하여 기독교 마을이 생성되었다.

Q. 교회는 있는가?

- 처음에 가정교회로 시작하여 교회가 세 번 옮겨졌는데 지금의 교회는 1998년 박정욱 선교사님의 헌금으로 지어진 것이다.

Q. 물이 없음으로 생긴 병이 있는가?

- 피부병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요즘은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린다.

Q. 위생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 (위생보건에 관한 질문은 현지인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 인터뷰를 하지 못하였다. 또 개인차가 분명 있을 것 이다.)

⑤ 평가 및 제언

이 마을은 물도 충분하고 모든 생활에 있어 다른 마을들보다 잘 사는 편 이다그래서 이곳에 많은 원조를 투입하기 보다 열악한 다른 마을들에 도움을 주는 편이 나을 듯 하다.

2) 락삼십 마을(30km)

30km 마을 안에는 두 개의 마을이 있는데 개울가를 사이에 두고 윗마을 아랫 마을로 나뉘어 진다. 윗마을은 ‘남차이툽’ 천주교 마을 이며 아랫마을은 ‘남차이툽’ 기독교 마을이다. 수도시설이 열악한 곳들이다.

① 조사날짜: 2006 년 7월 13일

② 조사방법: 관찰조사 및 인터뷰

③ 관찰조사

●가정마다 대부분 닭을 키우고 있었고 나무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었다. 29km마을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어느 곳을 가든 빈부 차이가 있듯이 시멘트로 지은 집이 있는 반면 바로 옆에는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같은 집이 있었다.

●우리가 인터뷰 한 장소인 남차이툽 마을의 병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진료실은 4평 정도 되어 보였고 의료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바닥은 너무나 지저분했고 천장마다 거미줄로 가득하였다. 이곳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는 곳 이라 하기엔 너무나 열악하고 상상할 수 없었다. 인터뷰를 했던 간호사분도 한센병 을 앓은 흔적이 계셨다. 이 마을 아이들이 인터뷰 하는 내내 외국인이 신기한 듯 모두 몰려들었고 한국의 땅 파먹기 식의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아이들의 유일한 놀이인 듯 하였다.

● 남차이툽 마을로 가는 길에는 30km 마을을 가르는 개울이 있었다. 물살이 꽤 세고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폭의 다리가 놓여져 있다. 아이들은 개울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빨래도 하며 목욕도 하고 있었다. 다리를 지나면 바로 천주교 마을인 윗마을 남차이툽 마을이 보인다. 집들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지만 꽤 크고 웬만한 편이다. 한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 마을의 길이 이때까지 들러본 마을들 보다 가장 잘 닦여 있다는 것이다. 이 마을 역시 닭을 많이 키운다. 집들이 좀더 웅기종기 붙어 있다. 가정집에서 식료품도 팔고 좀더 잘 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은 대나무로 만든 공으로 축구를 하며 놀고 있었고 마을 안으로 좀 더 들어가니 성

당이 보였다. 비를 피하기 위해 잠시 들어간 한 현지인 가정은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메뉴는 개구리 국이었다. 자주 먹는 듯 하였다. 개구리 국을 먹어 보았는데 국물은 추어탕 맛있고 고기는 질긴 생선 같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개구리와 개미는 별미라고 하였다.

④ 인터뷰

1. 인터뷰 대상자: 락삼십, 락삼십일 마을 담당 간호사(마을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2. 인터뷰지역: 남차이툼 에 위치한 마을병원
3. 인터뷰 내용

● 전력시설에 관한 것

Q. 이 마을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 전기를 사용한다.

Q. 이 마을에 들어오는 전기용량은 어떠한가?

- 락삼십일(31km) 마을에서 천주교 재단의 후원으로 전기 발전기를 세웠는데 거기서 락삼십 마을까지 전기를 끌어다 쓴다. 하지만 전봇대는 30km, 31km 각각 사용한다. 정부가 가정 수에 따라 일정한 양의 전기를 넣어준다. 발전기 값은 천주교 재단에서 후원 한 것이고 전기세는 정부에 낸다.



Q. 전기세는 얼마나 내는가?

- 집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28000킵 정도 내었다.

Q. 이 마을에 들어오는 전력과 몇 가정이 살고 있는가?

마을이름	최대전력	가정 수
남차이툼(윗마을)	100kw	185 가정
남차이툼(아랫마을)	100kw	195가정

● 수도시설에 관해



Q. 주변에 저수지나 개울가 가 있는가?

- 락삼십 마을 안에 윗마을 과 아랫마을을 가르는 개울가가 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빨래를 하거나 씻기도 한다.

Q. 이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 남싸이툼(기독교마을): 2005년 일본에서 만들어준 세 개의 펌프가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상수도 회사에 부탁해서 만들어준 펌프가 세 개 있다. 합해서 6개의 우물이 있다. 사람들은 사용할 만큼의 물을 길어서 사용한다.
- 남차이툼(천주교마을): 2005년 정부에서 만들어준 세 개의 펌프가 있다. 인구수에 비해 충분히 사용하기엔 힘들지만 그나마 물 사용이 양호하다. 우리 마을보다 물 사용이 더 열악한 지역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마을이름	수도시설
남차이툼	3개의 펌프
남싸이툼	6개의 펌프

● 생활영역

Q. 저기 수도 파이프가 보이는데 저것은 무엇인가? (병원 안에서)

- 락삼십, 락삼십일 마을 통틀어 지금 이곳의 병원이 딱 하나이기에 특별히 이 병원에만 수도파이프를 연결하여 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⑤ 필요사항

세 마을의 유일한 남싸이툼에 위치한 병원건물과 시설이 위생적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열악하였기 때문에 원조를 해주면 좋을 듯 하다.

⑥ 평가 및 실제

리서치를 하러 오기 전에 한국에서 들었던 이 마을에 관한 정보가 매우 잘못된 정보였음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마을 전체에 펌프가 세 개 이상 있다는 것이 라오스 내 시내를 제외한 마을 중 물 사용이 양호한 편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락삼십일 마을(31km)

물 공급이 가장 열악하다고 듣고 온 마을 (천주교마을)

- ① 조사날짜: 2006 년 7월 12일
- ② 조사방법: 관찰조사 및 인터뷰
- ③ 관찰조사

- 차가 다니는 길 이 네 마을 중 가장 잘 닦여 있다. (천주교 마을)
- 집이 대부분 앞 마을들 보다 좋은 편이다. 대부분의 집 지붕이 양철이거나 나뭇잎을 말려서 만든 지붕 두 종류 이다. 앞 마을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양철 지붕이 많다. 돼지나 닭 오리를 가장 많이 기르며 아이들의 인사성도 밝다.
- 집 내부도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다. 마을 안쪽에 초등학교가 있고 마을 입구 쪽엔 성당이 있다. .

④ 인터뷰

1. 인터뷰 대상자: 31km 마을 이장님
2. 인터뷰 지역: 마을 주민 집 마당
3. 인터뷰 내용

● 경제분야

Q.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 많이 종사하는가?

대부분 농사를 짓는다. 가축을 기르는 집도 있다.

Q.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은?

대부분 시내로 나가서 일하길 원한다. 하지만 마을에 남아 가족과 함께 농사지으며 살기 원하는 젊은이도 있다.

Q. 어떤 종류의 부업이 있는가?

고지대의 30km마을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것이 부업이라면 우리 31키로 마을은 지형상 저지대 이므로 가축 기르기가 적합하다. 그래서 가축을 내다 팔기도 한다.

● 전력시설

Q. 전기시설은 어떠한가?

천주교 재단에서 세워준 전기발전기로 전기 사용이 자유로우며 앞의 두 마을에도 전기를 대준다.

Q. 최대 전력은?

65kw를 사용한다. 가구수 가 70가구 밖에 되지 않아서 65kw 면 충분하다.

● 수도시설

Q. 근처에 저수지나 강가가 있는가?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호수 가 있는데 그 물을 받아 쓰진 않는다.

Q. 그럼 물은 어디서 받아서 쓰는가?

2004년에 정부에서 만들어준 펌프가 세 개가 있고 가정마다 지하수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우물 있다. 총 가정에서 5~10 가정 정도만 개인 우물이 없다. 물 사용이 양호한 편 이다.

● 생활영역

Q. 교통수단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Q. 병원이 있는가?

병원은 없고 약을 구해서 먹는다. 급한 경우는 땡세 시내로 나가 병원에 간다. 30km 마을 병원에 가는 것 보다 시내 병원 가는걸 선호하는 것을 선호한다.

Q. 학교는 있는가?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는 29km 마을로 간다.

⑤ 필요사항

라오스 어느 곳을 가든지 젊은이들의 직업변화를 필요로 느끼는 것 같다. 이곳은 외부 원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막노동 이나 농사만 평생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다.

⑥ 평가 및 실제

어떠한 계획을 실행하려 할 때에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 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왔다. 리서치를 하러 가기 전 땡세 네 마을 중 이 곳 31km 마을의 물 공급이 가장 열악하다고 하였을 때 정말 물이 없어서 씻지도 못하고 야채가 안 자라서 벌레를 잡아서 주식으로 먹는다고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리서치 한 네 마을 중 이 마을의 집이 가장 좋았고(양철) 마을도 깨끗한 편 이었고 펌프도 세 개 나 있고 각 집마다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 우물도 있어서 물 사용이 매우 편리한 편 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 하였을 때 너무나 충격이었다.



4) 12km마을

우리가 정한 수질 리서치 마을을 다 돌고 그곳 보다 더 열악한 마을 중 한곳을 택하여 예비조사를 하러 갔다

- ① 조사날짜: 2006 년 7월 15일
- ② 조사방법: 관찰조사 및 인터뷰
- ③ 관찰조사

마을 전체가 돼지를 많이 키우고 빗물을 받는 향아리가 집집 마다 있다. 이것을 통해 물 공급이 열악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마을 규모가 크지는 않다. 대부분 집들의 지붕이 다 짚으로 만들어 져있다. 그리고 나무 껍질을 연결해서 집 몸통을 만든 집들이 대부분이다. 길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움푹 패인 곳이 많아 차가 들어가기 힘든 길이다. 아이들은 꽃을 따서 연결하여 목걸이를 만들고 있다. 아이들의 인사성은 그리 밝지 않다. 마을 안쪽에 교회가 있는데 얼마 전 새로 지은 건물 이라고 한다. (박정욱 선교사님의 도움) 교회 안에 전기도 연결되어있다. 문에 새겨진 작은 십자가 모양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교회 바로 뒤편에 전력발전소가 세워져 있다.



④ 인터뷰

1. 인터뷰 대상자: 12km 마을 이장님.
2. 인터뷰 지역: 마을 이장님 댁
3. 마을 개요

1) 마을 명

반지양싸이(Ban Jiang Xai) 1930년도

2) 마을유래

사실 지금의 마을이 아닌 윗마을에 마을이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 프랑스인들이 이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마을이 너무 멀어서 지금의 마을로 옮기게 되었다. (큰 길 주위) 그리고 스위스에서 “스위스 형제단” 이라는 곳이 또 방문하였고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게 되었다. 마을의 생성 시기는 언제인가?

3) 인구

남자: 215명, 여자: 237명 총 452명

어린이: 60% 청소년: 20% 장년층: 20%

4) 총 가구 수

70가정이 있다. 한 가정당 8~9명이 있다.

5) 종족

중지대에 살던 라오통인 파오위족 과 야훈족속(저지대)이 함께 살고 있다. 각 종족마다 자기들의 언어가 있다. 처음엔 야훈 족속만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왔을 때는 귀신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야혼 족속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 예수를 믿기 원하는 외부사람들이 이 마을로 모이게 되면서 마을이 형성 된 것이다. 그래서 따오위 족속과 그 당시 떠나지 않은 야혼족 사람들이 함께 살아오게 된 것이다.

6) 주요 종교

그렇지 않다. 452명중 317명이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불교이다.

7) 주요 언어

종족언어가 따로 있지만 라오어 가 주요언어이다.

8) 평균 연령

45세가 평균 연령이고 60세가 최고령이다.

● 전력시설에 관해

Q. 전기사용이 가능한가?

반지양싸이 전력 발전소가 마을 뒤편에 생겼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전기가 들어 오지 않아서 배터리를 사용하여 꼭 필요할 시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자유롭다.

● 수도시설에 관해

Q. 물이나 식수는 어디서 얻는가?

- 마을에 펌프가 하나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그 후로는 시냇물을 길러 와 항아리에 담아서 사용한다. 그래서 건기철 에는 물이 많이 부족하다



● 경제분야 관해

Q. 사람들은 어떤 직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가?

농사나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Q.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도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Q. 어떤 종류의 부업이 있으며 대개 어떤 사람들이 부업을 갖고 있는가?

짚으로 빗자루를 만들고 지붕을 만들거나 한다. (*이 마을의 교역자 되시는 분 역시도 주일엔 교회, 주중엔 농사를 짓는다. 교단에서 나오는 돈이 지극히 적

기 때문이다.)

Q. 주 소득원은 무엇인가?

농사짓기, 과수원, 빗자루 만들어 팔기.

● 생활 조건

Q. 교통수단은 무엇인가?

- 자전거, 오토바이

Q. 문명의 개발/보급상태 는 어떠한가?

- TV, 라디오 는 있다. 전화는 없지만 카메라 폰,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1차 산업 위주 이지만 문명의 혜택은 다 누리고 산다.

Q. 병원은 어떠한가?

- 마을 안 에 병원은 없지만 간단한 응급처치나 간호를 배워와서 의사역할을 대신하는 간호원은 있다. 급할 때 에는 시내 병원으로 간다.

Q. 학교는 있는가?

-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는 시내로 나간다.

Q. 미래에 관한 인식 세계관은?

- 라오스 인들은 성경 정도만 읽으면 만족한다. 세계관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다. (라오스는 외국원조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라오스인 전체가 교육에 좀 더 눈을 떠야 하며 이 땅에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야 인력이 투입 되어서 라오스인 들이 막노동이 아닌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⑤ 필요사항

이 마을은 정말 우리가 리서치 한 네 마을과 비교했을 때 물 사용이 너무나 열악하다.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건기철 는 물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펌프시설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면 좋을 것이다.

⑥ 평가 및 실제

계획에 없던 12km 마을을 '수도시설이 더욱더 열악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올리지만 이 마을 역시 이 지역 내 특별히 물 공급이 열악한 마을 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단지 모든 마을을 리서치 하기 힘들기에 선교사님과 교제 가 있는 이 12km 마을을 택하여 예비조사를 한 것이다. 라오스 내 시내를 제외한 상당수의 마을들이(시내 반경 9km를 넘어 있는 마을들) 대부분 이 마을과 같은 상황이기에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면 29km, 30km, 31km 마을을 제외 한 마을을 리서치 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이다.

3) 전체적 조사 평가 및 제언

기존의 우리가 리서치 하고 또한 많은 단체들이 지원하고 조사했던 29km, 30km, 31km 마을들은 그 동안의 많은 지원들이 있었기에 물이 부족하지 않고 살기 편한 상태였다. 반면에 뽕세 지역에는 우리가 위에서 예로 든 12km 마을처럼 훨씬 열악한 마을들이 많다. 그러므로 지원의 방향을 보다 열악한 지역으로 돌리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선교적 관점에서는 이미 이 네 마을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이 들어가 있는 마을이므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수질이나 생활수준이 열악한 마을을 찾아 리서치를 하면 좋겠다.

4. 사역 (Vision Hill School)

1) 대상: Vision Hill School



- 1) 일반 개요
- 2) 설립연도: 2004년 5월 개교
- 3) 책임자: 박정옥 선교사
- 4) 주소: Pakse Lao P.D.R

2) 사역 내용

1) 목적

라오스의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 음악을 가르치며 어릴 때에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라오스를 끌고 갈 영적 리더로 키워내기 위한 교육시설.

2) 활동

- ① 음악교육은 한국, 외국 교재를 사용하고 현지인 교사들이 선교사님에게 배워서 가르친다.
- ② 영어교육은 보통 학원처럼 교육하고, 단기 팀이 오면 공개특강, sum, 드라마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3) 사역 방식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각 팀원당 한 반을 맡아 영어를 가르쳤다. 처음 30분은 현지인 영어 선생님이 진행하고 나머지 한 시간은 아이들과 영어게임을 하며 단어공부를 하고 회화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필요사항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영어, 음악(단기 사역자, 바이엘 이상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아이들 좋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교회, 유치원 사역자들, 영어나 음악 교수진이 필요. 한동대 안에서 한 학기 정도 휴학하고 선교에 헌신할 사람이 나오면 좋을 것이다.

5) **비전**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이 상류층 아이들이다. 이 중에서 장학생을 뽑아서 복음으로 가르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수상의 손자, 손녀가 이 유치원에 다닌다. 관공서의 자녀들이 많다).

6) **동원 전략**

- ① 영어와 음악교육을 하면서 복음찬송을 가르친다.
- ② 유치원이 단기선교 팀과의 연결 통로로 사용된다.
- ③ 유치원 내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

제4장 선교전략보고서

I. 전략보고서

1. 방글라데시

(1) 왜 방글라데시 선교인가?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로서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포교 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나 경제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경제적 투자와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치되고 있어 선교사들이라 하더라도 사업체나 NGO를 통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묵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외국인, 그 중에서도 선교사가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수월한 조건의 나라인 것이다.

몇 차례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고, 전국적인 파업을 주도하기도 하는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세력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라크 등의 과격, 극단적인 성향을 띄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방글라데시에서 권위 있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TV 출현해서 자살 폭탄 등의 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절대 성전(聖戰)도 아니고, 그것으로 천국을 갈 수는 더더욱 없다고 단정지음으로써 이슬람교 스스로 방글라데시에서 극우 세력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활발한 경제 활동 때문에 생긴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비교적 온순한 이슬람 문화는 1억 5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방글라데시 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독특하고 엄격한 이슬람 문화를 체득한 이들, 방글라데시의 무슬림을 개종시키는 것은 가파른 성장세로 이미 13억을 넘어선 무슬림 선교에 강력한 무기를 더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복음화는 직접적으로는 3억의 뱅갈족과 13억 이상의 무슬림 선교에, 간접적으로는 40억 이상의 아시아 선교의 전초지로서 중요한 고지라고 할 수 있다.

(2) 선교전략

① 한국 교회의 방글라데시 선교 소개

한국 교회의 방글라데시 선교 역사는 약 30년이다.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무슬림들에게 위협을 겪기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NGO를 통한 구제 및 지역개발 사업을 했고,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신학교를 세웠고, 아이들을 양육

하기 위한 호스텔을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장이나 공장 등의 사업을 벌이는 등 많은 사역을 해 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② 한인 선교사회의 특징

슬프게도 대부분의 외국 사역지에서 한인 선교사회는 서로 돕고, 교제하고, 축복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선교사들 서로를 동역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쟁자 심지어 뺨방꾼으로까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방글라데시 한인 선교사회는 특이하게도-당연한 것이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선교사들의 관계가 아주 좋다는 것이 그들 스스로의 고백이다. 이것은 한인 선교사들의 사역의 특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한인 선교사들은 서로 사역이 겹치는 것이 없다. 즉, 자신만의 고유한 사역의 영역을 찾아서 그 부분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호스텔 사역, 학교 사역, 농장 사역 등의 서로 다른 분야의 사역을 하고 있고, 같은 호스텔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센병 환자 자녀들을 위한 호스텔, 유치원 또래의 아이들을 위한 호스텔, 중고등학생을 위한 호스텔 등으로 그 대상이 다른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사역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 동시에 현지인 사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한인 교회의 주일학교처럼 선교사들의 협력이 필요한 일들은 서로 도와주는 체제가 이루어져 있어서 선교사들끼리 단절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다.

③ 한국 교회와 한인 선교사의 한계

현재 한국 교회의 선교는 거의 현지에 재정 후원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정도로 단순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에 의한 현지의 열매는 부정적이다.

방글라데시는 절대 빈곤이라는 떼어 놓을 수 없는 조건 때문에 교회 후원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지인 목회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이지만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지인 교회 또한 그렇다. 한국 교회에서 현금으로 보낸 돈은(한국에서 얼마를 보내든지 간에 그 돈은 방글라데시에서는 엄청난 금액이다), 가난하고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현지인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다. 목회자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자신의 욕심대로 쓰거나 하는 등의 각종 비리를 만들고, 교인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해서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외부 무슬림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편 방글라데시의 한인 선교사들이 다른 선교지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적 범위가 수도인 다카시(市)로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인의 교육열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 상황 때문에 수도 이외의 곳에는 교육 시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점이 선교사들에게 마음이 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더 많은 현지인의 필요와 아픔이 있는 오지(奧地)에 더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지(奧地)로 가려는 선교사가 없고, 심지어 오지 사역을 하던 선교사들도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사역을 접고 다카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④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한 전략

● 다양한 사역의 개발

- 방글라데시의 1억 5천만이 넘는 인구는 다양한 사역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큰 사역들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대규모의 사역들은 카톨릭 교회, 영국 성공회 등에서 이미 시작한 영역들이 많다.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하지 않는 사역,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계층을 향한 사역을 개발하여 선교에서 재정과 노력의 과잉, 중복 투자를 막는 것이 요구된다.

● 수도 다카시 이외의 지역 및 오지(奧地) 사역

-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도 다카의 인구는 13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1/10이 모인 곳에만 선교의 자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카 이외의 지역은 한국인에게 생활이 불편하고, 교육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1억 명 이상의 방글라데시의 잃어버린 양을 포기할 수는 없다. 미혼의 젊은 단기선교사가 들어가서 1~2년 다양한 형태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역, 자녀 교육 걱정이 없는 중년 이상의 부부 단위의 선교사 가정이 장기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접점이 될 수 있다. 특히 60%의 국가 전체 문맹률이 지방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 오지에서의 교육 사역은 방글라데시의 필요를 채우는 동시에 선교의 효과적인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 현지인 사역자와 교회에 직접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한인 선교사를 통한 현지인 양성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글라데시의 현지인 교회에 직접적인 재정 후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현지 교회는 현지인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지만 방글라데시의 가난이 일정 수준 해결될 때까지는 모든 모양의 선교 활동이 현지의 선교사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지인 교역자와 교회가 갑작스러운 큰 돈을 접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회 분열의 가능성을 방지하고, 동시에 선교사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선교사로 하여금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방글라데시 현지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지인 사역자를 양육하고, 현지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와 선교사는 방글라데시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재정 후원자로서 임무를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라오스

(1) 라오스 선교 이해

①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

1902년 스위스 형제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후 북부 라오스에는 CMA 선교부가, 남부 라오스에는 형제교회가, 중부 라오스에는 침례교회, OMF와 장로교회가 복음을 전해왔다. 그러나 1975년 라오스가 군부와 학생들의 소요로 공산주의의 정권으로 바뀌고 결국 예배당은 파손되고 교회는 지하로 내려가게 되었다. 공산정부는 1980년대까지 라오스 교회의 활동을 강하게 억압하였으나 1985년에 들어와 예배와 약간의 자유를 허락하였다. 1986년 교회는 정책을 바꾸어서 라오스를 위해서(비록 공산정권이기는 하나) 기도하기 시작했고, 1987년 교회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교회가 순교적 신앙을 갖고 공산치하 아래서 믿음을 지킨 것을 알게 되었다.

1989년 교회는 공산주의 아래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갖게 되었고 1994년 초에 공산정부에게 보고한 바로는 205교회와 30,000명의 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1992년에 전국적으로 2,000명의 성도가, 1993년에 6,000명의 성도가 증가되었다고 한다.

라오스에는 1970년까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없었고 1970년에 신학교를 세워서 1975년에 1명의 신학생을 내었는데 1975년 라오스가 공산화되면서 유일한 목회자가 라오스를 떠났으며 많은 주의 종들도 결국 라오스를 떠났기에 라오스교회는 지도자 부재 현상이 1989년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청년인 싸이비타오가 태국의 맥길버리 신학교(종교음악전공)를 졸업하고 라오스로 돌아간 후 총회장이 되어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선교사들이 세운 교파(SECT)를 원하지 않아 라오스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합쳐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Laos Evangelical Church)라 칭하였다.

그러나 결국 1990년 라오스 교회 스스로 목회자를 필요로 하여 KAM PHOONG(싸와니켄 소재 SONG KOK교회 목사)과 KHAM-PHONE(라오스 복음주의 교회 총무)를 목사로 세웠다. 특히 총무는 U.N에서 통역의 일을 했는데 중국계미국인 Daniel Lam(1994년 4월 소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UN을 사직하고 지금까지 교회 일에 전념하고 있다. 캄폰 목사는 1991년-1993년까지 방콕의 성경 신학교 M. Div를 졸업하였고 목회자들 중 강사 격이며 지도자격인 캄 푸위앙(부총회장), 씨앙다우(전문교부 장학관, 전도국장, 나캄 교회 부교역자), 누폰(나싸이 부교역자, 청년국장), 쉴라완(치 의사, 나싸이교회 부교역자) 4명이 방콕의 강대홍 선교사가 운영하는 목회자 훈련원(Pastor Training for Church Frowth Center)에 1992년 5월 1994년 3월까지 매월 1주간씩 훈련을 받았고, 여기서 훈련 받은 내용을 갖고서 라오스로 돌아가 다시금 지역 목회자들에게 재훈련 시키는 일을 하여서 많은 목회자들의

영적 진보를 가져왔다.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라 하겠는데 최근(1994년 4월 9일)우정의 다리가 개통되고 자본주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물질의 맛을 보면서 교회가 전에 알지 못했던 물질에 의한 움직임이 지도자 몇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려해야 할 일 중 하나라 하겠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금식기도로 대처하고 있다. 1995년 3월 현재 약 250교회와 30,000명의 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3년 9월에는 나싸이 교회를 정부로부터 돌려받고 CNW의 도움으로 US\$ 30,000을 정부에게 지불하고 현재는 실내 수리를 마친 뒤 Bee Theo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다.

② 라오스 국내 선교사역 이해

공산국가인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많은 선교단체들이 라오스에 진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 성공회는 평신도(영어선생)를 파송하여 영어학원을 개설하고 그곳에서 외국인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현지인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방콕 앵그리칸 교회가 본부).
- 하나님의 성회는 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넝카이에 있는 교회(크리스챤 썸판)을 중심으로 목회자를 파송하여 라오스 복음주의 교회의 교인들 약 10여 명을 빼돌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들은 교인들에게 차비와 음식 비용을 주면서 가정교회를 운영하는데 라오스 업에도 맞지 않아 곧 문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 인식교회는 1975년 이전에 있던 것으로서 지금은 약간의 자유를 부여 받아 예배는 드리나 전국에 한 곳으로 포교는 거의 못하고 현재 20여명 미만의 성도가 있다.
- 그리스도 교회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로서 선교사들의 입국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LEC와 곧 합류되어서 지금은 없다.
- C&MA는 현재 World Concern과 미국 대사관 그리고 UN에 속한 직원으로 사역을 하고 현지에서는 CAMA이름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 OMF의 사역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주로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며 특히 전문인(의사, 영어선생, 교수)이 소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최근에 물몬교가 라오스 정부에 학교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많이 진출해 있다. 특히 지방에는 물량공세로 나오고 있는데 조심해야 할 존재이다.
- 이슬람교는 현지인 교인은 없으나 이미 예배처소를 마련하였고 포교 중이다.
- 노르웨이 교회 연합회(NCC), 웨이커 교회 등도 있으나 선교활동보다는 사회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노르웨이(NCC)의 라오스 대표는 비기독교인이라 알려져 있다.
- LCC는 크리스천 클리닉의 허락을 정부로부터 이미 받았고, 현재는 나싸이 교회

에 직업 기술학교를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다.

- CCC의 사역(예수 영화, 4영리)이 활발하다. 4영리는 LEC에 의해서 전도되고 있다.

(2) 라오스 현상황

- ①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로 집회의 자유가 허용 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비엔티안은 라오스 수도로서 타 지역에 비해 종교에 대한 탄압이 덜하고,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3개의 현지인 교회와 1개의 한인교회가 존재한다. 외국인이 많은 이유로 활동이 자유로우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서 사역할 준비를 하고 있다.
- ② 반면에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종교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심하며 만약 외국인이 전도를 하거나 종교활동을 하다가 발각될 경우 24시간 내에 추방당한다. NGO 센터나 교육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 ③ 지방역시 개인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인정되나 전도나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허용 정도는 각 지방의 도지사와 종교국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찜빠삭 도는 31개 교회(11개 건물, 20개 처소교회(정부에서 인정한 처소교회) - 1000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나마 제일 자유롭다. 남부 4개 도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기타 교육 한다. 정기적으로 현지인 목회자를 양육하기도 한다. 반면에 아파쁘 도의 경우 종교국과 도지사가 기독교에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탄압이 심해서 2003년 크리스마스 때에는 도의 현지인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서 몇 개월간 갇히기도 했다. 2004년 4월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락 되어서 현재 3,400명의 성도가 있다. 북부는 더 규제가 심하다고 한다.
- ④ 정부 공인 교회는 종교국 에서 허가한 교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고 복음전파 보다는 교인관리와 감시의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선교사님이 이 교회로 인해 쫓겨나기도 한다. (중국의 삼자교회와 비슷)

(3) 라오스 선교 전략

① 사업과 NGO를 통한 라오스 내 기반 마련

- 종교 자체를 싫어하는 공산주의 국가 라오스에서는 사업이나 NGO라는 가리개가 없이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더군다나 선교사들이 장기비자를 얻으려해도 한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 비자를 얻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교사들이 학원 등 사업에 비전이 없음에도 비자를 얻기 위해 학원을 차려 교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라오스 내에서는 시스템 적인 측면 보다 고위층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대부분의 일이 영향을 받는다. 아무리 선교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고위층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현재 라오스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시는 선교사들도 대부분 라

오스에 온지 10년 정도 되어서 그 동안 정부 관계자와 좋은 관계가 형성된 분들이다.

- 라오스는 국가적으로 교육사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NGO와 사업을 한다면 비교적 쉽게 허가 받을 수 있다. NGO의 경우 정부 관계자와 관계를 좋은 관계를 형성 하기 쉽지만 자금이 많이 들고, 사업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지만 정부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복음을 전하기는 어렵다.
- 교육도 가정에서 소규모로 하는 것도 많이 유리하다. 특히 피아노 등과 같은 음악, 미술 등 예능의 경우 라오스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오스 학부모의 관심도가 많다. 그래서 우선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아도 쉽게 가르칠 수 있고 개인교습을 하면서 손쉽게 학생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 학생의 가정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형성이 용이하다.

② 현지인 교회와 연계하여 지도자 양성

- 관계가 형성된 현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지속적인 양육을 통하여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리더를 성장 시켜 라오스의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라오스 전역으로 파송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지원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분증에는 종교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기독교라고 표시를 하면 경찰, 교사 등 공무원을 할 자격이 박탈되고 여러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한 현지 전도사는 그 부분에 무교라 적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 현재 라오스에서는 교회를 섬길 젊은 사역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지인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인 교회와 연계하기 위하여 현지 교회로 들어가 그들을 섬기면서 현지인들을 제자삼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한국 교회와의 연계, 관계성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II. 기도요청보고서

1. 방글라데시

(1) 방글라데시의 국가적 상황

① 소개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다.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이슬람교를 빼고 이해할 수 없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슬람교는 부도덕, 거짓, 부정에 관해서 아주 엄격한 종교다. 또한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는 국가의 헌법보다도 종교법 즉, 이슬람 종교법이 더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철저한 도덕, 정직을 요구하는 이슬람 종교법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방글라데시의 거짓말 문화를 만들어 냈다. 용서라는 것이 없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의 이슬람교 종교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신체적 위협,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은 무조건 부인하고, 도망가고,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생활, 문화적 상황은 자국민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외국인을 상대로는 무조건 거짓말과 바가지 씌우기가 생활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인 기독교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큰 벽이 되고 있다.

정치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전쟁이 계속 되어 나라 전체가 날마다 테러의 위협에 놓여 있고,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② 기도제목

- 복음의 진리에 이슬람교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서 이슬람 종교법에 의한 두려운 삶이 아니라 진리에 의한 자유로운 삶이 방글라데시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 방글라데시에 만연해 있는 거짓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 파괴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 이슬람교의 종교법이 헌법보다 우선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부정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의식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법체계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 정치인들이 서로를 미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도록 기도하자.
- 기득권, 부유층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상황을 돌아 보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 가난과 차별로 고생하는 여성, 어린이,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하다.

(2) 방글라데시의 교회 상황

① 소개

방글라데시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온 교회는 영국 성공회였다. 방글라데시의 무슬림 지역에 침투하기 위한 선교전략으로 영국 성공회는 현지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방법을 선택했다. 교회로 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들의 무덤까지 제공해 준다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로 전도활동을 했던 그 영향 때문에 지금도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물질적인 보장이 없는 교회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현지교인들이 상당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양육 받고, 성장한 현지인 교역자들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 근거한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 수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며 사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국민의 0.2%를 이루고 있는 현지 기독교인들 역시 하나님을 만왕의 왕, 천지만물의 창조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하신 구속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법 상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나 부르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방글라데시의 언어, 뱅갈어의 단어 선택과도 관계가 있는데 뱅갈어의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는 ‘뚜미’다. ‘뚜미’라는 단어는 우리의 의미로는 친구 사이에 쓰는 ‘너’라는 뜻이다. 방글라데시 초대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뚜미’를 선택했다. 그러나 영국 성공회의 선교 전략-전도를 위해서는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과 고질적인 가난은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변질되게 전달해서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복만 받으려는 기복신앙, 물질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었고, 그대로 고착되었다.

② 기도제목

-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방글라데시의 교회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단이 되실 수 없으며, 그 분은 오직 사람의 한가지 목적이 되심을 교회가 인정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하자. 거짓과 탐욕이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문화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방글라데시의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현지 사역자들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후원금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후원금을 사용할 때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방글라데시의 교육계

① 소개

제3세계, 특히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그러하듯이 방글라데시에서도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면서 교육하는 이른바 호스텔이 활성화되어 있다. 지극히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에서의 호스텔은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NGO는 물론이고 기독교, 힌두교 등의 선교 사역에는 전제 조건처럼 되어 있다. 공교육이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가난 때문에 사교육은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상황에서 많은 호스텔들, 특히 교회나 선교사들이 세우고 있는 호스텔들은 방글라데시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슬람의 생활 문화에서 성장한 어른들은 개종시키기도 어렵고, 개종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지 선교사들의 말이다. 역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② 기도제목

- 방글라데시에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더 많은 기독교 호스텔이 세워져서 더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기도하자.
- 기독교 호스텔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회에서 그 곳의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리더이셨던 것을 본받아,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섬기는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호스텔을 운영하는 사역자들이 체력, 재정, 사랑, 섬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자.

(4) 밋다라 학교(초, 중학교)

① 소개

1975년 한국인 정성균 선교사에 의해서 건립된 후 지금은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에서 운영하고, 김성 선교사가 교장으로 시무하고 있는 현지 아이들 대상의 초, 중학교이다. 학생의 대부분은 무슬림 가정의 아이들이고, 고용 인원의 일정 부분을 무슬림으로 채워야 한다는 방글라데시의 정책 때문에 교사들 중에도 무슬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는 김성 선교사의 헌신과 현지의 기독교인 교사들, 그리고 KOICA단원의 수고로 방글라데시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교사 10여 명, 학생 350여 명 중에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지만 벌써 오랫동안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사랑으로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미 많은 학생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내려놓음은 물론이고 교회를 알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② 기도제목

- 교육 사역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고 헌신한 김성 선교사와 쉽지 않은 주변 여건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비록 KOICA단원의 신분으로 왔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는 백수경 KOICA단원(26세)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밋다라 학교의 학생들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씨앗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싹이 트고, 양육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믿음이 잘 자라서 방글라데시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을만한 하나님의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현재 중학교 교육 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학교의 규모를 늘려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채워지고, 이뤄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재정, 법적 문제들, 필요한 인력)

(5) 반다바리 마을(한센병 환자 정착마을)과 다니엘 호스텔

① 소개

1999년에 정부 주도로 수도 다카시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한센병 환자들의 정착 마을을 조성했지만 지금은 정부의 지원이 끊어진 상태이고, 자급자족하기 힘든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마을은 특히 가난 때문에 힘들고, 외부와의 단절 때문이 주는 외로움과 거절감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이 곳의 30여명의 아이들 중 대부분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가난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른

들의 대부분이 구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 생활에 만족하고 아이들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 더 나은 삶을 위한 기대감이 아이나 어른에게 모두 없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의 반다바리 마을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김성 선교사가 수도인 다카시에 ‘다니엘 홈’이라는 이름으로 호스텔 사역을 시작했다. 일차적으로 5명의 아이들이 다니엘 홈에 와서 생활하면서 양육받고 있는데 김성 선교사는 장기적으로 15명 정도의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정도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아주 어릴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반다바리 마을이 이슬람 마을이라 다니엘 홈으로 온 아이들도 무슬림들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조금씩 아이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② 기도제목

- 반다바리 마을과 10여 년 이상 계속적으로 관계 맺어 온 김성 선교사를 통해서 마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반다바리 마을 사람들이 항상 눈 앞의 물질의 필요만을 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김성 선교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받을 준비시키셔서 이제는 복음이 반다바리 마을에 선포되고 마을 주민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하자.
- 반다바리 마을의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 홈’이 단순히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체험적으로 전달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지금은 무슬림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방글라데시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다니엘 홈’에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현지인 목사 내외가 자신들의 사랑, 노력으로는 아이들을 섬기고 양육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자. 아이들과 현지인 목사 내외가 친 부모자식 간은 아니지만 친 가족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자.

2. 라오스 비엔티엔

(1) Hmong Njua(몽족)

① 주제: 아픔과 한이 서린 이 종족에게 주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150,000명 이상의 Hmong Njua(Joo-ah라 불림)은 라오스 북쪽과 동쪽 넓은 지역에 걸쳐 살고 있다. 또한 Hmong Njua족은 중국, 베트남, 태국, 그리고 미국에서도 살아가고 있다. 이 종족은 항상 그들이 사는 지역의 가장 높은 산의 정상에 살고 있다. 한 Hmong족의 속담을 보면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고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며, Hmong족은 산에 산다.(Fish swim in water, birds fly in the air, Hmong live on the mountains)”가 있다.

이 종족의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몇몇의 학자들은 Persia 또는 Babylon에서 그들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중국 북부로 들어가기 전에 한 세기 동안 시베리아를 향해 북으로 이주하였다. Hmong의 전설과 중국의 기록은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고향은 6달 동안 낮과 밤이 지속되고 물이 얼음이 되었으며, 눈이 땅을 뒤덮는 곳이며 그곳에서는 사람들 역시 작고 땅딸막하며 동물의 털가죽을 옷으로 입었다는 것이다.

20세기 현재 수많은 Hmong족들은 여전히 Caucasian특성(백색인종)을 지니고 있음이 발견된다. 1924년 ‘Foreign Mission’에 파리의 사회학자 중 Father F. M. Savina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외관상 그들은 창백한 노란색이며, 대부분은 하얗고 그들의 머리는 거의 밝거나 짙은 갈색이다. 하지만 간혹 빨강거나 cornsilk blond(금발)색을 띠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소수는 창백한 파란 눈을 갖고 있다.”

이 종족은 'Hmong Savior'의 전설을 갖고 있다. Hmong Savior는 어느 날 스스로 나타나 반대 세력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그들의 고향으로 독립을 성취할거라 믿고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종족은 특히 강하고 카리스마와 (병치료 등 성령의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파)의 특징으로 인하여 속임을 당하는 거에 민감하다.

오늘날 그들이 New Testament, 예수님 영화, 다른 선교도구들을 갖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서는 전체 Hmong족 중 오직 1,000명이 기독교인이다. 그들 사이의 거의 전체 크리스천 공동체는 1975년에 그 나라로부터 해방하였다.

그들의 생활을 잠시 엿보면 Pong족들은 대부분의 라오스 종족과 마찬가지로 나무 집을 짓고 살며 바닥에 대나무로 된 장판을 깔며 허름한 천으로 칸을 나누어 방으로 사용합니다. 집 한쪽에는 장작과 불을 뿜 수 있는 화로가 있어서 요리 겸 집 안을 덥힐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직업은 주로 농사와 목축업에 종사합니다. 공산사회인지라 한 마을에는 반장이라고 하여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산당원으로 4-5년의 임기를 지냅니다. 마을의 통제는 그가 맡아서 하지만 전체적인 결론은 다른 단원의 지도 아래에서 내리게 됩니다. 식수는 주로 산 위쪽에 살고 있어서 산 위에 우물을 파고 물을 저장한 후 파이프나 대나무를 이용하여 아래쪽으로 공급을 합니다. 마을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고 모두 학교에 갈 자격은 되지만 돈이 없어서 모든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 나이 많은 순서대로 학교에 보냅니다.

②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전역의 Hmong Njua족들 사이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 예수님을 알기 위한 Hmong Njua의 마음을 갖게 해주기를
- 세계에 널리 퍼진 Hmong 신자들이 라오스의 Hmong Njua를 전도하기를

(2) 선교사님- 박정민, 권성숙 선교사 부부

- ① 주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통로이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부으신 은혜가 성령님의 귀한 열매로 맺히지기를……

박정민 선교사, 권성숙 선교사 모두 C.C.C 출신의 선교사로 독신의 각오를 하고 선교지 나온 후 가정을 이루게 됐다. L.M.C(Lao Mission Center) 소속으로 박정민 선교사는 컴퓨터와 영어를 센터에서 가르치고 권성숙 선교사는 피아노 사역을 하고 있다. 아들 세빈(3세), 와 영빈(1살)이가 있다.

박정민 선교사님께서는 KOICA단원으로 봉사하면서 처음 라오스와 관계를 맺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라오스에 선교사로 파송 받아 컴퓨터, 태권도, 영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컴퓨터전공을 살려 라오스언어로 소책자를 만들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며 영어는 회화위주의 책자로 교육하고 계신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현지 사역을 정리하고 계시며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

권성숙 선교사님은 실제로 피아노를 전공하지는 않아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피아노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과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다. 1시간 동안 가르치면서 그 아이의 고민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차츰 아이들이 마음 문을 열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현재는 잠시 쉬는 기간이고 앞으로 남편인 박정민 선교사님과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간 피아노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부족한 면을 더욱 보충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소망한다고 하신다.

② 기도제목

-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 사역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현지의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사역들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 주님의 뜻에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선교사님- 최수호 선교사님

① L.M.C 센터에서 영어 교육을 하고 있으나 소속되어있지는 않다. 현재 북부에 미전도 종족 사역을 준비 중이신데 그 중에서도 컴퓨터 학원 사역을 위해 2달 전부터 서류를 넣어 놓은 상태이다. 길어도 6개월(올 12월) 이전에는 학원 사역의 허가가 나올 예정이라 학원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 사실 라오스는 학원의 허락이 나오기 전에 미리 학원 건물이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기에 씨엥쿠앙의 폰사반 주변으로 건물들을 자세히 둘러보고 계신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컴퓨터 몇 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② 기도제목

- 학원 허가 절차가 무사히 진행되어 온전히 지체들에게 교육을 통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 학원에 관련한 물품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그 필요가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 사역을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4) 현지 교회- 칸르이 가정교회

① 주제: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 죽도록 충성한 귀한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칸르이 가정교회는 산족 몽족 한 마을의 가정교회이다. 2년 전 다른 곳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공산당으로부터 당시 리더였던 아브가 총살을 당하게 되어 문을 닫게 된다. 하지만 관직자 중 한 사람이 기독교 총살을 옹지 못한 일이라고 하여 그 일로 2년 후 허가를 받았으며 지금은 꺾박 없이 가정교회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칸르이 가정교회는 몽족 27가정(250~300)명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 라오스의 예배는 주로 주일예배와 목요 예배로 크게 나뉘는데 주일예배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이고 목요 예배는 기도회 예배로 오후 7시 반부터 9시까지이다. 예배를 마친 후엔 교회 청년은 청년끼리, 장년은 장년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모여 축복기도를 드린다. 성경공부는 1주일에 한번 하며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담당한다.

담당 리더는 쭈아라오 뚜왕으로 62세이다. 현재 건강이 그리 좋지는 않은 편이라고 하시고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몸이 건강했으면 한다고 한다.

전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일 자리를 이용한다고 한다. 점심을 먹을 때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물어보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해줌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린다고 한다. 또한 보통은 사영리 책자가 라오스 표준말(라오어)로만 되어 있었는데 몽족의 언어로 번역을 한 책자를 만들어 이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

② 기도제목

- 교회에 의자가 많이 부족하다. 나이 든 분들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데 한 50개 정도의 의자를 채워주시기를
- 앞으로 가정교회가 아니라 이 마을에 진짜 교회가 설립되기를
- 리더 분은 노환으로 관절이 좋지 않고 밥맛이 없다고 한다.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3. 라오스 뻥쎄

(1) [라오스 헌법에는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 가르침이나 전파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 전제이다. 따라서 개인으로 무슨 종교를 가질 수 있으나 모여서 교리를 가르치거나 전도를 해서는 안 된다. 조직 집회가 가능한 곳은 정부가 허락한 일정한 장소 또는 교회에 국한한다. 외국인에 대한 종교적 감시는 라오인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 종교적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방문객은 모두 불허하고 있다. 외국인은 어떤 형태의 집회나 가르침이나 문서 배포를 할 수 없다. 만일 외국인이 어떤 종교적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체포되거나 24시간 내에 추방 당하게 된다.]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수도는 땀 하지만 뻥쎄와 같은 지방은 외국인을 24시간 내내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밀히 감시합니다. 저희 팀이 라오스 있는 동안 리서치를 하기 위해 마을에 가서 현지인을 만날 때 등 선교사님께서는 기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식당 등에서 식사할 때 “ㅇㅅ(예수님)의 이름으로 ㄱㄷ(기도) 합니다. ㅇㅇ(아멘)” 이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모교회가 라오스 기독교 현지 지체가 노방전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다 적발되어 추방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순교의 각오를 해서라도 주님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라오스는 그것에 앞서 순수 기독교의 목적으로는 입국자체를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라오스 선교사님들께서 여러 총체적 선교의 방법으로 라오스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선 라오스 국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스는 인근에 접한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로서 동으로는 중국과 베트남에 둘러져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국과 미얀마 그리고 남으로는 캄보디아와 접해있습니다. 70년대 중반에 라오스는 북베트남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남베트남을 침공함으로, 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계기로 말미암아 라오스에 공산화가 시작되었고, 세계의 자유물결에도 불구하고 문을 단단히 잠그고 인권을 억압하고 경제를 장악하며 정치적 독재를 강행하는 공산주의의 노선을 고집해 왔습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으로 쉽게 말하면 통제가 심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이 땅을 엮매

고 있는 억압의 영들, 미혹의 영들이 주 보혈로 파괴되고 인간의 이상주의를 숭배하는 것보다 영원하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도제목

- 공산국가인 라오스가 인간이 만든 이상주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알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라오스 땅을 붙잡고 있는 미혹의 영, 억압의 영이 주 권세 아래 깨지게 기도해 주세요.

(2) [라오스는 여러 지역에서 들어와 형성된 나라이기에 많은 종류의 신앙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또는 마을과 마을에 따라서 종교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종교는 역시 테라바다 불교(소승불교)이다.

통계적으로 절실한 불교인이 약 65%이고 정령숭배가 35%를 차지한다. 그리고 애니미즘적인 종교 요소는 모든 라오인의 생활 속 어디에나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시'라는 것이 있다. (손에 실을 감는 형태) 바시는 모든 라오인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행하는 것으로 애니미즘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아플 때, 여행할 때, 아이가 출생할 때, 죽을 때 등 모든 일에 귀신이 나타나 이들을 방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달래는 행사를 가지는데 이것이 바로 바시이다. 심지어 불교 승려도 이런 의식을 가지기도 하고, 직접 그 의식을 인도하기도 한다. 이 '바시'야말로 라오인들이 불교와 애니미즘이 얼마나 서로 혼합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 이런 면에서 라오스에서 순수 종교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교는 가장 우세한 종교 중에 하나는 자명한 사실이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당연히 라오인들은 불교도라고 대답한다.

2000년 3월 라오불교협회(Lao Buddhism Fellowship Organization)가 밝힌 바에 의하면, 라오스 내에 2823개의 사찰이 있으며 42개의 불교계 학교가 있고 19,779명의 수도승 및 쿠바(스님)들이 있다 한다. 라오스는 불교국가라서 모든 삶이 불교와 연결되어 있다. 각 마을마다 사원이 있고,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다. 크고 넓은 절에서 그들은 놀고, 먹고, 교육을 받으며 자라기 때문에 모두 자연스럽게 불교인이 되는 것이다. 이곳 남자들은 10살 정도가 되면 삭발을 하고 수도승으로 불교에 입교하여 불교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절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전통이 있어,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어릴 때부터 불교와 연합을 이루게 된다. 이곳 불교는 소승불교로 한국불교와는 전혀 달라서 산에서 수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민중들과 함께 하는 불교이다. 음식에 대한 절제도 없어서 고기나 담배 등 일반 사람들이 먹는 대부분을 승려들도 먹는다. 뿐만 아니라 라오 불교는 온갖 우상숭배와 샤머니즘, 그리고 귀신문화와 혼합된 불교로 온 국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불교는 팡웁왕에 의해서 1353년에 라오스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부터 불교는 라오스의 주요 종교가 되었다. 심지어 이 땅에 공산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도록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조차 불교를 약화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당국은 결코 불교도들을 계몽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통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라오스식 공산주의로 전

환한 것이다. 라오스에서 주요 교사는 승려이다. 승려들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한다. 그들은 읽기와 쓰기 그리고 수학 및 역사, 지리 등을 그들이 알고 있는 불교적 도덕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마을마다 있는 절에는 초등교육을 위한 학교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라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매우 중요한 초등교육을 절 안에서 불교 문화를 접하며 자라게 된다. 라오 정부는 승려 조직을 이용한 도움이 그들의 권력 유지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승려들에게 공산주의와 라오 정부의 정책을 재교육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 정부는 '극락과 지옥을 믿는 불교 교리와 일은 하지 않고 음식만을 요구하는 불교도들과 승려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라오불교연합회의 조직과 힘은 대단하다. 심지어 시골 절에 수도승을 선출하는 일에도 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애니미즘적인 요소는 라오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넓게 퍼져 있는 현상이다. 소위 귀신집(spirit house)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가정집, 음식점, 사업체, 학교, 농장, 큰 나무 밑, 산꼭대기 등 어디에나 있다. 사람들은 이 귀신집을 정성을 다하여 돌봐야 삶의 축복과 육체의 건강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매일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보호와 행운이 있기 위해서는 신과 사람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귀신집에 있는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신과 사람 사이에 조화가 깨지면 귀신은 욕구 충족을 위해 다른 곳을 찾아 그 사람을 떠난다고 한다. 이럴 때 그 사람에게는 질병이나 죽음이나 그 밖에 여러 불행이 닥친다고 믿는다. 샤만(shaman)은 이렇게 해서 나간 영을 다시 부르거나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샤만의 이러한 중개역할은 삶의 사이클을 유지시키기도 하고 또 보수하기도 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혼합된 종교적 형태는 어느 한가지 엄격한 종교적 원리에 집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삶의 형태는 무엇이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고, 무엇이 절대적인 것도 하찮은 것도 없는 모든 것이 비슷하다고 하는 세계관을 형성해왔다. 따라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가르침을 라오스의 토양에 심는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인 청맥에서 라오스로 들어가면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어느 단체가 라오스 뻥새 한 마을에 의료사역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며 손에 흰 명주실 끈 것을 묶어주려고 한 것을 거절하느라 힘들었다.” 십계명 제일 계명에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神)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나와 있지만 라오스인에게는 불교는 물론 우상숭배가 생활화다. 모든 가정집, 학교, 공기관서 예외 할 것 없이 귀신집이 있으며 마을 주변 곳곳에서 불상과 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 기도제목

- 우상숭배가 진정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탄마귀에게 붙잡혀 진실을 알지 못하는 라오인들이 속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 특히 라오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러질 수 있도록.

(3) 라오스에 처음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는 장로교의 다니엘 맥 길버리 선교사(Daniel MC GilVary)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1872년부터 1898년 사이에 태국 치앙마이에서 라오스로 여행하며 선교하였는데 그 대상은 카무족이었다. 이어서 들어온 것이 1902년 스위스 형제단 (SwissBrethren)이다. 그들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역은 일반적으로 복음전파와 교회 개척 그리고 라오어 성경번역 등이었다. 스위스 형제단 다음으로 들어온 단체는 OMF (Overseas Mission Fellowship)이다 그리고 CMA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가 1929년에 라오 복음교회와 관계를 맺고 들어왔다. 이로 말미암아 CMA는 라오스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초기의 그들의 사역은 라오어를 습득하는 것과 전도, 교회개척, 그리고 신학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신학교육은 평신도 지도자와 목회자를 길러내어 토착적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왔다. 이러한 도움으로 1975년 라오스가 공산화 될 때 이들 단체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비록 그들 지도자가 국외로 피신했다 하더라도, 라오인들은 스스로 평신도 지도자를 통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 1975년 라오스 인민 공화국이 정권을 잡을 때만 하더라도 약 32,000여명의 성인 교인과 함께 약 250개의 조직된 집회 장소가 있었다. 그러나 어느 통계에 의하면 1989년 성인신자가 15,000여명 1993년에는 28,000이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라오스 교회의 신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증가비율은 매년 2,000여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독교 관련 문서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 중에서 성경이 1992년에 45,000여권이 들어와 라오인들 손에 전달되었다. 1991년에는 목사안수식이 1975년 이래로 처음 있었고, 1997년에도 2명의 목사안수식이 있었다. 그리고 라오스에 크리스천은 전국 17개도 중에 11개의 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오교회는 무종파라고도 말한다. 라오교회는 침례교나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CMA등, 어느 다른 외부 교단과도 제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교회 명칭은 아주 간단하게 라오 복음교회 (The Lao Evangelical Church)라고 부른다. 이것은 라오 교회의 지도 방침이자 라오 정부 역시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오 교회는 외딴 섬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미 태국 교회의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그 외에 서방교회와 CMA 선교사들의 방법들이 교회 안의 여러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현재 수도 위앙짠에는 3개 교회에 약 500여명의 신자가 있고 전국에 약 300여 개의 예배처소(기도처소, 가정교회 포함)가 있고 약 30,000여명의 성도가 있으며 성장률은 6.2%라고 총회는 밝히고 있다. 1975년에 공산화되면서 모든 외국 선교사들과 라오스의 훈련된 교회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국외로 떠났다. 공산화 이후, 남, 북부의 교회들은 스스로 교회를 지키며 협력해오다 라오스정부의 개방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인 1989년 4월 약 100여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라오스 복음총회"라는 교단이 탄생되었으며 정부로부터 허가도 받았다. 라오 교회는 1993년까지만 해도 정부와의 관계가 좋았으나 1994년에는 정부의 압력으로 여러 도에서 여러 교회들의 문이 닫히기도 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개신교인과 천주교인 모두에게 신앙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할 것과 다른 사람과 종교적인 대화를 하지 말 것을 서약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약 4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거나 학교로 개조되었으며 성경, 찬송가 등 많은 기독교 서적이 압수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통령인 캄타이가 취임하던 98년부터 더욱 심해져만 가고 있는

데 그 예로 98년초 외국선교사 5명이 정부를 비판하고 타종교(불교)를 비판했다는 죄목을 달아 추방한 일이 있었다. 특별히 핍박이 심한 지역은 루앙프라방, 쩐야부리, 씨앵쿠왕, 풍싸리, 보리캄사이, 아따쁘, 쎄콩등 7개도이다. **현재 라오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자유와 훈련 받고 경험 있는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의 결핍이다.** 천주교 최초의 라오스 선교는 장 드레리아(Jean De Laria)라는 예수회 신부에 의해 1642년에 이루어 졌는데, 불교 승려들에 의해 강제 추방될 때까지 약 5년간 사역하였다. 그 후 1878년에 카톨릭 신부들에 의해 라오스 북부 지역 선교가 시도 되었으나, 1884년에 12명의 사제가 순교하고, 1889년에 5명의 사제가 더 순교하는 많은 어려움 끝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1893년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면서 중, 남부 지역에서 카톨릭 선교의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 하지만 공산화 이후 모든 카톨릭 유산들은 공산당이 압수해 갔다. 신경제 정책이 발표된 이후 위양짚에 있는 일부 카톨릭 교회들은 시설을 재정비하고, 일부 지역 마을 소녀들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 현재 주교 3명에 의해 4개의 교구가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00명의 신도가 라오스 남부지역에 있다고 한다.]

<http://myhome.hitel.net/%7Elhr1999/laos-6.htm>

윗글의 진한 글씨체로 쓰인 [현재 라오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자유와 훈련 받고 경험 있는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의 결핍이다.] 이것이 라오스 교회의 피부로 와 닿는 큰 문제점이다. 라오스에도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은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 그러나 거둬난 목회자가 없다. 라오스 내의 교회는 많은 곳에서 물질적 후원이 있다 보니 진정 목회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 등)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더 후원을 받을까 한다는 점이다. (모든 라오스의 목회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을 통해 듣게 된 일부 목회자들) 심지어 현지인 목회자가 외국 선교사들을 이간질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라오스 현지 교회를 갔는데 공산국가 아래서 교회를 나올 정도의 성도면 그리고 목회자, 리더라면 많이 깨어진 이들이라 생각했으나 설교를 하는 사람도 성도도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

■ 기도제목

- 주님의 능력을 힘입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져서 길 잃은 양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 라오스내의 교회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 사단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전심 전력으로 따를 수 있도록

(4) 라오스 박정욱 선교사님(라오스 뻑쎄)을 위한 기도제목

-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는 20명 정도의 선교사님께서 계시지만 남부 지역인 뻑쎄에는 박정욱 선교사님 한 분께서만 계십니다. 먼저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지금 라오스에서 8년째 사역 중이신데 선교사라는 직분 대신 학교 교장님으로서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주력하십니다. 그러나 외국인이기때문에 여전히 국가에서 알게 모르게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특성상 쉽게 지치는 날씨이기에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특히 기도해주세요.

- 선교사님은 지금 Vision Hill School의 아짘으로써 영어와 피아노를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은 장소가 협소하여 학원형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유치원, 초등학교 허가까지 난 정식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라오스의 중상류층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들은 장차 라오스의 리더가 될 아이들입니다. 이들에게 학교 안에서 비록 정식으로 복음은 전하지 못하지만 기독교의 영향이 그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장차 축복의 통로가 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선교사님께서서는 차세대 기독 리더들을 길러내는 센터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미 만이천평 규모의 대지를 구입, 땅을 정비하고 이미 건물들을 건축할 준비들을 하셨습니다. 기숙사, 공동건물, 체육관 등이 그 땅 위에 세워질 터인데 거기서 성장할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크게 세워지며 라오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